

# 청년은 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가 :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위한 공동체 정책 제언

박상아 박수정 김연주



# 청년은 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가

: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위한 공동체 정책 제언



## 연구책임

박상아 동네작당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연구진

박수정 동네작당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김연주 동네작당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차

|                               |           |
|-------------------------------|-----------|
| <b>01 서론</b>                  | <b>1</b>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
|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
| <b>0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b>       | <b>9</b>  |
| 1.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 및 정의           | 9         |
| 2. 독거청년의 현황 및 세대 특성           | 17        |
| 3. 공동체 정책 현황 및 주요 내용          | 22        |
| <b>03 조사 설계</b>               | <b>30</b> |
| 1. 조사 개요                      | 30        |
| 2. 지표 설정 및 조사 항목              | 32        |
| 3. 분석의 틀                      | 34        |
| <b>04 청년은 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가</b> | <b>36</b> |
| 1. 독거청년의 삶: 서울살이              | 36        |
| 2. 독거청년의 사회적 결핍과 소외           | 56        |
| 3. 독거청년은 공동체를 원하는가            | 62        |
| 4. 독거청년은 어떤 정책지원을 원하는가        | 77        |
| 5. 결론 : ‘작은 지원, 큰 공동체’의 가능성   | 85        |
| <b>05 공동체 정책의 개선방향</b>        | <b>89</b> |
| 1. 공동체 정책 사례 종합               | 89        |
| 2. 독거청년을 위한 공동체 정책의 개선방향 제언   | 98        |

|          |     |
|----------|-----|
| 3. 결론    | 105 |
| 4. 마무리하며 | 108 |

|      |     |
|------|-----|
| 참고문헌 | 109 |
|------|-----|

|          |     |
|----------|-----|
| Abstract | 112 |
|----------|-----|

## 표 목차

|                                            |    |
|--------------------------------------------|----|
| [표 1-1] 연구 내용별 자료 수집 방법                    | 7  |
| [표 2-1]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 선행연구                   | 9  |
| [표 2-2] 사회적 연결망의 순기능 관련 선행연구1              | 11 |
| [표 2-3] 사회적 연결망의 순기능 관련 선행연구2              | 13 |
| [표 2-4] 사회적 연결망 분석의 특성 선행연구                | 15 |
| [표 2-5] 서울시 내 독거청년 수 추이                    | 17 |
| [표 2-6] 공동체 정책 분석의 틀                       | 23 |
| [표 2-7] 자원유형별 공동체 정책 현황                    | 23 |
| [표 2-8] 서울시 모임 형성지원 공동체 정책                 | 24 |
| [표 2-9] 서울시 활동 지원 공동체 정책                   | 26 |
| [표 2-10] 서울시 공간 지원 공동체 정책                  | 28 |
| [표 3-1] 조사대상 유형                            | 30 |
| [표 3-2] 조사의 개요                             | 31 |
| [표 3-3] 사회적 연결망 현황/육구 측정 지표                | 32 |
| [표 3-4] 조사의 항목                             | 33 |
| [표 3-5] 분석의 틀                              | 35 |
| [표 4-1] 직장인의 FGI '서울살이' 응답 결과              | 36 |
| [표 4-2] 대학(원)생의 FGI '서울살이' 응답 결과           | 37 |
| [표 4-3] 무직의 FGI '서울살이' 응답 결과               | 39 |
| [표 4-4] 독거청년의 그룹별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 41 |
| [표 4-5] 직장인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활용 양상 '무엇을' | 43 |

|                                               |     |
|-----------------------------------------------|-----|
| [표 4-6] 직장인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활용 양상 '누구와'    | 44  |
| [표 4-7] 대학(원)생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활용 양상 '무엇을' | 45  |
| [표 4-8] 대학(원)생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활용 양상 '누구와' | 46  |
| [표 4-9] 무직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활용 양상 '무엇을'     | 47  |
| [표 4-10] 무직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활용 양상 '누구와'    | 48  |
| [표 4-11] 독거청년이 이웃에게 느끼는 친밀도                   | 49  |
| [표 4-12] 독거청년이 느끼는 지역사회 소속감                   | 50  |
| [표 4-13] 직장인의 FGI '사회적 결핍과 소외' 응답 결과          | 56  |
| [표 4-14] 대학(원)생의 FGI '사회적 결핍과 소외' 응답 결과       | 57  |
| [표 4-15] 무직의 FGI '사회적 결핍과 소외' 응답 결과           | 57  |
| [표 4-16] 직장인의 FGI '공동체 욕구' 응답 결과              | 62  |
| [표 4-17] 대학(원)생의 FGI '공동체 욕구' 응답 결과           | 63  |
| [표 4-18] 무직의 FGI '공동체 욕구' 응답 결과               | 64  |
| [표 4-19] 설문조사 응답자 그룹별 생활권 내/외 사회적 연결망 현황      | 65  |
| [표 4-20] 독거청년 생활권 내/외 사회적 연결망 형성경로            | 65  |
| [표 4-21]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욕구               | 67  |
| [표 4-22] 독거청년이 요구하는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교류 정도       | 72  |
| [표 4-23] 독거청년의 공동체 정책 인식 정도                   | 77  |
| [표 4-24] 직장인의 FGI '정책 수요' 응답 결과               | 78  |
| [표 4-25] 대학(원)생의 FGI '정책 수요' 응답 결과            | 79  |
| [표 4-26] 무직의 FGI '정책 수요' 응답 결과                | 79  |
| [표 5-1] 공동체 정책 분류의 틀                          | 90  |
| [표 5-2] 공동체 정책 사례 분류                          | 90  |
| [표 5-3] 간접 지원 사례_활동 지원                        | 93  |
| [표 5-4] 간접 지원 사례_공간 지원                        | 94  |
| [표 5-5] 간접 지원 사례_인적 지원                        | 95  |
| [표 5-6] 독거청년을 위한 공동체 정책 제언                    | 100 |

# 그림 목차

|                                |    |
|--------------------------------|----|
| [그림 1-1] 연구의 목적                | 4  |
| [그림 1-2] 연구의 흐름                | 6  |
| [그림 1-3] 분석의 방법                | 8  |
| [그림 2-1]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 1인 가구 수   | 17 |
| [그림 4-1] 공동체 욕구 중심 공동체 유형 분류 틀 | 68 |
| [그림 4-2] 공동체 욕구 중심 공동체 유형 분류   | 69 |
| [그림 4-3] 독거청년의 사회·환경적 장애 요인    | 86 |



# 01.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서울에 모이고 있는 독거청년들

국내 가구 구성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의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요 가구 유형이 1인 가구로 좁혀지고 있으며, 특히 이 중에서도 서울에서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한 소규모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47%에 달하고 있다. 이른바 ‘인구 감소’, ‘탈청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서울은 오히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1인 가구 중에서도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20~30대 청년이다. 서울시 청년허브 청년실태 자료와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 중 43.5%는 지방 출신이며, 이러한 지방 출신 1인 가구 청년들은 대부분 열악한 주거 실태를 보이고 있었다.<sup>1)</sup> 대부분의 청년들은 주거비의 부담 때문에 원룸촌, 고시원 등 주거 형태에서도 공동체와 거리가 먼 생활양식을 취하고 있으며, 개개인이 가까운 물리적 거리 내에서 유대감을 형성할 공동체를 만날 기회가 적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듯 관계망 빈곤에 노출된 청년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생활안전망과 사회관계망이 전무한 대부분의 1인 가구 청년들이 자발적 독립을 선택했지만 비자발적 소외와 고립을 겪고 있는 세대임을 고려한다면, 이들을 ‘독거청년’이라는 단어로 정의하는 것이 제법 적절할 것이다. 이에 독거청년으로 구성된 본 연구진들은 기회를 찾아 서울로 들어왔지만 ‘내 동네’가 없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서울살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품게

1) “서울살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905105111538> (검색일: 2019년 11월 1일)

되었다.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기반이 전무한 독거청년들의 청춘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동네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아는 이웃 없이, 뻘뻘한 원룸으로 가득한 빌라 숲 한가운데에 딱 박혀있는 ‘자취방’ 하나로 귀결되어야만 할까. 결혼을 할 때까지 혹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출 때까지 ‘떠나야 할 곳’이라는 인식을 품은 채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 2) 2030세대의 마을공동체사업 참여비율 저조

개인이 고립되고 원자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잇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공동된 장소 혹은 동네를 기반으로 조성된 공동체는 결속력이 강하며, 이러한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제로 인식하므로 이를 자생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는 마을 문제의 해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람(마을사람), 삶(마을살이), 협력(주민주도를 지원하는 민관협력)이 사업의 지향점이다. 이러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했을 때 사회적 연결망이 전무한 독거청년은 사업의 주요 참여자이자 수혜자가 되어야하나, 막상 현장을 들여다보면 서울시의 미래인 청년층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요 참여자는 기혼 여성이 주를 이루며, 이 중 20대 청년층의 참여율은 약 6%로 서울시 인구 전체비율과 비교했을 때 20대가 차지하는 15%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sup>2)</sup> 꾸준히 독거청년의 가구구성이 증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적게 참여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의 사회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공공 차원에서 독거청년을 위한 공동체 지원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긴 급히 이뤄져야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 3) 정책적 필요성 발굴 및 인식 개선

이처럼 독거청년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반면, 서울시의 측면에서 봤을 때 독거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정책 지원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관점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2) 안현찬·구아영.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2017년 5월 31일), p.42

첫째, ‘정책의 필요성’이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이슈는 공급자 관점과 대상자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공급자 관점인 서울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책의 필요성이 ‘외로움’과 ‘소외’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위한 공동체 정책 지원이 어느 범위까지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인적 성향에 따라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의 정도가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설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정책 지원의 정체성이 다소 모호해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와 더불어 대상자(독거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현 청년세대가 과연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에 대하여 필요성과 욕구를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또한 부족하다.

이는 두 번째 쟁점인 ‘독거청년에 대한 인식’과 연결된다.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않는 세대’, ‘개인주의가 심화된 세대’, ‘활동 반경이 넓은 세대’, ‘독립적 성향이 강한 1인 가구’라는 인식과 특성은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 반영의 위협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공동체 정책의 필요성과 지원 범위에 대한 정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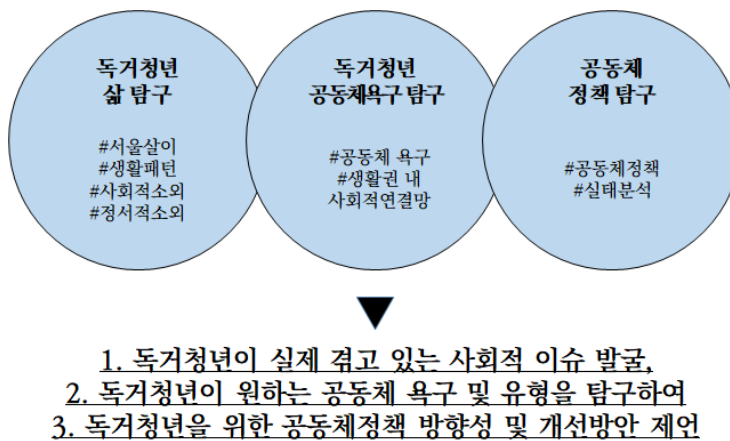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회구조 가운데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부재한 환경은 개인의 고립을 심화시키며, 공공의 지원이라는 촉진과정이 없이 청년층의 자생적인 공동체 회복과 축진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에서의 연결망 경험이 부재한 청년층이 늘어난다면 향후 미래 세대의 탈공동체 심화와 더불어 기존 공동체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불안정한 사회 환경적 요인 및 청년세대의 특성을 정책반영의 한계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으로 전환되도록 근거 자료를 발굴함과 동시에 독거청년에게 형성된 사회적 인식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4) 독거청년의 공동체 이슈 기반 정책방향 제시

현재 청년층을 위한 정책 중에서 공동체 정책으로 좁혀 바라보았을 때, 독거청년을 대상으로 생활권 기반의 사회연결망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과 정책적 장치는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사회관계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공동체 정책의 경우, 정책 수요와 비교하여 정책의 목표와 전략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정책의 결과들이 초기 정책의 필요

성을 만족시키는 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탈공동체와 개인주의가 진행되는 사회 패러다임 속에서 현 청년층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유형이 과거 두레공동체의 유형과 달라졌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 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공동체 이슈와 수요를 기반으로 공동체 정책의 방향이 새롭게 재정의 되고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진은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실제 독거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공동체 욕구 및 유형을 탐구하여, 이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공동체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최종 목적이 있다.



[그림 1-1] 연구의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 (1) 연구 관점 및 질문

본 연구는 ‘일상적 이웃 및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의 회복’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이 제시하는 진정한 마을공동체 회복과 호혜적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을 가지고 다음 연구 질문을 던지고자 하였다.

- ① 공동체 가치: 서울에 사는 독거청년에게 이웃과 동네공동체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 ② 공동체 욕구: 독거청년은 공동체를 원하는가? 원한다면, 어떠한 공동체를 추구하는가?
- ③ 공동체 촉진/장애 요인: 독거청년은 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가?
- ④ 정책 수요/제언: 독거청년의 자발적·지속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가?

#### (2) 내용의 구성 및 흐름

본 연구는 초기에 던졌던 연구 질문을 필두로 이론적 개념·배경 조사, 조사의 진행, 응답 결과 분석, 정책 연구가 동시다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본 보고서의 내용 구성이 연구 흐름의 순서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제안하게 된 배경과 목적, 이를 바탕으로 던지는 연구 질문,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연구 내용과 방법들을 서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설문 조사와 FGI조사를 통해 수집된 1차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주화하여 도출한 2차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4장을 구성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활용했던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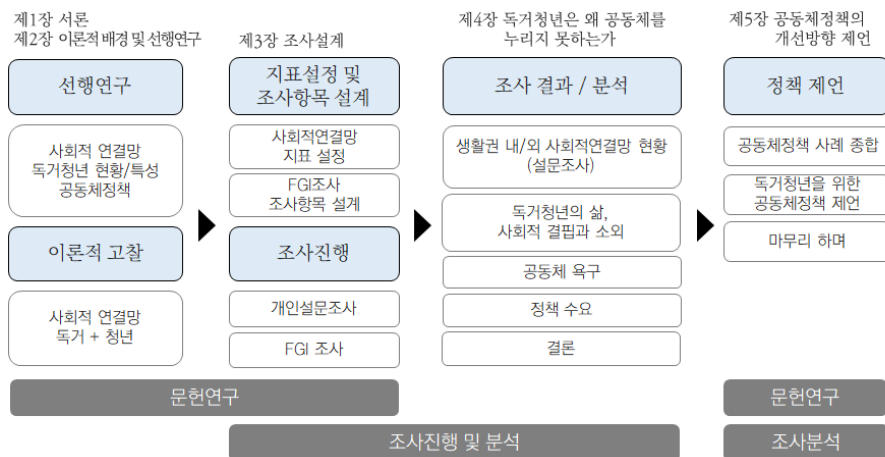
제2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관점, 개념 정의, 조사 항목, 지표 등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했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사회적 연결망’의 주요 개념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서술하는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자인 독거청년이 겪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거청년의 현황과 특성을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 현황의 범위 안에서 정책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정리함으

로써 현 공동체 정책의 패러다임과 정책적 의의,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탐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었으며, 이는 조사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의 토대가 되었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설계한 조사 항목과 지표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현황과 경로, 공동체 욕구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뷰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인설문조사와 그룹인터뷰조사를 병행하였다. 양적 데이터수집과 질적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각 조사 방법별로 조사 항목을 달리하였으며, 이러한 조사 항목과 지표를 어떠한 기준과 내용으로 정의하였는지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독거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 항목의 주제인 ‘서울살이’, ‘사회적 결핍과 소외’, ‘공동체 욕구와 유형’,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절을 구성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각 절은 해당 주제에 대한 그룹별 응답결과와 세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독거청년을 위한 공동체 정책의 개정·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발굴한 정책적 필요성을 근거하여 독거청년을 위한 공동체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착안한 실천과제와 핵심전략들을 차례대로 제시하였다. 독거청년의 현황 및 수요를 기반으로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목표와 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직접적 지원보다 공동체 형성이 촉진될 수 있는 다양한 간접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림 1-2] 연구의 흐름

## 2)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및 활용

연구의 내용은 [표 1-1]처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사의 목적에 따라 자료 수집의 방법을 달리하였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경우, 주로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론적 개념의 고찰, 조사 설계,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사회적 연결망 현황과 욕구의 경우, 공동체 정책의 필요성 발굴을 위하여 독거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설문조사와 그룹심층인터뷰조사를 진행하여 현황 및 욕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인설문조사를 통해 주로 현황, 참여 경로, 참여 의향 정도 등 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룹심층인터뷰(FGI)조사를 통하여 촉진 요인, 장애 요인, 욕구, 지역사회 소속감, 정주성 등 사회심리적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공동체 정책 수요 및 제언의 경우, 개인설문조사와 그룹심층인터뷰(FGI)를 통하여 현황과 수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문헌연구를 통해 적용 가능한 공동체 정책의 사례를 발굴하였다.

[표 1-1] 연구 내용별 자료 수집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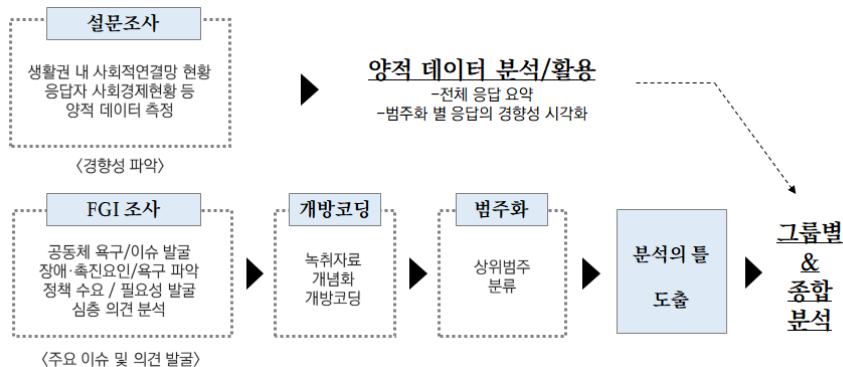
| 구분               | 수집 목적                                    | 수집 내용                                                               | 수집 방법              |
|------------------|------------------------------------------|---------------------------------------------------------------------|--------------------|
| 이론적 배경<br>및 선행연구 | 조사 설계 및 지표 설정을 위한<br>자료 수집 및 기초자료 활용     | 사회적 연결망 개념 및 효과                                                     | 문헌연구               |
|                  |                                          | 독거청년 현황 및 특성                                                        | 문헌연구,<br>통계자료 수집   |
|                  | 공동체 정책 현황 분석을 위한<br>자료 수집                | 사회적 연결망 형성 지원 관련<br>공동체 정책 및 사업 현황                                  | 문헌연구               |
| 사회적 연결망<br>현황/욕구 | 공동체 정책의 필요성 발굴을<br>위한 자료 수집 및 기초자료<br>활용 | 생활권 내외 사회적 연결망 현황, 참여 경로,<br>참여 의향 정도 등                             | 개인설문조사             |
|                  |                                          |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위한 촉진 요인 및<br>장애 요인, 공동체 욕구 및 유형, 정주 의향<br>· 지역사회 소속감 등 | 그룹심층인터뷰<br>(FGI)조사 |
| 공동체 정책<br>수요/제언  | 공동체 정책 제언을 위한 자료<br>수집 및 기초자료 활용         | 공동체 정책 및 지원사업 인자참여도 등                                               | 개인설문조사             |
|                  |                                          | 공동체 정책의 필요성, 정책수요, 지원 범위,<br>참여 의향 및 경로 등                           | 그룹심층인터뷰<br>(FGI)조사 |
|                  |                                          | 적용 가능한 공동체 정책의 사례                                                   | 문헌연구               |

## (2) 조사의 분석: 근거이론연구 및 반복적 비교분석법

본 연구에서는 독거청년의 사회적 연결망 현황과 욕구 파악을 위하여 그룹심층인터뷰(FGI)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근거이론연구와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택하였다.

근거이론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수집한 자료로부터 귀납적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방법이다.<sup>3)</sup> 근거이론연구를 택한 이유는 이 연구에서 가설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연구대상자들의 실질적 수요와 욕구를 기반으로 귀납적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진은 Glaser와 Strauss의 근거이론 연구 단계를 참고하여 조사 설계를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의 경우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질적 자료의 분석과정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sup>4)</sup>이기에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그룹심층인터뷰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개방코딩-범주화-범주 확인’의 과정을 거쳐 분석을 진행하였다. 개방코딩의 경우, 그룹심층인터뷰(FGI)조사 자료를 읽으며 중요내용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키워드로 혹은 요약하여 이를 분류하는 작업이며, 이후 코딩된 자료를 그룹화 하여 상위 범주로 분류하는 범주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이후 개방코딩 전 단계의 1차 자료와 비교하며 확인하는 범주 확인 절차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범주화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진의 토론과 사유의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림 1-3] 분석의 방법

3) 임도빈.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 『정부학연구』, 15(1), 2009, 155-187.

4) “질적 연구 자료 분석법-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중심으로.”

<http://oer.pusan.ac.kr/%EA%B5%90%EC%9C%A1%ED%95%99/7-%EC%97%B0%EA%B5%AC%EB%B0%A9%EB%B2%95-%EC%A7%88%EC%A0%81%EC%97%B0%EA%B5%AC1-pdf> (검색일: 2019년 11월 22일).



## 0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 및 정의

#### 1) 관련 선행연구의 흐름

##### (1)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

사회적 연결망에 대해 연구자들이 정의한 개념들은 다양하며, 아래 [표 2-1]처럼 크게 구조적 특성과 관계적 특성의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1]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 선행연구

| 구분              | 연구자                                 |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                                                                                      |
|-----------------|-------------------------------------|--------------------------------------------------------------------------------------------------|
| 구조적<br>특성<br>기반 | Wasserman, S. and Faust, K., (1994) | 상호 연결 작용 행위를 통해 개인의 연결망이 만들어지고, 동시에 개인의 연결망은 다시 그들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                                 |
|                 | 손동원 (2002)                          | ‘Social+network’ 의미가 결합된 용어으로써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망                                                  |
|                 | 김안나 (2003)                          | 특정한 유형의 관계를 통해 상호 결합되어 있는 다수의 사회적 단위(개인, 조직 등)                                                   |
| 관계적<br>특성<br>기반 | 김용학 (2004)                          | 사회적 연결망은 관계적 인간관에 입각한 인간의 행위와 사회 구조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
|                 | 윤영수, 채승병 (2005)                     |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진 관계망                                                    |
|                 | 이인숙 (2009)                          | 개인의 개별적 특성(attribute)보다는 관계(relationship)에 초점을 두어 사람들 간의 관계구조를 고려한 것으로, 그 자체가 개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됨 |
|                 | 박찬웅, 배영 (2016)                      | 아프거나, 돈을 빌릴 일, 우울해서 대화가 필요하거나, 화가 났거나, 외로울 때 배우자, 친척 친구, 공식적 조직, 기타 관계로부터 지지를 받는 관계              |

\* 선행연구 재정리

구조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개념적 정의는 사회적 연결망을 개인 간 관계망 그 자체, 연결되어 있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며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손동원(2002)은 사회적 연결망에 대하여 “‘Social+network’ 의미가 결합된 용어으로써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망”이라고 정의하였으며<sup>5)</sup>, 김안나(2014)는 “특정한 유형의 관계를 통해 상호 결합되어 있는 다수의 사회적 단위(개인, 조직 등)”로 정의하였다<sup>6)</sup>. 그러나 사회적 연결망은 연결 그 자체, 즉 구조적 형태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후자인 사회적 연결망의 ‘관계’에 집중하여 정의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는 개인 간 연결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는 개인 간 관계 또는 연결 그 자체를 넘어서 상호 연결 작용 행위를 통한 개인의 연결망의 생성과 동시에 개인의 연결망이 다시 그들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sup>7)</sup>을 의미한다. 윤영수, 채승병(2005)은 사회적 연결망을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진 관계망<sup>8)</sup>”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김용학(2004)<sup>9)</sup>이 역설하는 것과 동일하다. 즉, 연결망 자체에서 더 나아가 연결망을 통해 생성되고 발생하는 관계와 상호작용까지 포용하는 개념적 정의로 볼 수 있다. 이인숙(2009)<sup>10)</sup>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개인의 개별적 특성(attribute)보다는 관계(relationship)에 초점을 두어 사람들 간의 관계구조를 고려한 것’으로, 그 자체가 개인에게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된다고 하였다.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경우 상호작용의 개념적 정의에서 더 나아가, ‘신뢰’기반의 연결망으로 집중하여 정의한 연구자도 있다. 박찬웅, 배영(2016)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관계와 중요한 일을 상의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개인이 속한 연결망 특성이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사회적지지 연결망’을 언급하였다. 그는 사회적지지 연결망을 “아프거나, 돈을 빌릴 일, 우울해서 대화가 필요하거나, 화가 났거나, 외로울 때 배우자, 친척 친구, 공식적 조직, 기타 관계로부터 지지를 받는 관계”라고 하였다.<sup>11)</sup>

5) 손동원, 『사회네트워크분석』(출판사: 경문사, 2002).

6) 김안나, “가족과 사회연결망: 독일과 한국의 개인관계에 대한 비교연구.”『한국사회학』,37(4), 2014, 67-99.

7) Wasserman, S. and Faust, K., 『Social Networks Analysis: Method and Application. New York』(출판사: Cambridge, 1994). 정현정, 도시근로자의 주관적 빈곤감에 관한 연구: 사회 연결망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2012에서 재인용

8) 윤영수, 채승병, 『복잡계개론』(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 2005).

9) 김용학, 『사회연결망이론』(출판사: 박영사, 2004).

10) 이인숙, “한부모 여성의 멘토링 연결망 특성이 멘토링 기능 및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효과 연구.”『한국사회복지학』,61(4), 2009, 61-84.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관계에 집중하여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 있으며,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경우 어떠한 것을 주고 받는가에 따라 연결망을 규정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의 긍정성을 논의할 때에는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 그 자체보다 ‘신뢰’ 요소 기반의 사회적 연결망임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2) 사회적 연결망의 기능

사회적 연결망의 순기능은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어왔다. [표 2-2]와 같이 사회적 연결망이 신체적, 물질적, 정서적 요소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친다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표 2-2] 사회적 연결망의 순기능 관련 선행연구<sup>1)</sup>

| 연구자                                   | 사회적 연결망의 순기능           |                                                                                                                               |
|---------------------------------------|------------------------|-------------------------------------------------------------------------------------------------------------------------------|
|                                       | 기능                     | 내용                                                                                                                            |
| 허정원 (1998)                            | 디스트레스 해소               |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Haller, Max and Markus, Hadler (2006) | 주관적 행복 향상              | 총총하고 좋은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 직업에 열중하고 성공하는 것, 사회문화에 적응하고 참여하는 것, 결혼, 아이를 갖는 것, 자유롭게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 좋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주관적 행복을 향상시킨다.     |
| Alcock, Pete and Jo, Campling (2006)  | 생활만족 및 행복              | 행복의 추구는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이고, 다른 사람과의 연결만이 이를 달성할 수 있다. 파트너, 배우자, 부모, 자녀,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이 해당하며, 이들과 열린 좋은 관계가 행복과 생활만족의 주된 자원이다. |
| 이정영 (2007)                            | 보살핌의 느낌, 적절한 도움에 대한 믿음 | 사회 연결망의 긍정적 기능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한다.                 |
| 김형용 (2010)                            | 주관적 건강의 안녕             | 사회자본-특히 신뢰, 네트워크-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

\* 선행연구 재정리

허정원(1998)<sup>12)</sup>은 이혼한 편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적 연결망과 정신 건강,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는 사회적 연결망이 심리적 디스트레

11) 박찬용, 배영,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과 우울,” 『한국연구학』, 39(4), 2016, 61-77.

12) 허정원.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관계망 지원과 이혼 후 적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98.

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정영(2007)은 우리나라 저소득층 여성 한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연결망의 긍정적 영향을 증명하였는데, 사회적 연결망의 유형을 여섯 가지(가족, 친척, 친구, 이웃, 종교인, 전문가)로 나누어 유형별로 고립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사회 연결망의 긍정적 기능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며 한 개인이 인식하는 주변인들의 행위 및 정보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sup>13)</sup> 김형용(2010)의 경우, 지역사회 빈곤과 건강의 인과관계에서 사회자본 중 특히 '신뢰, 네트워크'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up>14)</sup>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회적 연결망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규명한 연구들이 있다. Haller, Max and Markus, Hadler(2006)의 경우, 촘촘하고 좋은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 직업에 열중하고 성공하는 것, 사회문화에 적응하고 참여하는 것, 결혼, 아이를 갖는 것, 자유롭고 건강하다고 느끼는 것, 좋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주관적 행복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sup>15)</sup> Alcock, Pete and Jo, Campling(2006)은 행복의 추구는 인간의 근본적인 목표이고, 다른 사람과의 연결만이 이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파트너, 배우자, 부모, 자녀,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들이 해당하며, 이들과 열린 좋은 관계가 행복과 생활만족의 주된 자원이라고 하였다.<sup>16)</sup>

몇몇 연구들은 사회적 연결망의 순기능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를 해체하여 분석한 후 각 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핵심 요소가 '신뢰'와 '정서적 지지'임을 [표 2-3]과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13) 이정영,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관계망이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소외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7.

14) 김형용,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찰-사회자본 맥락효과에 대한 해석."『한국사회학』, 44(2), 2010, 59-92.

15) Haller, Max and Markus, Hadler, "How social 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Social Indicators Research』, 75, 2006, 169-216. 정현정, 도시근로자의 주관적 빈곤감에 관한 연구: 사회 연결망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2012에서 재인용

16) Alcock, Pete and Jo, Campling, "Understanding poverty". Basingstoke, (출판지: Hampshire, England: Macmillan, 2006). 정현정, 도시근로자의 주관적 빈곤감에 관한 연구: 사회 연결망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2012에서 재인용

[표 2-3] 사회적 연결망의 순기능 관련 선행연구2

| 연구자                                      | 사회적 연결망의 순기능                     |                                                                                                                                                         |
|------------------------------------------|----------------------------------|---------------------------------------------------------------------------------------------------------------------------------------------------------|
|                                          | 기능                               | 내용                                                                                                                                                      |
| Crooker, Karen J and Janet P.Near (1998) | 생활만족 및 행복                        |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도움을 주는 것, 신뢰는 생활만족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3요소이다.                                                                                                 |
| Rothstein, Bo. (2010)                    | 행복                               | 사회적 신뢰는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간의 믿음이 사회적 신뢰가 높으면 행복의 지수도 높아진다.                                                                                              |
| 서유리 (2011)                               | 정신적 빈곤 해소                        | 사회연결망의 크기와 관련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다.                                                                                   |
|                                          | 이해받는 느낌<br>돌봄의 느낌,<br>타인과 연결된 느낌 | 사회연결망의 강도와 관련하여 친밀하다는 것은 가까움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가까움이란 '강력하고 빈번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상호의존적 방식으로 관계하는 것'이며, 이해받고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과 다른 사람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포함한다. |
| 정현정 (2012)                               | 주관적 빈곤감의 감소                      |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 접촉 빈도(연락, 만남), 도움 정도(정서, 물질, 신체)에 따라 주관적 빈곤감이 달라진다.                                                                                        |
| 박찬웅, 배영(2016)                            | 우울 수준의 악화<br>정신 건강에 도움           | 사회적 지지와 상의 연결망 규모가 클수록 우울 수준이 낮아진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하는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 된다.                                                             |

\* 선행연구 재정리

서유리(2011)<sup>17)</sup>는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과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의 친밀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는 연구를 하였는데, 친밀한 관계의 크기와 강도를 각각 구분하여 그 영향을 밝혔다. 정현정(2012)<sup>18)</sup>의 경우, 사회 연결망의 분석틀을 제시하여 각 요소가 매개변수로서 주관적 빈곤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그는 사회적 연결망을 크기, 강도1(접촉 빈도), 강도2(도움 정도), 범위로 분석하여 각 요소가 주관적 빈곤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이는 정서적 도움 정도나 물질적 도움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주관적 빈곤감이 낮았으나, 사회 연결망 범위에서는 타인과의 연령수준이 이질적 결합정도일 때 주관적 빈곤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 서유리, 부모애착과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 친구관계에서의 친밀감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11.

18) 정현정, 도시근로자의 주관적 빈곤감에 관한 연구: 사회 연결망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2012.

고 하였다. 박찬웅, 배영(2016)은 사회적 지지를 주는 연결망에 주목하였는데, 규모와 밀도를 고려하여 순기능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하는 관계에서 즉 사회적 지지가 있는 연결망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하였으며 또한 배우자, 친척, 지인 등 다양한 관계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음을 밝혔다.

Crooker, Karen J and Janet P.Near<sup>19)</sup>의 경우, 생활만족 및 행복과 사회적 연결망의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는 생활만족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3요소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도움을 주는 것, 신뢰임을 강조하였다. Rothstein, Bo.<sup>20)</sup>의 경우, 사회적 신뢰는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서로 간의 믿음이 바탕이 되는 사회적 신뢰가 높으면 행복의 지수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해당 논문은 신뢰를 기반한 사회적 연결망의 순기능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민아(2013)는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 연결망의 효과가 대인신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사회적 연결망’에 대해 연구한 많은 연구들이 ‘신뢰’와 ‘사회적 연결망’을 구분하지 않은 관점에서부터 오류가 발생함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으로서의 ‘사회적 연결망’과 인지적 차원으로서의 ‘신뢰’를 구분하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사회적 연결망이 신뢰나 호혜성 등을 포함할 때 비로소 긍정적 효과를 갖는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21)</sup>

### (3) 사회적 연결망 분석의 특성

사회적 연결망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며, [표 2-4]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량적 지표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조적으로 맺어진 연결망 그 자체보다는 ‘밀도’, ‘친숙한’, ‘사회적지지’, ‘상의’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신뢰’ 기반의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고자 하려는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19) Crooker, Karen J and Janet P.Near, "Happiness and Satisfaction: Measures of affect and cognition?"『Social Indicator Research』, 44, 1998, 195-224. 정현정, 도시근로자의 주관적 빈곤감에 관한 연구: 사회 연결망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2012에서 재인용

20) Rothstein, Bo., "Happiness and the Welfare State"『Social Research』, 77(2), 2010, 441-168. 정현정, 도시근로자의 주관적 빈곤감에 관한 연구: 사회 연결망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2012에서 재인용

21) 이민아,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한국사회학』, 47(4), 2013, 171-200.

[표 2-4] 사회적 연결망 분석의 특성 선행연구

| 연구자                   | 사회적 연결망 분석 요소     |                                                                                  |
|-----------------------|-------------------|----------------------------------------------------------------------------------|
|                       | 요소                | 내용                                                                               |
| 김성희,<br>장로사<br>(2010) | 밀도                | 연결망 내 전체 구성원이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표현.<br>(가능한 총 관계 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의 수의 비율) |
|                       | 중심성 (중앙성, 중심도)    | 한 행위자가 전체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                                                  |
|                       | 중심화 (집중도)         | 전체 연결망의 형태가 어느 정도 중앙에 집중되었는지 표현                                                  |
| 정현정<br>(2012)         | 크기                | 가족, 친척, 친구, 기타일반의 각 유형별 친숙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연결망 수                                      |
|                       | 강도1 (접촉 빈도)       | 만남횟수, 연락횟수                                                                       |
|                       | 강도2 (도움 정도)       | 정서적 /물질(금전)적/신체적                                                                 |
|                       | 범위                | [수평적 결합정도/수직적 결합정도]를 [연령/교육수준/소득수준]으로 나눔                                         |
| 최경호,<br>유진아<br>(2015) | 연결성 수 (degree)    | 연결망에서 한 노드가 맺고 있는 결점의 수                                                          |
|                       | 중심성 (centrality)  | 각 노드가 중심에 근접한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 각 노드가 네트워크 구조 내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나타냄.                |
|                       | 밀도 (집중성, density) | 네트워크 전체가 한 가지의 중심으로 집중된 정도                                                       |

\* 선행연구 재정리

김성희, 장로사(2010)는 연결망의 측정 지표에 대한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는데, 대부분의 사회적 연결망 분석은 밀도, 중심성, 중심화로 나뉘어 연구된다고 언급하였다.<sup>22)</sup> 김성희, 장로사(2010)에 따르면 밀도는 연결망 내 전체 구성원이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것으로, 가능한 총 관계 수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의 수의 비율로 정량적으로 계산된다. 중심성은 한 행위자가 전체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척도이다. 이는 중앙성, 중심도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중심화는 집중도와 같은 말로, 전체연결망의 형태가 어느 정도로 중앙에 집중되었는지 표현하는 척도라고 말한다. 최경호, 유진아(2015)도 비슷한 척도로 사회적 연결망을 분석하였다.

정현정(2012)의 경우 한 개인의 친숙한 연결망에 대해 정밀하게 연구했다고 볼 수 있다. 각 연결망의 접촉 빈도, 도움 정도, 범위까지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의 경우에는 사회적

22) 김성희, 장로사, “사회 연결망 분석 연구동향 및 정보학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정보관리학회지』, 27(4), 2010, 71-87.

연결망 척도를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 크기의 경우 가족, 친척, 친구, 기타 일반 4가지 유형마다 친숙하다고 생각되는 해당 연결망의 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강도 중 접촉 빈도는 만남 횟수, 연락 횟수를 통해 표현하였으며, 도움 정도는 정서적, 물질(금전)적, 신체적으로 나누어 표현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위는 연결망을 수평적 결합정도와 수직적 결합정도를 먼저 나눈 후, 각각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보았다. 해당 연구는 응답자에게 친숙한 연결망을 묻고 그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다른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사회적 연결망’의 정의

선행연구를 진행하며, 기존 연구에서 다른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구조적 관점에서의 특성보다는 ‘상호 연결 작용 행위를 통해 형성된 다수의 사회적 개인 및 조직, 연결망(관계) 구조’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연결망을 측정하기 위하여 밀도, 중심성, 집중도 등 정량적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정량적 척도를 중심으로 측정되는 구조적 사회적 연결망은 우리의 연구 의도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연결망이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바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어떤 요소들을 근거로 할지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을 ‘신뢰 기반의 상호 연결 작용 행위를 통해 형성된 다수의 사회적 개인 및 조직, 연결망(관계) 구조’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상적인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 범위 및 분석의 단위를 생활권으로 설정하였다. 생활권을 지역사회 분석 단위로 초점을 두는 이유는 첫째, 정책과 서비스 결정이 이루어지며 이용 접근이 보장되는 단위이고, 둘째, 주민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계이며, 셋째, 주민들의 욕구 및 사회문제가 수렴되며, 넷째, 다양한 자원들이 공유되며 집약되는 공간(Chaskin, 1997)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연결망이 외로움 및 지역 정착의 결정요인이라는 하나의 실증적 뒷받침을 제시하기보다, 독거청년들에게 생활권 단위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연결망의 형성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떠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상관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



## 2. 독거청년의 현황 및 세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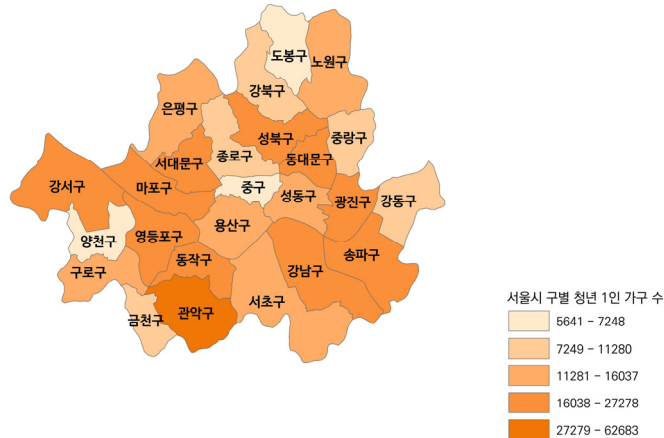
### 1) 독거청년(청년 1인 가구)이 모이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 총 조사(2018)에 따르면, 전국 20~34세의 총인구 수는 10,344,721명이며, 이 중 22%의 청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서울에서 살아가며 서울시 1인 가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1인 가구 중, 37%인 460,237가구는 청년 1인가구로 즉 독거청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울시 내 독거청년의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표 2-5]를 보면 2015년과 비교하여 서울시 청년 1인가구의 수가 3년 사이에 10% 이상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서울시 내 독거청년 수 추이

| 구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서울시 내 독거청년 수(명)  | 416,145 | 423,037 | 435,816 | 460,237 |
| 전국 독거청년 대비 비율(%) | 29.3%   | 29.1%   | 29.4%   | 29.8%   |
| 증가율(%)           | -       | 1.6%    | 3%      | 5.6%    |

\*수치: 통계청, 연령별 1인 가구 수 자료 활용



[그림 2-1] 서울시 자치구별 청년 1인 가구 수

\*수치: 통계청 2018년 연령별 1인 가구 조사 자료 활용

[그림 2-1]을 보면 서울시 내 25개의 자치구 중 청년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단연 관악구이다. 관악구는 2018년 기준으로 62,683가구의 청년 1인 가구가 거주 중이며, 이는 서울시 청년 1인 가구 수 중 무려 14%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 2) 독거청년의 주요 빈곤: 주거와 사회활동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는 청년 이슈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서울의 청년 1인 가구는 주거비 부담과 주거의 질, 두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낮은 연령의 청년일수록 상대적으로 실제 주거비 지출이 더 높고, 주거면적 소비도 더 악화 된다.<sup>23)</sup> 주거의 질 측면에서 유독 서울의 1인 청년 가구 주거 빈곤율은 2000년 이후 높아지고 있는 실정<sup>24)</sup>이며,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1995년 58.4%, 2000년 31.7%, 2005년 34.1%, 2010년 36.6%로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25)</sup> 앞서 참조한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의 비율이 늘어난 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 가구 중 삼 분의 일이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동네에 거주하는 평균 기간이 일반가구가 8년인 반면, 청년 가구는 겨우 1년 6개월에 그친다.

일자리 및 주거 문제 외에도 ‘사회활동’과 관련한 욕구와 문제가 존재한다. 여기서 사회 활동은 친목부터 자원봉사, 취미, 사회 및 정책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20대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86%의 청년들이 사회활동 참여가 필요하며, 77.6%가 지자체의 청년사회활동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청년들은 청년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와 ‘공간(시설)’의 순서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공간 유형 중 개방형 공간의 필요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6)</sup>

## 3) 독거청년의 개념 및 특성

독거청년은 1인 가구와 청년 개념의 결합으로, 각각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와 ‘청년’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독거청년’의 특성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청년’을 20~34세의 범위로 정의하여 이에 관련한 개념과 세대 특성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3) 이수옥,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 『국토정책 Brief』, 560, 2016, 1-8.

24) “[청년주거 빈곤 서울 1인 청년가구 3명 중 1명 ‘지옥고’에 살고 있다(이환주 기자, 2019.01.10)”,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C%B2%AD%EB%85%84%EC%A3%BC%EA%B1%B0-%EB%B9%88%EA%B3%A4-%EC%84%9C%EC%9A%B8-1%EC%9D%B8-%EC%B2%AD%EB%85%84%EA%B0%80%EA%B5%AC-3%EB%AA%85-%EC%A4%91-1%EB%AA%85-%E2%80%98%EC%A7%80%EC%98%A5%EA%B3%A0%E2%80%99%EC%97%90-%EC%82%B4%EA%B3%A0%EC%9E%88%EB%8B%A4/ar-BBS3aX1#page=2> (검색일: 2019년 11월 13일)

25) 최은영, 이봉조,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실태”,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2014, 56-61.

26) 김정숙,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블루노트 이슈&정책』, 96, 2018, 1-8.

## (1) '1인 가구'의 개념 및 특징

가구는 1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로서 정부, 기업과 함께 경제의 3대 주체로서 주로 소비주체로서의 역할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sup>27)</sup>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를 의미 한다.<sup>28)</sup> 차경옥(2008)<sup>29)</sup>의 경우, 1인 가구란 성인 1인이 단독으로 가구를 구성하는 것이라 정의하기도 하였다.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가치관의 추구 등 자발적인 선택으로 1인 가구가 되기도 하며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회피로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되기도 한다. 고용구조의 불안정성, 경제적 빈곤감 등의 비자발적 요인으로 인해 1인 가구를 유지하는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이는 곧 사회적 문제가 된다(정순희, 임은정, 2014). 혼자 사는 이유로는 20대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기 위해, 30대는 직장 또는 혼자가 편해서 및 결혼이 늦어져서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1인 가구는 새로운 통신매체 발달로 인해 개인화된 생활방식과 이전과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는 점점 전통적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sup>31)</sup> 또한 소비 측면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음식숙박비 지출형'과 '교통비지출 중심형' 소비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다.<sup>32)</sup> 1인 가구의 특성을 종합하면, 자기중심적, 진보적, 현실주의적, 유행추구, 개방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정순희, 임은정, 2014), 외로움 극복을 위해 다인 가구 소비자보다 브랜드 애착이 강했으며 이는 비자발적인 1인 가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밖에도 비자발적인 1인 가구는 충동적이고, TV시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자발적 1인 가구는 편의성 추구 성향과 다양성 추구, 혁신적인 신제품을 수용하는 성향이 컸고,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up>33)</sup>

27) 정순희, 임은정.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Financial Planning Review』, 7(4), 2014, 1-19.

28) KOSIS(통계청, 2017신혼부부통계), (검색일: 2019년 11월 6일)

29) 차경옥. "남성 일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2008, 253-269.

30) 김혜영 선보영 진미정 사공은희. "비혼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0, 2007. 215-218.

31) 김재형. 서울시 1인 가구의 거주지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2008, pp.20-21.

32) 성영애,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소비자학연구』, 24(3), 2013, 157-181.

33) Gilliland, D. I. and N. Donthu, The Single Consumer,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42(6), 2002, 77-84.  
정순희, 임은정,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Financial Planning Review』, 7(4), 2014, 1-19에서 재인용

## (2) ‘청년’의 개념 및 특징

정부 부처·기관별로 청년 연령층의 규정은 다양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sup>34)</sup>에 따르면, 청년층은 15~29세를 의미한다. 반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청년은 15~34세로 규정된다. 홍은주, 정혜선<sup>35)</sup>은 문화가 갖는 특성에 따라 청년기의 길이가 결정되는데,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청년기의 위기가 심각해졌으며 그에 따라 청년기는 연장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세대담론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지금의 청년세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제까지의 청년층은 빈곤과는 가장 거리가 먼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 취업난과 과도한 주거비용 및 소비스타일 등으로 인해 청년층은 경제적 혼란과 불확실한 미래의 상징으로서 우리 사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sup>36)</sup> 청년 1인 가구가 경험하는 삶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를 진행한 정순희, 임은정(2014)의 연구를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경험이 기존의 다인 가구중심의 삶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회의 청년들은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며, 스스로를 사회의 비주류로 규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정순희, 임은정(2014)은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사회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약화되며 무력감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정체를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년은 높은 연봉을 받는 것, 또는 직장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보다 일에서 느끼는 기쁨, 즐거움, 자기발전,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에 더욱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이 사회에 드러나고 있다.<sup>37)</sup>

34) KOSIS(통계청, 2019.9경제활동인구조사), (검색일: 2019년 11월 6일)

35) 홍은주, 정혜선, “후기 청년기 여성의 미술치료 폐렴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1), 2014, 119-135.

36) 김수정,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2010, 49-72. 정순희, 임은정,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7(4), 2014, 1-19에서 재인용

37) Smola, K. W., and C. D. Sutton. “Generational differences: Revisiting generational work values for the new millennium.”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 2002, 363~382. 이혜정, 유규창,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노동정책연구』, 13(4), 2013, 1-31에서 재인용

### (3)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밀레니엄 세대(Y세대)는 출생연도가 1981~1996년인 사람들이며 Z세대의 경우 1997년 이후 출생자를 일컫는다.<sup>38)</sup> 먼저 그들의 성장배경이다.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 월드컵,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역사를 경험했으며 Z세대의 경우 금융위기, 정보기술(IT) 붐을 경험했다. 매일경제<sup>39)</sup>에 따르면 각 세대별 성장배경으로 인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밀레니엄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전후의 혼란과 가난, 그리고 고도 경제성장을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의 가치관이 부분적으로 투영됐을 것이라고 한다. 반면 Z세대는 X세대의 자녀 세대로 개인주의, 다양성 추구, 일과 삶의 균형 중시 등 부모 세대의 자유로운 가치관을 물려받았다. 두 세대는 집단보다 개인, 소유보다 공유, 상품보다 경험, SNS를 통한 비대면 수평적 인간관계 등 지향점은 비슷하지만 그 농도는 Z세대가 훨씬 진하다.

일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자면 밀레니엄 세대의 경우, ‘의미 있는 일’에 대하여 조직에 대한 헌신이나 성공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즐거움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sup>40)</sup> Z세대의 경우, 이와 같은 의식이 더욱더 심화된 양상일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엄 및 Z세대의 가치관 특징은 집과 자동차 소유를 고집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선호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행복과 자기만족, 나 자신에 주안점을 두는 성향이 나타나며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여행 경험을 쌓으며 여가와 레저를 일만큼 중시하기도 한다.<sup>41)</sup>

소비패턴의 경우, 밀레니엄 세대는 개인·개방·감성주의가 이들의 특징으로 모방심리, 호기심이 많고 튀는 패션에 쇼핑을 즐기고 소비력이 왕성하다. 유행과 소비를 선도하는 밀레니엄 세대는 자기중심적이며 소비와 유행의 주역이기도 하다.<sup>42)</sup> Z세대의 경우, 유년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세대답게 신기술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활동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구매에 신중한 경향이 있다. 밀레니엄 세대가 이상주의적인 반면 Z세대는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을 보인다(최인영, 2015).

38) 산업화세대→베이비붐→X세대→밀레니엄세대→Z세대·세대별로 성장 배경과 소비 패턴·가치관이 모두 다르죠-(고재연 기자, 2019.10.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101267181> (검색일:2019년 11월 22일)

39) Z세대가 온다 밀레니엄 세대와 닮은 듯 다른 신인류 스마트폰 쥐고 자란 '포노 사피엔스'(노승욱, 나건웅 기자, 2019.06.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17639/> (검색일:2019년 11월 22일)

40) 이해정, 유규창,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 『노동정책연구』, 13(4), 2013, 1-31.

41) '밀레니엄·Z세대' 부상·기업, 새 소비자층 이해해야 생존(조민정 기자, 2019.05.17)",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70430000008> (검색일:2019년 11월 22일)

42) 최인영, "Z세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문의 교육목표에 관한 연구", 『한국다자언문화학회지』, 21(3), 2015, 675-683.

### 3. 공동체 정책 현황 및 주요 내용

#### 1) 공동체 정책의 패러다임: 서울에서 물꼬 트는 마을공동체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2년 서울에는 시에 마을담당관실이 설치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어 지난 2015년 마을공동체 사업 1기가 마무리되고 지난 2016년부터 사업 2기가 진행되고 있다. 1기는 서울광역시 전체적으로 씨앗기를 형성하는 정책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었다면, 2기는 점차 생활권 단위의 자치공동체를 육성하는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공동체 사업과 더불어 서울시 내 각 자치구별로도 공동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청년을 위해 마련된 청년허브에서 비롯되어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청년활동 등의 사업도 존재한다.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정책을 사회적 연결망을 기반으로 하여 ‘기능적 및 정서적 도움이 오갈 수 있는 모임을 지원하도록 돕는 정책’으로 내용적 범위를 정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 해당된다.

#### 2) 공동체 정책의 주요 내용 및 분석

##### (1)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공동체 정책의 각 사업들을 [표2-6]과 같은 분석의 틀을 세워 바라보고자 하였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자연적으로 자조모임이 만들어지는 경우와 제3 매개의 도움 및 개입을 통해 모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공동체 정책은 공공이라는 매개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공지원의 종류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류된 공동체 정책들은 서울시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청년허브 등을 통해 실시되는 공동체 정책들이며, 정책 주체별이 아닌 공동체 지원방식에 따라 분류하였다. 지원에 의한 공동체 형성 방식을 바탕으로 개인들이 모일 수 있는 방식을 모임, 활동, 공간 등 총 세 가지로 분류했다. 활동 지원에 속한 정책들은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모임을 지원한다는 데에 있어서 모임의 목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성 자체를 지원하는 모임 형성 지원의 정책과 구별점을 갖는다.

[표 2-6] 공동체 정책 분석의 틀

| 구분            | 하위구분      | 내용                                                           |
|---------------|-----------|--------------------------------------------------------------|
| 지원 유형         | 모임 형성 지원  |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도록 모임의 형성 자체를 목적으로 지원                            |
|               | 활동 지원     |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모임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활동을 통해서 연결망이 형성되도록 활동 자체를 지원 |
|               | 장소 지원     | 공간을 통해 연결망이 촉진되도록 지원                                         |
| 단위사업별<br>주요내용 | 지원 주체     | 사업을 실행되도록 지원하는 주체                                            |
|               | 지원사업명     | 해당 단위사업명                                                     |
|               | 지원대상 및 기간 | 지원 대상 및 인원, 사업 기간                                            |
|               | 지원방식 및 규모 | 지원 범위 및 금액, 최대 지원 규모 등                                       |
|               | 지원 내용     |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                                           |

\* 참고: 안현찬, 구아영.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17)  
pp.48-66 참고하여 재정리

이와 같이 [표 2-6]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체 지원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들을 모임 형성 지원, 활동 지원, 공간 지원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이는 크게 마을공동체사업과 청년층 사업으로 나뉜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시와 각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마을미디어, 공간조성지원사업, 마을기업 정책 등이 포함되고 청년층 사업의 경우 청년들의 진로 및 청년 모임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주로 해당된다.

[표 2-7] 지원유형별 공동체 정책 현황

| 지원 구분    | 사업명                                      |
|----------|------------------------------------------|
| 모임 형성 지원 | 마을미디어(복합형)                               |
|          | 찾동 주민참여지원사업                              |
| 활동 지원    | 마을미디어 (매체형)                              |
|          | 찾동 마을계획사업                                |
|          | 자치구 마을 아카데미                              |
|          | 우리동네 이웃사촌 (나눔이웃), 우리동네 돌봄단, 이웃살피미, 이웃자킴이 |
|          | 청년창업, 청년활동                               |
|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
| 공간 지원    | 마을미디어 (거점형)                              |
|          | 마을기업                                     |
|          | 우리마을(공간)지원사업                             |
|          | 찾동 마을예술창작소                               |
|          | 찾동 마을활력소 공간 지원사업                         |
|          | 청년공간 이음, 비즈액티브 신림                        |
|          | 청년교류공간 (마포구)                             |
|          |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

## (2) 모임 형성 지원

마을미디어(복합형) 사업은 주민 간의 소통을 돕고 지역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을 방송 교육 및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서 ‘복합형’의 경우 대상을 ‘신규 또는 2년 이하의 주민 모임(3인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마을 미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모임 자체를 만들기 위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모임 형성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찾동 주민참여지원사업’도 역시 일상의 소모임을 해결하는 주민들을 모으려 시도한다는 맥락에서 모임 형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표 2-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임 형성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모두 ‘비영리 단체 및 3인 이상의 주민 모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때문에 연결망이 부재한 청년들은 애초에 연결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조차 쉽지 않다.

[표 2-8] 서울시 모임 형성지원 공동체 정책

| 지원 주체           | 지원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기간 | 지원 방식 및 규모                  | 지원 내용                            |
|-----------------|--------------|-----------------------------|------|-----------------------------|----------------------------------|
|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 마을미디어 (복합형)  | 마을미디어 2년 이하, 3인 이상 모임       | 약 1년 | 600-800만 원                  | 마을공동체 지역 소통 지원<br>주민 모임 교육·활동 지원 |
| 관할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찾동_주민참여 지원사업 | 행정동 내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및 비영리 단체 | 약 1년 | 80만 원 내외<br>(동별 모임 3~4개 선정) | 일상 욕구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동 내 주민 소모임 지원   |



### (3) 활동 지원

활동 지원의 경우 '마을미디어(매체형)'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등의 사업은 모임 형성 지원 분류와 같이, 주민 모임 자체를 지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독거청년이 모임 형성 지원 관련 정책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활동 지원 관련 정책에서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찾듯 마을계획사업'이나 '자치구 마을아카데미'의 경우에는 개인의 참여가 가능하나, 참여자의 적극성이 요구된다는 것과 지역 의제 발굴 중심의 프로그램 때문에 지역예착도가 희미한 청년들이 참여할 만큼의 매력을 느끼기 힘들다. 마을 계획 사업의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지역의 이슈를 발굴해야하기에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 노력하는 적극적인 청년이 아닌 이상 참여의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마을 아카데미의 경우, 청년에게 생활권 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마을 공동체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끝날 수 있어 사회적 연결망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밖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웃만들기 지원 사업 역시 같은 행정동 내 3명 이상의 참가자를 확보해야 하므로, 독거청년은 참여할 수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참, 청년활 역시 3인 이상의 청년 모임 혹은 청년단체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년참의 경우 청년 모임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개인적인 관계망을 활용해 공동체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정책이 타겟팅하는 지원대상이 생활권 기반의 모임으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업을 통해 동네 이웃과 지역사회를 누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활의 경우 청년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직접적으로 공동체, 커뮤니티, 지역사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 청년이 생활권 내에서 공동체를 누리기는 힘든 지원정책이다.

[표 2-9] 서울시 활동 지원 공동체 정책

| 지원 주체               | 지원사업명                            | 지원 대상 및 기간                                 | 지원 기간 | 지원 방식 및 규모                                                 | 지원 내용                                      |
|---------------------|----------------------------------|--------------------------------------------|-------|------------------------------------------------------------|--------------------------------------------|
| 마을공동체<br>지원센터       | 마을기업                             | 5인 이상 지역주민 출자자 참여 법인<br>(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 최대 3년 | 1차년도: 5,000만 원 내<br>2차년도: 3,000만 원 내<br>예비마을기업: 1,000만 원 내 | 공동체 이익 실현하는 마을기업의 사업비 지원                   |
|                     | 마을미디어<br>(매체형)                   | 마을미디어 2년 이상, 3인 이상 모임                      | 약 1년  | 1,000~1,400만 원<br>공간장비 대여 등 활동비                            | 정기적인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
|                     | 마을미디어<br>(아이템형)                  | 마을미디어 활동주인 3인 이상 모임                        | 약 1년  | 200~300만 원<br>운영비 활동비 등 지원                                 | 특정 콘텐츠 일회성 제작<br>단기 프로젝트성 미디어 활동           |
| 관할 자치구<br>및 동 주민센터  | 자치구<br>마을 이커뮤니티                  | 마을공동체 관심 주민                                |       | 참가비 대부분 무료                                                 | 관할 구청, 마을센터에서 기본/심화 교육 등 실시                |
|                     | 관할 자치구<br>및 동 주민센터               | 마을계획단 활동 관심 주민                             | 최대 2년 | 동별 1,840만 원<br>(※16년 신규 실행동 기준/ 전문축진자<br>지원비용 포함)          | 마을 의제 발굴, 공적 의사결정 참여, 민관 협력                |
|                     | 찾동_<br>마을계획사업                    | 마을계획단 활동 관심 주민                             | 최대 2년 | 동별 1,840만 원<br>(※16년 신규 실행동 기준/ 전문축진자<br>지원비용 포함)          | 마을 의제 발굴 지원, 주민 공적 의사결정<br>참여, 민관 협력 지원    |
|                     | 이웃만들기<br>지원사업                    | 해당 동 거주 근무 주민 3인 이상 모임<br>또는 단체 (신규)       | 약 1년  | 100~200만 원 내                                               |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br>지역 사회 소통 증진 지원             |
| 찾동_<br>주민참여<br>지원사업 | 행정동 내 3인<br>이상 주민 모임 및<br>비영리 단체 | 동별 3~4개 선정<br>모임당 80만 원 내외                 | 약 1년  | 일상 욕구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동 내 주<br>민 소모임 지원                         | 지역 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br>주민 모임 활성화, 지역외계 발굴 및 해결 |
| 도시재생<br>지원센터        | 도시재생<br>주민공모사업                   |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br>사업 기간 내              |       | 최대 300만 원 (자부담률 10% 이상(※<br>보조사업비 100만 원 초과 시))            | 주민 모임 활성화, 지역외계 발굴 및 해결<br>지원              |
|                     | 청년하브                             | 청년창업                                       |       | 3인 이상 청년 모임<br>약 6개월                                       | 모임비 및 진행비 지원<br>커뮤니티 당 100만 원              |

#### (4) 공간 지원

공간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비영리 단체 혹은 주민 모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공익을 위한 단체에 공간을 지원해주거나, 특정 자치구에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간 지원 사업 대다수가 진행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청년공간 이음’, ‘비즈액티브 신림’, ‘무중력지대’ 등의 공간은 청년 간의 교류를 지향하며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공간 이음의 경우 경제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들이 편하게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비즈액티브 신림은 청년 고용문제와 관련해 주로 일자리 카페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마포구에 위치한 청년 교류 공간과 무중력 지대(청년활력공간)는 공간의 특정 목적이 뚜렷한 앞선 두 공간과는 달리, 온전히 청년 간의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들은 해당 공간을 향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청년 교류 공간의 경우 전국의 모든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으며 무중력지대에서는 청년이 해보고 싶던 일들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다. 해당 지점은 주거, 고용에 집중된 청년 관련 정책의 흐름 중 청년 간의 관계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상자가 오로지 청년이라는 점과 교류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공간 지원 사업은 청년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음과 비즈액티브는 청년과 관련해 기존 제기되는 고용, 경제적 문제와 연결성이 짙은 공간이며, 청년 교류공간과 무중력지대 역시 특정하게 청년에게 지역사회 혹은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돕는 공간은 아니다.

[표 2-10] 서울시 공간 자원 공동체 정책

| 지원 주체              | 지원사업명               | 지원 대상 및 기간                                    | 지원 기간  | 지원 방식 및 규모                                                  | 지원 내용                                              |
|--------------------|---------------------|-----------------------------------------------|--------|-------------------------------------------------------------|----------------------------------------------------|
| 마을공동체<br>지원센터      | 마을미디어<br>(가점형)      | 마을미디어 지속 5년 이상 단체(인력, 시설, 장비 보유)              | 약 6개월  | 컨설팅 지원 38,000천 원<br>시설·장비 지원 41,000천 원<br>활동비 등 사업운영비 지원    | 권역 마을미디어 지속적 지원<br>공동콘텐츠·캠페인 진행<br>기술 지원 및 홍보 사업 등 |
|                    | 마을미디어<br>(아이템형)     | 마을미디어 활동 주민 3인 이상 모임                          | 약 1년   | 2,000-3,000천 원<br>운영비 활동비 등 지원                              | 특정 콘텐츠 일회성 제작<br>단기 프로젝트 마을미디어                     |
|                    | 우리마을(공간)<br>지원사업    | 해당 구 거주 및 근무 5인 이상 주민 모임단<br>체 (자치구별 상이)      | 약 6개월  | 10,000천 원 이내                                                | 주민관계망·마을공동체 확장<br>마을사랑방 등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br>조성 지원     |
| 관할 자치구<br>및 동 주민센터 | 찾동_<br>마을예술장작소      | 주민 모임(3인 이상) 또는 비영리 법인 및<br>비영리민간단체<br>공간별 상이 |        | 신규: 10,000천 원 내<br>연장(2년): 20,000천 원 내<br>5년 내: 10,000천 원 내 | 참여 문화예술 공간 조성<br>생활공예 및 교육, 제작공방, 사랑방<br>자율 조성운영 등 |
|                    | 찾동_마을활력소<br>공간 지원사업 | 마을계획 실행한 행정동 중 지역 주민,<br>공무원 등이 민관참여단 구성      | 7~13개월 | 동별 약 2억 원                                                   | 동 주민센터 일부 공간 공동체 공간화<br>주민 자율운영·관리 지원              |
|                    | 청년활력공간<br>(무중력시대)   | 청년 누구나                                        |        | 평소 무료<br>전체 대관 시간당 5만 원.                                    | 청년 활동 지원 및 청년의 자발적인<br>음식임 보장<br>청년정책 목적 달성 위함     |
| 기타                 | 청년공간 이음             | 청년 누구나                                        |        | 세미나 공간 유료                                                   | 카페, 공유부엌, 세미나 공간                                   |
|                    | 비즈에티브 신림            | 만 15~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        | 일부 공간 유료                                                    | 예비창업자, 청년을 위한 공간                                   |

#### 4) 소결: 독거청년이 참여할 경로가 부족하다

서울시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공동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독거청년’들은 현행되는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참여구조를 갖추고 있다. 서울에 연고가 없는 독거청년들은 직장과 학교 등에 따라 거주지를 결정하고 이동하는 편이기에 해당 거주 지역에 이웃 등의 사회적 연결망이 풍족하지 않다. 공동체 정책 중 모임 형성 지원 사업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지원해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일 수 있으나, 실제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은 ‘3인 이상의 모임’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독거청년이 공동체 지원정책에 참여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청년청의 사업들을 보면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를 수 있겠지만, 해당 사업들을 통해 청년이 주거지를 기반으로 공동체에 가담하고 참여하도록 촉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현재 공동체 정책에서 독거청년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정책적 한계점은 2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이 독거청년의 참여를 포용하지 못한다. 생활권 내 연결망이 거의 없는 독거청년들은 참여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둘째, 활동 지원 및 공간 지원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목적이 생활권 안에서의 공동체 형성을 주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발생하는 공동체에 개인적으로 참여하게 되더라도, 해당 참여를 통해 인근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우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현 주거지에 연고가 없는 독거청년이 인근 이웃을 만날 수 있고 신뢰 기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는 않은 실정이라 할 수 있다.

## 03. 조사 설계

### 1. 조사 개요

#### 1) 조사의 대상

본 연구에서 진행했던 개인설문조사와 그룹심층인터뷰(FGI)조사의 대상은 ‘관악구에 1.5년 이상<sup>43)</sup> 거주하는 20대 이상 35세 미만의 1인 가구’이다. 이는 지가가 저렴한 관악구에 1인 가구가 주로 모여들고, 이들 중 많은 독거청년들이 직장 혹은 학교 때문에 서울살이를 하게 된 청년들을 주로 만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거청년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 3-1]과 같이 3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분류의 기준은 생활패턴이며, 이는 생활패턴에 따라 생활 이슈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자 그룹 당 표본 수는 최대 5명으로 제한하였다. 응답자들은 그룹심층인터뷰(FGI)에 응하기 전 개인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연구진이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토론방식으로 그룹심층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표 3-1] 조사대상 유형

| 구분        | 내용                                                              | 조사인원 수 |
|-----------|-----------------------------------------------------------------|--------|
| 직장인(A)    | 생계를 위해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br>(일용직/파트직 근무도 해당)                         | 4명     |
| 대학(원)생(B) | 대학생, 대학원생인 경우                                                   | 5명     |
| 무직(C)     |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거나 특정 목적(취준, 고사생)을 위해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 3명     |
| 총 계       |                                                                 | 12명    |

43) 청년의 평균 거주기간 1.5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년 기준)

## 2) 표본의 수집

조사 응답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균등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조사대상을 최대한 균등히 구성하고자 했다. 우선 인터뷰 대상자를 모집할 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관악구 및 동작구 소재 대학교 커뮤니티 등의 온라인 채널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낙성대역에서 신림역까지 지하철역 및 주요 버스정류장에 포스터 광고를 부착하였다. 그 결과 총 45명의 인터뷰 대상자가 지원하였으며, 거주기간 및 연령대, 성별, 지원자의 참여적극성, 신청경로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직장인 4명, 대학(원)생 5명, 무직 3명으로 구성된 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3) 조사의 내용

연구에서 제언하고자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발굴하기 위하여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현황’과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실패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연결망’ 현황 파악 및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개인 설문조사’와 공동체 욕구 및 수요 발굴을 위한 ‘그룹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sup>44)</sup> 특히 본 조사를 통해 생활권 내/외 사회적 연결망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 수치로 유의미한 비교 결과를 제시하고자 했다. 각 조사의 목적과 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조사의 개요

| 구분    | 개인 설문조사                                                                                          | 그룹심층인터뷰(FGI) 조사                                                                                                                           |
|-------|--------------------------------------------------------------------------------------------------|-------------------------------------------------------------------------------------------------------------------------------------------|
| 조사 대상 | 관악구에 1.5년 이상 거주하는 25세~34세 1인 가구 청년, 총 12명                                                        |                                                                                                                                           |
| 조사 목적 | - 사회적 연결망 현황/욕구에 대한 측정자료를 기반한 객관적 데이터 수집                                                         | - 사회적 연결망 욕구 및 정주 상관관계 파악<br>-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장애, 촉진 요인 파악                                                                                 |
| 조사 내용 | - 생활권 내/외 사회적 연결망 현황, 참여 경로, 공동체 참여 의향 정도 등<br>- 이웃 친밀도, 지역사회 소속감<br>- 공동체복지 정책 및 자원사업 인지, 참여 여부 | - 생활권 내/외 사회적 연결망 경험, 기대욕구, 필요성, 영향(가치) 등<br>- 거주이유, 정주 의향, 지역사회 소속감, 정주요소<br>- 독거청년의 외로움, 사회적, 정서적 고립<br>- 공동체 정책의 필요성, 정책수요, 참여 의향 및 경로 |
| 조사 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개인 설문조사                                                                                 | 그룹별 심층면접조사(FGI)                                                                                                                           |

44) 본 연구보고서의 pp. 12페이지 본문 참고

## 2. 지표 설정 및 조사 항목

### 1) 지표 설정

먼저 지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와 ‘정서적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연결망이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은 이러한 신뢰와 정서적지지 요소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적 정의를 기반으로 사회적 연결망을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표 3-3]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러나 본 지표는 사회적 연결망의 현황과 욕구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지표일 뿐이며 절대적인 측정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3-3] 사회적 연결망 현황/욕구 측정 지표

| 구분 | 측정 지표      | 내용                                           |
|----|------------|----------------------------------------------|
| 현황 | 신뢰 기반      | 정서적, 물질적(금전적), 신체적 등의 도움이 오가는 정도 / 리커트 척도 7점 |
|    | 형성 경로      |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되게 된 계기 및 경로                      |
|    | 총 인원 수     | 생활권 내/외 사회적 연결망 총 인원 수                       |
|    | 신뢰 기반 인원 수 | 정서적 도움을 받는 신뢰 기반의 생활권 내/외 사회적 연결망 인원 수       |
|    | 만나는 횟수     | 월 1회 이하, 월 2~3회, 주 1회, 주 3회 이상 등             |
|    | 연락 횟수      | 거의 없음, 활발하지 않음, 활발, 매우 활발 / 리커트 척도 4점        |
| 욕구 | 정주 영향여부    |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이 정주성/지역사회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    | 연결망 의향     |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욕구 정도 / 리커트 척도 4점          |
|    | 교류 횟수      | 주 3회 이상, 주 1회, 월 2~3회, 월 1회 이하 등             |
|    | 구성원 규모     | 2~3명, 4명 이상, 10명 이상, 기타 등                    |
|    | 기대사항       | 사회적 연결망(개인/공동체)을 통해 경험하기를 희망하는 사항            |



## 2) 조사 항목

개인설문조사는 공동체 정책의 필요성 발굴을 위한 현황, 참여 경로, 참여 의향 정도 등 양적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룹심층인터뷰조사를 통해서는 촉진 요인, 장애 요인, 욕구, 지역사회, 정주성 등 사회·심리적 데이터를 수집함에 목적이 있다. 조사를 진행했던 구체적인 조사의 항목은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조사의 항목

| 구분         | 개인 설문조사                                                                                                                                                                    | 그룹심층인터뷰(FGI) 조사                                                                                                                                                                                                                    |
|------------|----------------------------------------------------------------------------------------------------------------------------------------------------------------------------|------------------------------------------------------------------------------------------------------------------------------------------------------------------------------------------------------------------------------------|
| 사회적 연결망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총 인원 수, 신뢰 기반 인원 수, 정서적 도움 정도, 형성 경로</li> <li>- 공동체: 참여 커뮤니티 수, 형성 경로, 생활권 내/외 여부, 만남 횟수, 연락 횟수, 정서적 도움 정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현황, 형성 경로</li> <li>- 커뮤니티 경험(무료/유료)</li> </ul>                                                                                                                              |
| 공동체 욕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연결망 필요성, 참여 의향</li> <li>- 사회적 연결망 교류 횟수</li> <li>- 이웃에 대한 친밀감 정도</li> <li>- 이웃에 대한 기대 친밀감</li> <li>- 참여 희망 커뮤니티 규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하는 공동체 취지 및 운영 목적, 관계의 결합 및 친밀감 정도, 활동, 대화 내용 등</li> <li>- 정서적 도움/기능적 도움 여부</li> <li>- 물리적 범위 정도(같은 건물/생활권 내)</li> <li>- 공동체 형성의 촉진 요인, 장애 요인</li> <li>- 희망 커뮤니티 서비스/지불금액 의향</li> </ul> |
| 외로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권 내/외 여가생활패턴 (얼마나/무엇을/누구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결핍 및 소외를 느끼는 상황</li> <li>-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것</li> <li>-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것(정책연계)</li> </ul>                                                                                         |
| 정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연결망의 영향성(정주)</li> <li>- 지역사회 소속감</li> <li>- 정주 고려 요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주 의향 및 이유</li> <li>-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이 정주 욕구 및 지역 사회 애착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li> </ul>                                                                                                              |
| 공동체 복지 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li> <li>- 참여/경험여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거청년을 위한 공동체복지 정책의 필요성</li> <li>- 필요한 정책 지원 범위 및 내용 (자조/연대/정책지원)</li> <li>- 정책에 대한 인지/만족도/순기능/역기능 의견/실효성 여부</li> <li>- 정책에 대한 참여 의향</li> <li>- 참여 장애 요인(인지/참여)</li> </ul>                 |

### 3. 분석의 틀

개인설문조사 및 그룹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1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방코딩 및 범주화를 진행한 결과, [표 3-5]와 같은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었다. 이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의 틀을 구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1차 자료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의 틀로 재구성하자면 총 4가지의 주제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주제에 따라 응답결과를 나열하여 개방코딩을 거친 결과 해당 범주화를 도출할 수 있었다. 각 범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주성에서는 거주하는 지역사회 및 동네에 대한 정주 의향과 이러한 정주 의향을 촉진시키는 촉진 요소와 장애요소를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적 결핍이다. 외로움과 사회적 소외에 대한 응답결과를 정리한 결과, 정서적으로 느끼는 결핍과 기능적으로 느끼는 결핍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sup>45)</sup> 이와 더불어 개인이 느끼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해결 시도에 대해 정리하였다. 셋째, 사회적 연결망 현황 및 욕구이다. 생활권 내에서의 개인적 사회적 연결망 현황과 형성경로, 공동체 현황과 형성경로에 대해 정리하고, 공동체 욕구와 유형, 장애 요인, 기대사항과 효과를 기준으로 응답결과를 재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정책에서는 정책적 수요가 주로 발굴되었는데, 참여 경로 확대, 모임 계획과 운영지원, 신뢰 형성 지원으로 범주화하였다.

<sup>45)</sup> 응답결과를 포용하고 추상화할 수 있는 키워드를 수차례 논의한 결과, 사회적 소외, 외로움 등 수많은 개념의 후보가 제시되었지만 '외로움', '소외'라는 단어로 응답결과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3-5] 분석의 틀

| 구분                      | 범주화                | 내용                                          | 의의                               |
|-------------------------|--------------------|---------------------------------------------|----------------------------------|
| 정주성                     | 정주 의향              | 정주 의향 정도                                    | 정주 및<br>지역사회 애착<br>형성 상관관계<br>파악 |
|                         | 촉진 요소              | 정주 및 지역사회 애착 형성을 위한 촉진 요소                   |                                  |
|                         | 장애 요소              | 정주 및 지역사회 애착 형성을 제한하는 장애 요소                 |                                  |
| 사회적<br>결핍               | 정서적 결핍             | 관계망 부재로 인한 두려움, 불안감, 외로움 등 정서적/심리적 결핍 관련 응답 | 외로움의<br>유형화,<br>커뮤니티 효과          |
|                         | 기능적 결핍             | 관계망 부재로 인한 위험 시 도움 요청의 기회 결여 등 기능적 결핍 관련 응답 |                                  |
|                         | 해결 시도              | 개인적 수준/커뮤니티 수준 등 해결 시도의 단위                  |                                  |
| 사회적<br>연결망<br>현황/<br>욕구 | 생활권 내/외<br>개인, 공동체 | 생활권 내/외 개인 사회적 연결망 현황, 형성경로                 | 생활권 내/외<br>현황 비교                 |
|                         |                    | 생활권 내/외 공동체 사회적 연결망 현황, 형성경로                |                                  |
|                         | 공동체 욕구             | 공동체 참여 의향 및 태도                              | 공동체 욕구 및<br>유형화, 장애<br>요인 파악     |
|                         | 공동체 유형             | 지역사회 연계 정도, 희망하는 구성원 간 결합 정도에 따라 공동체 유형 분류  |                                  |
|                         | 구성원 범위             | 희망하는 구성원 물리적 범위의 정도                         |                                  |
|                         | 장애 요인              | 공동체 형성의 장애 요인 및 진입 장벽                       |                                  |
|                         | 기대사항/효과            | 공동체를 통해 기대하는 일상적/정서적 문제 해소 및 안정감            |                                  |
| 공동체<br>정책               | 참여 경로 확대           | 공간 지원/정보 제공 등                               | 정책 수요<br>파악                      |
|                         | 모임 계획/<br>운영지원     | 모임 계획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의견사항                      |                                  |
|                         | 신뢰 형성 지원           | 구성원 간/모임에 대한 신뢰 형성 지원에 관한 의견사항              |                                  |

# 04. 청년은 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가

## 1. 독거청년의 삶: 서울살이

### 1) 응답 결과

#### (1) 직장인: 일자리 찾아 서울로, 익숙한 장소와 이웃을 통한 높은 정주성

직장인은 대학 입학 또는 일자리의 이유로 서울살이를 택했다. 직장인 독거청년의 거주지 결정요인으로는 용이한 출퇴근, 지인 거주, 저렴한 지가, 잘 구축된 문화 인프라가 언급되었다. 직장인 4명 중 3명은 긍정적 정주 의향을 보였다. 그들이 말하는 정주 촉진 요소는 개인에게 익숙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 이웃 교류로 인한 지역 애착이다. 반대로 정주 장애 요소로는 비자가 거주, 주거 안정성의 침해 또는 좋지 않은 치안이 언급되었다.

[표 4-1] 직장인의 FGI '서울살이' 응답 결과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내용                                                                            |
|---------------------|-------------|------------------------|-------------------------------------------------------------------------------|
| 서울<br>살이            | 서울살이<br>이유  | 학교/기업/단체/기<br>관의 소재    | - 일자리가 서울에 많이 있음<br>- 대학 입학으로 상경                                              |
|                     | 거주지<br>결정요인 | 출퇴근 용이(4)              | - 2호선 라인이어서 직장 및 학교에 출퇴근이 편함(4)                                               |
|                     |             | 지인 거주(2)               | - 고향 친구가 신림 쪽에 살고 있음                                                          |
|                     |             | 주거·인프라 대비<br>저렴한 지가 3) | - 교통접근성 및 인프라 대비 지가가 저렴함<br>- 주거비가 저렴함                                        |
|                     |             | 문화여가 인프라(1)            | - 한강 등 문화여가 인프라에 대한 이용욕구가 큼                                                   |
| 정주성<br>/지역사<br>회 애착 | 정주 의향       | 정주 의향 없음 (1)           |                                                                               |
|                     | 촉진요소        | 익숙한 장소(2)              | - 동 주민센터 내 도서관과 인근 발레학원을 다니면서<br>'우리 동네'라는 인식이 생김<br>- 기존에 살았던 경험과 동네에 대한 익숙함 |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내용                                                                                                                                                                         |
|-----|------|--------------|----------------------------------------------------------------------------------------------------------------------------------------------------------------------------|
|     |      | 이웃 교류(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는 이웃이 없고 인사하고 지내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듦</li> <li>- 거주지 기간보다는 동네 안에서 이웃들과 맺는 교류 정도에 따라 지역 애착도 및 소속감이 높아진 경험 있음</li> </ul> |
|     | 장애요소 | 비자가 거주(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 소유가 아니어서 금방 떠날 동네라는 생각이 듦</li> </ul>                                                                                           |
|     |      | 주거 안정성/치안(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경험한 이후로 정주 요인의 절대적 기준이 생김</li> <li>- 문을 열고 살 만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네를 희망</li> </ul>                                          |

## (2) 대학(원)생: 기회 찾아 서울로, 익숙한 장소와 이웃을 통한 높은 정주성

대학(원)생은 일자리, 경험과 배움 및 교류의 기회, 서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콘텐츠 접근성을 위해 서울살이를 택했다. 대학(원)생 독거청년 5명 모두 거주지 결정요인으로 학교와 가깝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취침 위주의 정주형태와 위축된 생활권 내 여가시간 활용으로 요약된다. 대학(원)생 5명 중 4명은 긍정적 정주 의향을 보였다. 그들이 말하는 정주 촉진 요소는 개인에게 익숙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 익숙한 이웃(사람)의 존재, 교통 및 시설 인프라, 저렴한 지가, 신선함이 있으며, 반대로 정주 장애 요소로는 비자가 거주, 좋지 않은 주거환경, 지역 소속감 부재가 언급되었다.

[표 4-2] 대학(원)생의 FGI '서울살이' 응답 결과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내용                                                                                                                                                                                                                                         |
|--------|----------|------------------|--------------------------------------------------------------------------------------------------------------------------------------------------------------------------------------------------------------------------------------------|
| 서울 살이  | 서울살이 이유  | 다양한 기회 및 콘텐츠 접근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준비 및 취직</li> <li>- 대학생으로서 동아리, 대외활동, 문화생활 기회 존재</li> <li>-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존재</li> <li>-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경험을 통한 배움</li> <li>- 서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문화 인프라 존재</li> <li>- 서울에만 있는 맛집 및 프랜차이즈 존재</li> </ul> |
|        |          | 교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구축된 교통 인프라</li> </ul>                                                                                                                                                                           |
|        | 거주지 결정요인 | 주 생활환경(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가까움</li> </ul>                                                                                                                                                                                |
| 라이프스타일 | 생활패턴     | 취침 위주의 정주 형태(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침용도의 자취방</li> <li>- 영상 시청 및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li> <li>- 혼자만의 시간 욕구</li> </ul>                                                                                                                         |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내용                                                                                                                                                    |
|--------------------|-------|---------------|-------------------------------------------------------------------------------------------------------------------------------------------------------|
|                    |       | 여가시간 활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여가 형태(2)</li> <li>- 동네에서 누릴 수 있는 여가활동: 보드게임, pc방, 카페 가기</li> <li>- 과 동기 및 선후배 만남</li> </ul>                |
| 정주성/<br>지역사회<br>애착 | 정주 의향 | 정주 의향 없음(1)   |                                                                                                                                                       |
|                    | 촉진요소  | 익숙한 장소(2), 이웃 | - 사람과 장소에 대한 익숙함, 로컬 상점                                                                                                                               |
|                    |       | 신선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네에서의 신선한 경험이 주는 소속감</li> <li>- 새로운 가게에 대해 느끼는 신선함</li> </ul>                                                |
|                    |       | 교통 및 시설 인프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호선, 강남으로의 접근성</li> <li>- 오락 및 여가를 위한 시설 多</li> <li>- 샴로수길이라는 어메니티 존재</li> </ul>                             |
|                    |       | 지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지역에 비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li> <li>- 저렴한 지가로 인한 주거자에 대한 넓은 선택의 폭 (오피스텔 제외)</li> </ul>                              |
|                    | 장애 요소 | 좋지 않은 주거환경    | - 신림의 경우, 보행환경 및 치안 등 환경적 요인                                                                                                                          |
|                    |       | 지역 소속감 부재(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소속감이 부재하여 동네 느낌은 있지만 주민은 아니라고 생각함</li> <li>- 지역 소속감은 직장 및 학교에서 벗어나 자신이 자치구 내에서 맡은 일에서 비롯된다고 여감</li> </ul> |
|                    |       | 비자가 거주(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일 경우 비로소 동네 주민이 된다고 생각함.</li> <li>- 정착하지 않고 언제든지 동네를 떠날 수 있다고 느낌</li> </ul>                                |

### (3) 무직: 직장에 따라 언제든지 거주지를 바꿀 것

무직의 독거청년은 거주지 결정요인으로 주변 인프라와 지가가 있으며 향후 직장과의 거리에 따라 고려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첫째, 생활권 내 최소한의 활동과 둘째, 생활반경에서의 축적된 피로도 등의 이유로 위축된 생활권 내 여가시간 활용으로 요약된다. 무직 3명 모두 정주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그들이 말하는 정주 촉진 요소는 개인에게 익숙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 익숙한 이웃(사람)의 존재, 충분한 인프라의 존재가 있으며, 반대로 정주 장애 요소로는 직장에 따라 언제든지 거주지를 바꿀 의향이 있다는 것, 신림동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나쁜 주거 안정성이 언급되었다.

[표 4-3] 무직의 FGI '서울살이' 응답 결과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내용                                                                                                               |
|---------------------|-----------------|-------------------|------------------------------------------------------------------------------------------------------------------|
| 서울<br>살이            | 거주지<br>결정<br>요인 | 주 생활환경(3)         | - 직장에 따라 거주지 결정                                                                                                  |
|                     |                 | 주변 인프라(1)         | - 주변 인프라 고려하여 거주지 결정                                                                                             |
|                     |                 | 자기(3)             | - 자가에 따라 거주지 결정                                                                                                  |
| 라이프<br>스타일          | 생활<br>패턴        | 최소한의 일(3)         | - 동네에서는 기본적인 생활만 이뤄짐. 취침 등<br>- 학원 제외 동네에서 시간 보냄                                                                 |
|                     |                 | 생활환경에서의<br>피로도(2) | - 일상의 피로감으로 주말에 거주지 벗어나는 경향<br>- 주거지에서 웬만한 일상이 소모되는 만큼 피로도가<br>누적되는 경향<br>- 일상 주거지에서의 지침은 대부분의 청년이 느끼는<br>공통적 현상 |
|                     |                 | 어색한 지인<br>거부감     | - 휴식시간에 정서적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지인을 만나는<br>것에 피로감을 느낌                                                                    |
|                     |                 | 인프라               | - 주거지에서 누릴 수 있는 상업적 인프라도 고려                                                                                      |
|                     |                 | 구성원 에티켓           | - 동네 주민들의 에티켓 등 개인의 경험도 영향을 미침                                                                                   |
| 정주성/<br>지역사<br>회 애착 | 정주<br>의향        | 정주 의향<br>없음(3)    | - 직장에 따라 거주지 옮김<br>-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가로 거주지 결정                                                                        |
|                     | 촉진<br>요소        | 익숙함(3)            | - 동네 거주하던 동네 장소의 익숙함이 정주의사에 영향<br>- 이웃 한 명의 이웃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
|                     |                 | 인프라(2)            | - 교통, 상업 시설 등의 인프라가 정주의사에 영향                                                                                     |
|                     | 장애<br>요소        | 주 생활환경(3)         | - 직장이라는 주 생활환경에 따라 거주지 결정하는 경향<br>강함                                                                             |
|                     |                 | 안전성(2)            | - 신림동은 할렘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 가정을 꾸리고<br>싶은 동네는 아님                                                                      |

## 2) 서울살이

### (1) 서울살이의 이유

“서울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지원 기회도 서울에 주로 열려 있고 회사도 서울에 많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대학을 서울로 가야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기회의 땅이다.”

- 대학생

“기업도 마찬가지로 모든 학교, 단체, 기관이 서울에 몰려있으니까요.  
저도 대학 때문에 서울에 왔고...”

- 직장인

직장인, 대학(원)생, 무직 그룹을 막론하고 독거청년이 서울살이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비슷하다. 서울에는 기업, 단체, 학교, 기관 등이 집적해 있으며, 이를 위해 독거청년이 되는 것이다. 특히 대학생 그룹의 인터뷰에서 서울살이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기회’가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경험을 통한 배움의 기회, 전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서울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문화 인프라나 맛집, 프랜차이즈마저 독거청년은 서울에 살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 인식한다. 또한 잘 구축된 교통 인프라를 통해 서울 시내 어디든 오갈 수 있는 것 또한 서울살이의 이유로 언급하였다.

### (2) 거주지 결정 요인

“관악구에 살게 된 건 2호선 라인이라는 접근성, 그리고 싸니까 오게 됐어요.  
이 정도의 주거 공간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가가 저렴한 곳은 서울에서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직장인

“고향 친구가 신림 쪽에 살아서 관악구로 왔어요. (중략).  
친구가 근처에 있으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친구가 근처에 있으니까.”

-직장인

“학교랑 교통편, 생활 그냥 다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대학생

서울살이를 결정한 독거청년이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대부분의 독거청년은 자신의 학교 및 직장과 가까운 곳을 거주지로 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직장인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결정요인이 언급되었다. 교통 인프라가 좋아 출퇴근이 용이하거나 지인이 거주한다든지, 적당한 주거 공간과 질 및 인프라와 저렴한 지가, 문화 인프라가 잘 구축되었는지 등이 제시되었다.



### 3) 라이프스타일

#### (1) 취침 위주의 정주 형태

“거의 잠자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아니면 PC방에서 게임 좀 하거나.

동네에서는 지인이 별로 없어서 잘 안 놀아요.”

-대학생

“난곡동에 있는 시간은 잠잘 때 빼고 없어요.

공부는 신림역 독서실에 나와서 하니까. 집에서는 잠만 자죠.”

-무직

독거청년은 자신의 동네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최소한의 활동만 행하고 있다. 무직 그룹의 경우, 학원을 제외한 시간은 동네에서 보내지만 기본적 생활만 이뤄진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생의 경우도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자취방은 취침용도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가 있고 혼자 있는 경우 영상 시청 및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이용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 (2) 여가시간 활용 양상

##### ① 여가시간

[표 4-4] 독거청년의 그룹별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단위: 시간)

| 구분1 | 구분2   | 구분3    | 직장인   |    |   |   | 대학(원)생 |   |    |    |   | 무직    |      |   |
|-----|-------|--------|-------|----|---|---|--------|---|----|----|---|-------|------|---|
|     |       |        | A     | B  | C | D | A      | B | C  | D  | E | A     | B    | C |
| 근무일 | 생활권 내 | 시간     | 0     | 6  | 1 | 2 | 4      | 2 | 5  | 4  | 3 | 0     | 2.5  | 0 |
|     |       | 그룹별 평균 | 3시간   |    |   |   | 3.6시간  |   |    |    |   | 2.6시간 |      |   |
|     |       | 전체평균   | 2.7시간 |    |   |   |        |   |    |    |   |       |      |   |
|     | 생활권 외 | 시간     | 5     | 12 | 0 | 0 | 1      | 2 | 1  | 2  | 5 | 3     | 7.5  | 3 |
|     |       | 그룹별 평균 | 5.7시간 |    |   |   | 2.2시간  |   |    |    |   | 3시간   |      |   |
|     |       | 전체 평균  | 3.8시간 |    |   |   |        |   |    |    |   |       |      |   |
| 휴무일 | 생활권 내 | 시간     | 2     | 12 | 1 | 2 | 8      | 5 | 10 | 1  | 7 | 2     | 9    | 2 |
|     |       | 그룹별 평균 | 4.3시간 |    |   |   | 6.2시간  |   |    |    |   | 5.5시간 |      |   |
|     |       | 전체 평균  | 5.1시간 |    |   |   |        |   |    |    |   |       |      |   |
|     | 생활권 외 | 시간     | 0     | 6  | 5 | 3 | 1      | 5 | 14 | 10 | 5 | 7     | 10.5 | 5 |
|     |       | 그룹별 평균 | 4.7시간 |    |   |   | 7시간    |   |    |    |   | 7.1시간 |      |   |
|     |       | 전체평균   | 6.5시간 |    |   |   |        |   |    |    |   |       |      |   |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각각에서 보내는 여가시간을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표4-4]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근무일(통학일)과 휴무일로 나누어 하루 동안 얼마의 여가시간을 생활권 내 또는 외에서 보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그룹별 분석이다. 근무일을 먼저 살펴보겠다. 직장인 그룹은 근무일의 경우 하루 평균 3시간의 여가시간을 생활권 내에서, 하루 평균 5.7시간의 여가시간을 생활권 외에서 보낸다고 한다. 대학(원)생 그룹은 근무일(통학일)의 경우 하루 평균 3.6시간의 여가시간을 생활권 내에서, 하루 평균 2.2시간의 여가시간을 생활권 외에서 보낸다고 한다. 무직 그룹은 근무일(통학일)의 경우 하루 평균 2.6시간의 여가시간을 생활권 내에서, 하루 평균 3시간의 여가시간을 생활권 외에서 보낸다고 한다. 독거청년이 근무일에 생활권 내에서 보내는 여가시간의 전체 평균은 2.7시간인데, 무직을 제외하곤 평균보다 많은 시간을 생활권 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독거청년이 근무일에 생활권 외에서 보내는 전체 평균은 3.8시간인데, 직장인을 제외하곤 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생활권 외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휴무일에 대한 그룹별 분석이다. 직장인 그룹은 휴무일의 경우 하루 평균 4.3시간의 여가시간을 생활권 내에서, 하루 평균 4.7시간의 여가시간을 생활권 외에서 보낸다고 한다. 대학(원)생 그룹은 휴무일의 경우 하루 평균 6.2시간의 여가시간을 생활권 내에서, 하루 평균 7시간의 여가시간을 생활권 외에서 보낸다고 한다. 무직 그룹은 휴무일의 경우 하루 평균 5.5시간의 여가시간을 생활권 내에서, 하루 평균 7.1시간의 여가시간을 생활권 외에서 보낸다고 한다. 독거청년이 휴무일에 생활권 내에서 보내는 여가시간의 전체 평균은 5.1시간인데, 직장인을 제외하곤 평균보다 많은 시간을 생활권 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거청년이 근무일에 생활권 외에서 보내는 전체 평균은 6.5시간인데, 직장인을 제외하곤 평균보다 많은 시간을 생활권 외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분석이다. 독거청년은 근무일의 경우, 생활권 내에서 보내는 여가시간(3.8시간)이 생활권 외에서 보내는 여가시간(2.7시간)보다 적다. 마찬가지로 휴무일의 경우에도 생활권 내에서 보내는 여가시간(5.1시간)이 생활권 외에서 보내는 여가시간(6.5시간)보다 적다.

## ② 직장인 여가시간 활용 양상

[표 4-5] 직장인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활용 양상 '무엇을'

| 구분  | 응답: 무엇을               | 생활권 내 |     |     |      | 생활권 외 |     |     |      |
|-----|-----------------------|-------|-----|-----|------|-------|-----|-----|------|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 근무일 | 운동/취미 및 오락활동          | 1     | 3   | 1   | 1000 |       | 1   |     | 200  |
|     | 휴식활동                  | 3     |     | 1   | 1000 |       |     |     | 0    |
|     | 종교활동                  |       |     |     | 0    | 1     |     |     | 300  |
|     | 친목모임<br>/동호회<br>/지인만남 |       | 1   |     | 200  | 1     |     |     | 300  |
|     | 사회연대<br>/시민단체         |       |     |     | 0    |       |     |     | 0    |
|     | 기타                    |       |     | 1   | 100  |       |     | 1   | 100  |
|     |                       |       |     |     |      |       |     |     |      |
| 휴무일 | 운동/취미 및 오락활동          | 1     | 2   |     | 700  |       | 2   | 1   | 500  |
|     | 휴식활동                  | 3     |     |     | 900  |       |     |     | 0    |
|     | 종교활동                  |       |     | 1   | 100  | 1     |     |     | 300  |
|     | 친목모임<br>/동호회<br>/지인만남 |       | 1   |     | 200  | 3     | 1   |     | 1100 |
|     | 사회연대<br>/시민단체         |       |     | 1   | 100  |       |     |     | 0    |
|     |                       |       |     |     |      |       |     |     |      |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직장인 독거청년의 경우 근무일 여가시간에 생활권 내에서 여가시간을 운동/취미 및 오락활동과 휴식활동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외의 경우에는 종교활동과 친목모임/동호회/지인만남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생활권 내에서는 주로 취미 및 휴식 등으로 일상의 피로를 해소하며 생활권 외에서는 대체로 타인과의 교류가 가능한 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휴무일 여가시간의 생활권 내 활용 양상 1순위는 휴식활동, 2순위는 운동/취미 및 오락활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권 외의 경우 친목모임/동호회/지인만남이 1순위, 운동/취미 및 오락활동이 2순위로 나타났다. 휴무일 역시 생활권 내에서는 주로 휴식을 취하는 편이고 생활권 외에서는 대인관계를 통해 여가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6] 직장인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활용 양상 '누구와'

| 구분  | 응답: 누구와  | 생활권 내 |     |     |      | 생활권 외 |     |     |      |
|-----|----------|-------|-----|-----|------|-------|-----|-----|------|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 근무일 | 혼자       | 4     |     |     | 1200 |       |     |     | 0    |
|     | 지인 1인    |       | 1   |     | 200  | 2     |     |     | 600  |
|     | 지인 2~4인  |       |     |     | 0    |       | 1   |     | 200  |
|     | 5인 이상 지인 |       | 1   |     | 200  |       |     |     | 0    |
| 휴무일 | 혼자       | 3     |     |     | 900  |       |     |     | 0    |
|     | 지인 1인    |       | 1   |     | 200  | 1     | 2   |     | 700  |
|     | 지인 2~4인  |       |     |     | 0    | 2     | 1   | 1   | 900  |
|     | 5인 이상 지인 | 1     |     |     | 300  | 1     |     |     | 300  |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직장인의 생활권 내/외 각각에서 여가시간을 누구와 보내는지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표 4-6]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1순위 응답엔 300, 2순위 응답엔 200, 3순위 응답엔 100의 가중치를 곱하여 직장인의 여가시간 활용 양상을 파악하였다. 응답하지 않은 경우 수치를 제외하였다. 먼저 근무일이다. 근무일에 생활권 내의 경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1순위 혼자, 2순위 지인 1명 또는 5인 이상의 지인이다. 근무일에 생활권 외의 경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1순위 지인 1인, 2순위 지인 2~4인이다. 다음으로 휴무일이다. 휴무일에 생활권 내의 경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1순위 혼자, 2순위 5인 이상의 지인, 3순위 지인 1인이다. 휴무일에 생활권 외의 경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1순위 지인 2~4인, 2순위 지인 1인, 3순위 5인 이상의 지인이다. 이를 통해 근무일과 휴무일을 막론하고 생활권 내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 '혼자'의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③ 대학(원)생 여가시간 활용 양상

[표 4-기] 대학(원)생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활용 양상 '무엇을'

| 구분  | 응답: 무엇을               | 생활권 내 |     |     |      | 생활권 외 |     |     |      |
|-----|-----------------------|-------|-----|-----|------|-------|-----|-----|------|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 근무일 | 운동/취미 및 오락활동          | 1     | 2   | 0   | 700  | 0     | 0   | 1   | 100  |
|     | 휴식활동                  | 3     | 1   | 1   | 1200 | 0     | 2   | 1   | 500  |
|     | 종교활동                  | 0     | 0   | 0   | 0    | 0     | 0   | 0   | 0    |
|     | 친목모임<br>/동호회<br>/지인만남 | 1     | 2   | 3   | 1000 | 5     | 3   | 1   | 2200 |
|     | 사회연대<br>/시민단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                    | 0     | 0   | 0   | 0    | 0     | 0   | 1   | 100  |
|     |                       |       |     |     |      |       |     |     |      |
| 휴무일 | 운동/취미 및 오락활동          | 2     | 1   | 2   | 1000 | 0     | 1   | 1   | 300  |
|     | 휴식활동                  | 1     | 2   | 1   | 800  | 0     | 2   | 1   | 500  |
|     | 종교활동                  | 0     | 0   | 0   | 0    | 0     | 0   | 0   | 0    |
|     | 친목모임<br>/동호회<br>/지인만남 | 2     | 2   | 2   | 1200 | 5     | 2   | 2   | 2100 |
|     | 사회연대<br>/시민단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대학생 독거청년은 근무일 여가시간에 생활권 내에서 1순위로 휴식활동, 2순위로는 친목모임/동호회/지인만남, 3순위로 운동/취미 및 오락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외에서는 친목모임/동호회/지인만남이 1순위, 뒤이어 휴식활동을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교 인근에 주로 거주하는 대학생 독거청년의 특성상 직장인 그룹보다 생활권 내에서 여가시간에 대인관계를 자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외의 경우 직장인 그룹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를 통해 여가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다.

휴무일 여가시간에는 생활권 내에서 1순위로 친목모임/동호회/지인만남을, 2순위로 운동/취미 및 오락활동, 뒤이어 휴식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권 외의 경우 생활권 내와 비슷한 양상으로 친목모임/동호회/지인만남이 1순위, 휴식활동이 2순위, 운동/취미 및 오락활동이 3순위로 나타났다. 대학생 그룹의 경우 근무일과 휴무일 모두 여가시간 활용에 대인관계를 갖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정도에 있어서는 대인관계 활용이 휴무일에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표 4-8] 대학(원)생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활용 양상 '누구와'

| 구분  | 응답: 누구와  | 생활권 내 |     |     |      | 생활권 외 |     |     |      |
|-----|----------|-------|-----|-----|------|-------|-----|-----|------|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 근무일 | 혼자       | 4     |     | 1   | 1300 |       | 1   | 1   | 300  |
|     | 지인 1인    | 1     | 1   |     | 500  | 3     |     |     | 900  |
|     | 지인 2~4인  |       | 4   |     | 800  | 1     | 4   |     | 1100 |
|     | 5인 이상 지인 |       |     |     | 0    | 1     |     | 1   | 400  |
| 휴무일 | 혼자       | 2     | 1   | 1   | 900  |       | 1   | 1   | 300  |
|     | 지인 1인    | 2     | 1   |     | 800  | 2     | 1   | 1   | 900  |
|     | 지인 2~4인  | 1     | 3   |     | 900  | 2     | 3   |     | 1200 |
|     | 5인 이상 지인 |       |     |     | 0    | 1     |     | 1   | 400  |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대학(원)생의 생활권 내/외 각각에서 여가시간을 누구와 보내는지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표 4-8]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1순위 응답엔 300, 2순위 응답엔 200, 3순위 응답엔 100의 가중치를 곱하여 대학(원)생의 여가시간 활용 양상을 파악하였다. 응답하지 않은 경우 수치를 제외하였다. 먼저 근무일이다. 근무일에 생활권 내의 경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1순위 혼자, 2순위 지인 2~4인, 3순위 지인 1인이다. 근무일에 생활권 외의 경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1순위 지인 2~4인, 2순위 지인 1인, 3순위 5인 이상의 지인이다. 다음으로 휴무일이다. 휴무일에 생활권 내의 경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1순위 혼자 또는 지인 2~4인, 2순위 지인 1인이다. 휴무일에 생활권 외의 경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1순위 지인 2~4인, 2순위 지인 1인, 3순위 5인 이상의 지인이다. 이를 통해 근무일과 휴무일을 막론하고 생활권 내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 '혼자'의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④ 무직 여가시간 활용 양상

[표 4-9] 무직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활용 양상 '무엇을'

| 구분  | 응답: 무엇을               | 생활권 내 |     |     |      | 생활권 외 |     |     |      |
|-----|-----------------------|-------|-----|-----|------|-------|-----|-----|------|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 근무일 | 운동/취미 및 오락활동          | 0     | 0   | 0   | 0    | 0     | 0   | 0   | 0    |
|     | 휴식활동                  | 1     | 0   | 1   | 400  | 1     | 1   | 1   | 600  |
|     | 종교활동                  | 0     | 0   | 0   | 0    | 0     | 0   | 0   | 0    |
|     | 친목모임<br>/동호회<br>/지인만남 | 0     | 1   | 1   | 300  | 0     | 0   | 0   | 0    |
|     | 사회연대<br>/시민단체         | 1     | 1   | 0   | 500  | 2     | 1   | 0   | 800  |
|     | 기타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 휴무일 | 운동/취미 및 오락활동          | 0     | 0   | 0   | 0    | 0     | 0   | 0   | 0    |
|     | 휴식활동                  | 1     | 0   | 2   | 500  | 0     | 2   | 1   | 500  |
|     | 종교활동                  | 0     | 0   | 0   | 0    | 0     | 0   | 0   | 0    |
|     | 친목모임<br>/동호회<br>/지인만남 | 0     | 2   | 0   | 400  | 3     | 0   | 0   | 900  |
|     | 사회연대<br>/시민단체         | 2     | 0   | 0   | 600  | 0     | 0   | 0   | 0    |
|     | 기타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무직 독거청년은 근무일 여가시간에 생활권 내에서 1순위로 사회연대/시민단체, 2순위로 휴식활동, 3순위로 친목모임/동호회/지인만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외에서는 사회연대/시민단체가 1순위, 뒤이어 휴식활동을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휴무일 여가시간에는 생활권 내에서 1순위로 사회연대/시민단체를, 2순위로 휴식활동, 뒤이어 친목모임/동호회/지인만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권 외의 경우 친목모임/동호회/지인만남이 1순위, 휴식활동이 2순위로 나타났다. 다른 그룹의 독거청년과 달리 사회연대/시민단체 활동이 나타나는 것이 독특한 점이다.

[표 4-10] 무직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여가시간 활용 양상 '누구와'

| 구분  | 응답: 누구와  | 생활권 내 |     |     |      | 생활권 외 |     |     |      |
|-----|----------|-------|-----|-----|------|-------|-----|-----|------|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 근무일 | 혼자       | 1     | 1   |     | 500  | 1     | 1   |     | 500  |
|     | 지인 1인    | 1     |     |     | 300  | 1     |     |     | 300  |
|     | 지인 2~4인  |       |     | 1   | 100  | 1     | 1   |     | 500  |
|     | 5인 이상 지인 |       | 1   |     | 200  |       |     |     | 0    |
| 휴무일 | 혼자       | 2     |     |     | 600  |       | 2   |     | 400  |
|     | 지인 1인    |       | 1   |     | 200  | 1     |     |     | 300  |
|     | 지인 2~4인  | 1     |     |     | 300  | 2     |     |     | 600  |
|     | 5인 이상 지인 |       | 1   |     | 200  |       |     |     | 0    |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무직의 생활권 내/외 각각에서 여가시간을 누구와 보내는지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표 4-10]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1순위 응답엔 300, 2순위 응답엔 200, 3순위 응답엔 100의 가중치를 곱하여 무직 응답자의 여가시간 활용 양상을 파악하였다. 응답하지 않은 경우 수치를 제외하였다.

먼저 근무일이다. 근무일에 생활권 내의 경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1순위 혼자, 2순위 지인 1인, 3순위 5인 이상의 지인이다. 근무일에 생활권 외의 경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1순위 혼자 또는 지인 2~4인, 2순위 지인 1인이다. 다음으로 휴무일이다. 휴무일에 생활권 내의 경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1순위 혼자 2순위 지인 2~4인, 3순위 지인 1인 또는 5인 이상의 지인이다. 휴무일에 생활권 외의 경우,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1순위 지인 2~4인, 2순위 혼자, 3순위 지인 1인이다. 이를 통해 근무일과 휴무일을 막론하고 생활권 내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 '혼자'의 시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저는 여가시간이 따로 없어서 토요일 저녁에 일상을 환기할만한 시간을 내요.  
근데 그 시간에는 신림에 잘 안 있어요. 계속 공부하고 치어 사는 공간에서 쉬려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일부러 나가서 타지역에서 친구들 만나고 하는 편이죠.”

-무직

“에티켓이 없다고 해야 하나... 길에서 횡단보도에서 담배 피우고.  
밤에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람들이 주먹으로 막 싸우는 거 보면 굳이 여기서 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죠.”

-무직

“친구 만날 때는 동네에서 보드게임, 아니면 멀리 방 탈출 하러 가거나.  
남자친구랑은 PC방에서 주로 같이 게임을 해요. 일과 후에 반은 집에서 바로 자고, 반 정도는 돌아다니죠.”

-대학생



독거청년은 여가시간이 주어질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하는지 인터뷰하였다. 먼저 대학생 그룹의 경우, 문화생활, 오락을 즐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 안의 상업 시설인 보드게임카페, pc방, 카페 등의 예가 언급되었다. 그들은 동기나 선후배 등을 만나며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였다. 무직 그룹의 경우 주거지를 벗어난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일상의 대부분을 동네에서 보내는 만큼, 피로도가 누적되었기에 새로운 공간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많은 청년들이 일상 주거지에서 지침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정서적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지인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피로하며 주거지에 필요한 상업 인프라가 없는 경우가 있고 동네 주민들의 에티켓 또한 여가시간을 주거지에서 보낼지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정주성 및 지역사회 애착

##### (1) 정주 의향

현재 거주지에 계속 머물 것인지에 대해 묻는 정주 의향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룹별로 상이하였다. 직장인의 경우 4명 중 1명, 대학생의 경우 5명 중 1명, 무직의 경우 3명 모두 정주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 (2) 지역사회에 관한 애착도

독거청년의 지역사회 애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웃에게 느끼는 친밀감의 정도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물었다. 관련 내용은 하단의 표를 이용해 정리하였다.

[표 4-11] 독거청년이 이웃에게 느끼는 친밀도

| 구분     | 귀하는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십니까? |            |         |            |      |
|--------|------------------------------------|------------|---------|------------|------|
|        | 매우 친밀하지 않다(1)                      | 친밀하지 않다(2) | 친밀하다(3) | 매우 친밀하다(4) | 평균   |
| 직장인    | 2                                  | 2          | 0       | 0          | 1.5  |
| 대학(원)생 | 5                                  | 0          | 0       | 0          | 1    |
| 무직     | 1                                  | 1          | 1       | 0          | 2    |
| 합계     | 8                                  | 3          | 1       | 0          | 1.41 |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독거청년이 이웃에게 느끼는 친밀도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표 4-1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설문 결과 독거청년들은 현재 동네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큰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 대상자 총 12명 중 8명이 '매우 친밀하지 않다'라고 응답하며 독거청년이 이웃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12] 독거청년이 느끼는 지역사회 소속감

| 구분     | 귀하는 현재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       |       |          |      |
|--------|------------------------------------|-------|-------|----------|------|
|        | 매우 낮다(1)                           | 낮다(2) | 높다(3) | 매우 높다(4) | 평균   |
| 직장인    | 2                                  | 1     | 1     | 0        | 1.75 |
| 대학(원)생 | 3                                  | 2     | 0     | 0        | 1.4  |
| 무직     | 1                                  | 2     | 0     | 0        | 1.6  |
| 합계     | 6                                  | 5     | 1     | 0        | 1.58 |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독거청년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소속감과 관련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표 4-1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독거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에 낮은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총 12명 중 11명이 '매우 낮다' 및 '낮다'에 응답하며 지역사회에 관한 낮은 소속감을 보였다.

이웃에 대한 친밀도와 지역사회 소속감 정도 등을 보았을 때 현재 독거청년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에 인간관계와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크게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응답결과 평균 모두 전체 4점 만점에 1.5점 인근을 기록하며 다소 낮은 점수의 경향성을 보였다.

### (3) 촉진요소

#### ① 익숙함-장소

“집 반경에서 웬만한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익숙함.  
물론 지방으로 이사를 가도 적응은 하겠지만 직장 문제 아닌 이상 일부러 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직

“동네에 익숙함이 굉장히 커요. 직장은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는 거고, 계속 다닐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얼마나 그곳에 익숙한지, 잘 알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대학생

정주 의향을 촉진하는 요소로 ‘익숙함’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들은 살고 있는 동네, 즉 장소에 대한 익숙함과 이웃에 대한 익숙함 두 가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첫째는 장소에 대한 익숙함이다. 응답자들은 거주하는 동네, 장소에서의 경험과 익숙함이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익숙한 장소로서 언급된 예로는 로컬상점, 인근 발레 학원, 동 주민센터 내 도서관 등이 있다.

#### ② 익숙함-이웃, 이웃교류

“내 동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이웃에 아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고 지내는 사람도 없어서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 살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직장인

“동네 사람들끼리 안면 트고 잘 지내면 불안함 같은 걸 조금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아예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안면이라도 트고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직장인

“저는 이미 이곳이 익숙해서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거주지를 정할 때 직장이 큰 요소는 아니에요.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근처에 있으면 좋겠고,  
지금이야 좋아서... 굳이 이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학생

둘째는 이웃교류를 통한 이웃에 대한 익숙함이다. 한 직장인 응답자는 이웃, 이웃교류의 부재로 인해 ‘왜 이곳에 계속 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무직 그룹의 응답자는 ‘한 명의 이웃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은 거주 기간보다 동네 안에서 이웃들과 맺는 교류 정도에 따라 지역 애착도 및 소속감이 높아진 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통해 정주 장애 요소인 안정성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 ③ 교통, 상업, 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

“신림 쪽이 좋은 건 직장을 어디를 구해도 다니기가 편하잖아요.  
여기를 떠나기가 힘든 게. 강남이나 여기저기 가까워서요.”

-직장인

“저는 거주지를 정할 때 직장이 1순위예요. 그다음으로는 반경 인프라.  
뭘 사거나 먹고 싶을 때 바로 갈 곳이 있는, 그런 동네를 우선적으로 찾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통근 시간이 짧았으면 좋겠어서 주어진 상황에 최대한 적응해 살 거예요.”

-무직

또 다른 정주 촉진요소로 교통, 상업, 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가 언급되었다. 교통 인프라로서, 관악구는 지리적 위치와 지하철 2호선 등으로 인해 강남 접근성이 좋다는 응답이 존재하여 정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현재 거주지 근처에 오락 및 여가를 위한 시설이 많은 것이 정주 촉진 요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관악구의 경우에는 샬로수길이라는 어메니티가 가장 큰 예로 언급되었다.

### ④ 기타

“서울 평균 집값에 비해 보증금, 월세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의시설도 다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교통과 시설의 편의성, 저렴한 자가 이런 것들.  
동문 선배들을 보면 졸업해도 지방출신이면 관악에 남아 있는 선배도 많이 있더라고요.”

-대학생

대학(원)생 그룹의 경우, 다른 그룹과 달리 정주 촉진 요소로 저렴한 자가와 신선함이 추가로 언급되었다. 관악구는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타지역에 비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가지고 있어 대학생들에게 좋은 거주지 결정요인이자 정주 촉진 요소로 작용하였다. 저렴한 자가로 인해 주거지에 대한 넓은 선택의 폭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동네의 신선함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신선함이란 동네에서의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가게에 대해 느끼는 것을 포괄해 의미한다. 이를 통해 동네가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어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해 정주 촉진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 (4) 장애요소

##### ① 비자가 거주

“지금 집이 자가 소유였으면 동네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월세라…”

- 대학생

현재 살고 있는 거주 형태가 비자가일 경우, 정주 의향에서 장애요소가 된다는 것을 인터뷰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독거청년 몇몇은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자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정착하지 않고 언제든지 동네를 떠날 수 있다고 느끼며 자가일 경우, 비로소 동네 주민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 ② 좋지 않은 주거 안정성 및 치안

“어제 동네에서 변태를 만나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동네의 안전성 같은 게 다음 집을 구할 때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됐죠.

적어도 동네에 저녁에 산책을 하다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직장인

“저는 신림이 할렘가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이쪽 산다고 하면 놀렸거든요.

신림이 서울 같지 않은 서울이라고 하고 비웃더라고요.”

-무직

동네에 살아가며 주거 안정성을 위협받거나 치안이 좋지 않음을 느끼는 경우 동네를 벗어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한 직장인 응답자는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경험한 이후로 동네의 안전성이 정주 요인의 1순위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관악구 신림동은 응답자 그룹을 막론하고 좋지 않은 치안을 가진 동네로 계속해서 언급되었다. 신림은 보행환경 및 치안의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이야기 했으며, 심지어 한 응답자는 ‘할렘가’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신림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며 신림동에서의 범죄 빈도나 사건의 악명성이 높아 계속 살아가며 가정을 꾸리고 싶은 동네는 아니라는 응답이 존재하였다.

##### ③ 지역 소속감 부재

“주민 느낌은 잘 안 들어요. 동네 주민이라고 하면 지역 커뮤니티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학교와 관련된 건 있어도 관악구와 관련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서 주민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학생

대학생 응답자의 경우 지역 소속감 부재가 정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동네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스스로 지역의 ‘주민’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데 해

당 원인이 ‘지역 소속감 부재’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역 소속감이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활동에서 벗어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치구 내에서 맡은 역할·활동 등의 지역 커뮤니티 참여에서 비롯된다고 여겼다.

## 5) 소결 :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서울살이

독거청년이 서울살이를 하는 이유는 ‘기회’라는 말로 포괄할 수 있겠다. 학교나 직장, 기업, 기관 등이 서울에 집적해 있다는 것, 다양한 교류와 경험을 통해 전문을 넓힐 수 있다는 것, 서울에만 존재하는 문화 인프라나 맛집, 프랜차이즈 등을 접할 수 있는 것 등 그들이 서울에서 행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서울에 삶으로써,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서울살이를 하는 독거청년이 거주지를 결정할 때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독거청년이 학교 및 직장과 가까운 곳을 거주지로 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외에도 좋은 교통 인프라가 존재하는 곳, 지인이 거주하는 곳, 적당한 주거의 질과 공간이 보장되면서 지가도 저렴한 곳, 문화 인프라가 충분히 있는 곳 등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 독거청년의 라이프스타일이다. 독거청년은 동네에서 수면, 휴식 등 최소한의 일만 행함을 알 수 있다. 취침 위주의 정주 형태를 보임이 그러하다.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경우, 동네 안에서는 인근의 카페나 pc방 등을 오고가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독거청년에게서 여가시간에 주거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무직 그룹의 경우 주거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는데, 동네에서 느끼는 피로를 새로운 장소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여가시간에 동네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로는 충분한 상업 인프라의 부재, 정서적 관계가 없는 지인 만남, 동네 주민들의 에티켓 부재 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응답을 통해 독거청년의 동네 안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위축되어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동네 안에서의 활동은 굉장히 기초적이며 그들의 욕구를 해소하기엔 부족함을 파악했다. 기회를 찾고자 서울살이를 택한 독거청년들은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안에선 다양한 경험이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독거청년의 정주 의향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무직 응답자의 경우 정주 의향이 전혀 없었지만 직장인과 대학생의 경우 현재 동네에 머무를 것이라 응답하였다. 독거청년이

동네에 머무르게 하는 요소로 다양한 요인이 꼽혔다. ① 장소에 대한 익숙함, ② 이웃(사람)에 대한 익숙함, ③ 교통, 상업, 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 ④ 기타요소가 언급되었다. 특히 익숙함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하는 요소였다. 동네를 살아가며 겪은 경험과 익숙함, 이웃들과의 교류와 이웃에 대한 익숙함이 동네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통, 상업, 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강남 접근성이 좋은 관악구, 샴로수길이라는 소위 ‘핫 플레이스’가 존재한다는 것이 관련된 예이다. 이와 같은 요소 외에도 저렴한 지가, 동네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신선함 등이 언급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웃과의 교류 정도가 ‘나의 동네’에 대한 인식과 정주성 향상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정주의사가 낮은 응답자들의 의견을 통해 정주 장애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① 비자가 거주, ② 좋지 않은 주거 안정성 및 치안, ③ 지역 소속감 부재가 있다. 첫 번째로 현재 거주 형태가 비자가일 경우, 정착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동네를 떠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정주 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주거 안정성을 위협받거나 치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정주 의사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네에서 안정감을 침해받은 경험과 더럽거나 불편한 보행 환경, 범죄 빈도나 사건의 악명성 등이 정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신뢰동이 그 예로 언급되었다. 세 번째로 지역 소속감 부재로 ‘주민’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또한 정주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또는 동네에서 맡은 역할이나 활동이 없기에 주민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인데,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면 비로소 주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독거청년의 지역사회 소속감과 애착, 정주성을 위해선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촉진요소를 활성화하고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웃을 통해 동네에 익숙함을 느끼고, 이웃 교류 정도가 동네 소속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지역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점 등 이웃·커뮤니티 및 연결망 형성과 관련된 많은 응답이 도출되었는데, 이를 통해 생활권 내에 연결망을 갖는 것이 독거청년의 지역사회 소속감, 애착, 정주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독거청년의 사회적 결핍과 소외

### 1) 응답 결과

#### (1) 직장인: 사회성 취약, 외로움 등의 정서적 결핍 및 기능적 결핍 해결시도경험

직장인 독거청년이 겪는 정서적 결핍으로는 ① 두려움 및 불안, ② 사회성 및 심리적 취약, ③ 이웃에 대한 경계, ④ 외로움이 있다. 기능적 결핍으로는 ① 일상적 문제, ② 안전망 부재가 있다. 그들의 기능적 결핍에 대한 해결 시도로는 명상, 세미나 참여, 지인과의 적극적 연락 등의 개인적 시도와 커뮤니티 수준으로 커뮤니티를 찾아 참여하는 것이 언급되었다.

[표 4-13] 직장인의 FGI '사회적 결핍과 소외' 응답 결과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내용                                                                                                         |
|--------|----------|-------------------|------------------------------------------------------------------------------------------------------------|
| 정서적 결핍 | 고충       | 두려움/<br>불안(5)     | - 당장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2)<br>- 인근 관계망 부재로 인한 철저한 소외에 대한 두려움<br>- 사소한 사생활이더라도 혼자이므로 온전히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큼 |
|        |          | 사회성/<br>심리적 취약(3) | - 정신건강이 매우 취약해지고 예민해짐(2)<br>- 사회성이 떨어져 사회생활 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                                                 |
|        |          | 이웃 경계(2)          | -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이웃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을 원천차단하게 됨<br>- 옆집에서 누가 나오면 마주치기 두려워 기다리다가 나옴          |
|        |          | 외로움(1)            | - 일반 가정집을 지날 때 음식 냄새를 맡고 외로움을 느낌                                                                           |
| 기능적 결핍 | 고충       | 일상적 문제(1)         | - 식재료가 남아 버릴 때가 많음                                                                                         |
|        |          | 위험 시<br>안전망 부재(2) | - 죽기 일보 직전/신변 위협을 느낄 때/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음(2)                                                      |
|        | 해결<br>시도 | 개인적 차원(3)         | - 명상/심리콘텐츠를 찾아 나섬<br>- 지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함<br>- 직장인 세미나를 찾아 들음<br>- 연대 및 공존 가능한 공동주거 및 커뮤니티 세미나를 찾음      |
|        |          | 커뮤니티 차원(1)        | - 동네 커뮤니티(동호회)를 찾아 가입 시도                                                                                   |



## (2) 대학(원)생: 정서적 결핍의 적극적 해결 시도 경험

대학(원)생 독거청년이 겪는 정서적 결핍으로는 ① 적막, 공허함이 언급되었다. 그들은 정서적 결핍에 대한 해결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데, 개인적 수준으로는 자연을 통해 힐링을 하거나, 집안일 등의 작은 성취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기존 연락망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였다. 기능적 결핍으로는 ① 사건사고 및 좋지 않은 치안, ② 1인 가구의 한계, ③ 비상시 안전, ④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있다.

[표 4-14] 대학(원)생의 FGI '사회적 결핍과 소외' 응답 결과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내용                                                              |
|--------|-------|--------------|-----------------------------------------------------------------|
| 정서적 결핍 | 고충    | 적막, 공허함(3)   | - 귀가 시 적막, 엘리베이터 안 이웃 간 거리감                                     |
|        | 해결 시도 | 개인적 수준       | - 자연을 통한 힐링<br>- 일상의 작은 성취(예: 집안일, 일기쓰기)등을 통해 정서적 외로움 해소        |
|        |       | 기존 연결망 통한 해결 | - 비상연락망, 온라인 연락 통한 해결<br>- 동네 친구가 없어서 자인마 온라인 술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음(2) |
| 기능적 결핍 | 고충    | 사건사고·치안(2)   | - 여성의 경우 성범죄                                                    |
|        |       | 1인 가구 한계(3)  | - 아플 때, 일상의 소소한 불편                                              |
|        |       | 비상시 안전(1)    | - 사고 및 비상시 도움 요청 불가                                             |
|        |       | 미래에 관한 불안(1) |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불안                                  |

## (3) 무직: 기존 연결망을 통한 정서적 결핍 해결 시도 경험

무직 독거청년이 겪는 정서적 결핍으로는 ① 고독사 상상, 정서적 외로움 등의 막연한 두려움이 언급되었다. 그들은 이에 대한 해결 시도로 기존 연결망을 통해 외로움 해소를 시도한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기능적 결핍으로는 ① 1인 가구 한계, ② 비상시 안전, ③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있었다.

[표 4-15] 무직의 FGI '사회적 결핍과 소외' 응답 결과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내용                                       |
|--------|-------|-----------------|------------------------------------------|
| 정서적 결핍 | 고충    | 막연한 두려움         | - 고독사 상상, 정서적 외로움                        |
|        | 해결 시도 | 기존 연결망 통한 해결(3) | - 기존의 생활권 밖 관계망으로 외로움 해소 시도              |
| 기능적 결핍 | 고충    | 1인 가구 한계(2)     | - 아플 때 간병인 부재<br>- 와이파이가 연결 등 일상의 소소한 불편 |
|        |       | 비상시 안전(1)       | - 사고 및 비상시 도움 요청 불가                      |
|        |       | 미래에 관한 불안(1)    |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불안           |

## 2) 정서적 결핍

### (1) 두려움

“독거노인도, 독거청년도 마찬가지고. 혼자 살면 그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저는 용건이 없으면 연락을 잘 안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회사 사람들도 제가 출근을 안 한다고 해서 집까지 찾아오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 직장인

독거청년이 겪는 정서적 결핍 중 하나로, 막연한 두려움을 의미한다. 설문조사 및 FGI 결과, 인근 관계망 부재로 인한 철저한 소외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한 응답자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찾아와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고독사 상상 등의 막연한 두려움을 다수의 독거청년들이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경계심

“나는 분명 외로운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왜 교류도 못하고 숨는지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주변 사람들이랑 안면 트고 지냈을 때 생길 리스크 같은 것들을 저도 모르게 꺼리고 있더라고요.”

-직장인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적막이나, 외로움 같은 게 느껴지죠.  
근데 요즘 또 세상이 먼저 인사하거나 말 걸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는 말을 여기서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

-대학생

독거청년이 겪는 경계심은 이웃 간 신뢰와 관련한 것으로, 이웃을 경계하고 대면하기를 기피함을 의미한다. 이웃에 대한 경계심 및 거리감은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신뢰 부재를 낳는다. 한 대학생 응답자는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않는 적막 가득한 엘리베이터를 이웃 간 거리감의 예로 제시하였고, 심지어 다른 응답자는 옆집에서 이웃이 나오면 마주치기 두려워 기다리다가 나오기도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생활권 내 신뢰 부재와 이웃에 대한 경계심 사이에 악순환을 낳으며, 결국 독거청년의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성 시도를 막는 장애 요인으로서 작용한다.

### (3) 취약성

“요즘 부쩍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면 사람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약간 망상 초기 그런 거 같아서…  
지금은 그래도 동네에 친한 친구가 있어서 괜찮아졌는데,  
2년 전만 해도 연락하는 사람이 없어서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되면 어쩌지?  
히키코모리처럼 돼서 사회성 다 떨어지고, 사회생활도 못하게 되면 어쩌지?”

-직장인

독거청년 본인의 정신건강이 취약해지거나 사회성이 저하되는 느낌을 가지는 것 또는 이에 대한 불안을 의미한다. 취약성은 특히 직장인 그룹의 인터뷰 응답에서 돋보였다. 응답자들은 1인 가구로서 연락의 낮은 빈도 및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의 지속기간이 길어 지자 ‘성격이 예민해지는 듯한 느낌’ 또는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히키코모리가 된 듯한 느낌’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독거청년이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의 소외와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감정이 심화되어 정신건강 및 사회성 취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4) 기타: 외로움, 공허함

“가정집을 지날 때 나오는 밥 냄새 같은 거? 그럴 때 외로움을 느껴요.”

-직장인

“복작거리게 친구들이랑 놀다왔을 때 기운이 짝 빠지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걸 겪어봐서 넘어가는데 그 때 기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혼자 하루를 보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친구들이랑 선배랑 활발하게 모임도 하고 어울리고 왔는데,  
그렇다고 숙소사에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기분이 공허하고 허무했죠.”

-무직

독거청년은 간헐적으로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지속적인 정서적 결핍은 아니지만, 응답자들은 귀가 시의 적막이나 일반 가정집의 식사 냄새 등이 감정의 촉진제로 역할 한다고 응답하였다.

### 3) 기능적 결핍

#### (1) 일상적 문제: 1인 가구의 한계

“아프면 병원을 가야하는데 연락할 친구나 연인이 없으면,  
혼자 병원을 가야하잖아요.”

-대학생

“음식을 많이 못 사는 게. 햄버거 이런 거. 복숭아도 사면 10kg 이렇게 오니까.”

-대학생

응답자들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 속에서 불편함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가 일상의 사소한 불편이나 충족되지 않는 욕구로 아플 때 간병인이 없는 상황, 식재료가 많이 남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1인 가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문제 상황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욕구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 (2) 안전망 부재

“만약에 나 죽으면... 그런 생각할 때 좀 불안하더라고요.  
어,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원룸이 특히 그런 게 심하죠...”

-대학생

독거청년은 안전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다.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건강악화로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불안을 느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사건사고 및 치안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고 큰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성범죄에 있어서 강한 위협감을 느낌을 발견했다. 사건사고의 가능성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처할 연결망이 부재한 독거청년들이 사회안전망에 대해 불안해함을 확인할 수 있다.

#### (3) 미래에 대한 불안

“청년이라는 지금 시기가 모든 게 불확실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것도 없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고민하거든요,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별게 다 불안해요.”

- 대학생

미래에 대한 불안은 대학(원)생 그룹에서 돋보이는 응답이다. 대학(원)생 그룹은 청년 고용 문제가 심화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및 진로 및 취업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끊임없는 경쟁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기능적 결핍 요소로 작용함을 발견할 수 있다.

#### 4) 소결: 생활권 내 신뢰 기반 연결망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결핍

독거청년이 겪는 사회적 결핍은 정서적 결핍과 기능적 결핍 둘로 나뉜다. 정서적 결핍으로는 (1) 두려움, (2) 경계심, (3) 취약성, (4) 공허함, 외로움이 있으며, 기능적 결핍으로는 1인 가구로서 느끼는 한계인 (1) 일상적 문제와 (2) 안전망 부재, (3)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존재한다.

독거청년은 그들이 느끼는 정서적 결핍 해소를 위해 적극적 시도를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심리 관련 세미나를 수강하거나 커뮤니티에 가입하기도 하며, 기존의 관계망으로 정서적 결핍 해소를 위한 시도를 한다. 또한 개인적 수준으로서, 명상 등의 심리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자연을 통한 힐링, 일상의 작은 성취(집안일, 일기쓰기 등)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는 외로움에 익숙해져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는 것을 포기하였다고 응답했다.

독거청년이 느끼는 사회적 결핍은 모두 생활권 내 신뢰 기반의 연결망 부족으로 인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독거청년은 그들의 결핍 해소를 위한 연결망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지만 특히 이웃에 대한 신뢰 부재(경계심)로 인해, 연결망 형성에 대한 큰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3. 독거청년은 공동체를 원하는가

#### 1) 응답 결과

##### (1) 직장인: 지역의제형 공동체 욕구도 존재

직장인 독거청년은 공동체에 대한 호의적인 편이었으며 정서적 효과에도 동의하였다. 그들은 관심사중심형과 생활이슈형 공동체에 욕구를 표했으며 대학(원)생, 무직 그룹과 달리, 지역의제형 공동체에도 욕구를 표했다. 구성원 범위로는 같은 건물의 이웃을 기피하며 동 단위 또는 지하철역 거리 단위의 이웃을 희망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참여할 때 겪는 장애 요인으로는 ① 사생활 노출의 부담, ② 동기부여 부족, ③ 신뢰 부재 및 부담감, ④ 세대 차이 두려움 및 불편, ⑤ 교류 기회의 부재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그들은 공동체를 통해 일상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길 기대하고 있다.

[표 4-16] 직장인의 FGI '공동체 욕구' 응답 결과

| 구분1    | 구분2                                  | 내용                                                                                                                 |
|--------|--------------------------------------|--------------------------------------------------------------------------------------------------------------------|
| 공동체 욕구 | 호의적 태도(2)                            | - 함께 밥 먹고 반주할 이웃/동네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br>- 동네 공동체 및 이웃에 대한 향수가 있음                                                  |
|        | 정서적 효과 동의(3)                         | - 안전/치안에 대한 불안감 완화<br>- 정서적 안정감 기대                                                                                 |
| 공동체 유형 | 관심사중심형(4)                            | - 상호 간 부담감 없고 편안한 분위기의 동네 커뮤니티 희망<br>- 밤 10시가 넘어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느슨한 산책/밥모임                                           |
|        | 생활이슈형(3)                             | - 실생활 팁, 습관모임, 생활스터디 등 연대 시 시너지가 나는 모임<br>- 비상연락망                                                                  |
|        | 지역의제형(3)                             | - 동네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청년 독서모임<br>- 환경개선,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생활의제 관련 개선/실천모임                                                     |
| 구성원 범위 | 같은 건물 기피(2)<br>동 단위(1)<br>지하철역 단위(1) | - 같은 건물에서는 굳이 관계망을 만들고 싶지 않음(2)<br>- 동 단위 생활권 커뮤니티 희망(1)<br>- 지하철역 2~3개까지는 동네 커뮤니티라고 생각함(1)                        |
| 장애 요인  | 사생활 노출 부담(3)                         | - 사생활 영역 노출/이웃 간 인사 부담스러움(3)                                                                                       |
|        | 동기부여 부족(2)                           | - 계속 정주할 동네가 아니기에 이웃 관계에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음<br>- 모임의 목적/성격에서 벗어났을 시 참여 의향이 떨어짐                                           |
|        | 신뢰 부재<br>/부담감(5)                     | - 낯선 타인에 대한 경계심/유대관계를 위해 발생하는 부담감(4)<br>- 관계의 목적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커뮤니티 관한 거부감/부담감<br>-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으므로 이웃 관계 형성에 소극적이게 됨 |

| 구분1         | 구분2             | 내용                                                                            |
|-------------|-----------------|-------------------------------------------------------------------------------|
|             | 세대 차이 불편(2)     | - 세대 간 모임문화의 차이 때문에 불편함 발생                                                    |
|             | 교류 기회 부족(1)     | - 실제 대면기회 적어 동네에 머무는 기성세대와 교류 힘들                                              |
| 기대<br>사항/효과 | 일상적<br>문제 해소(4) | -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산책/밥모임 등 부담없이 만날 수 있음(3)<br>- 집/계약 문제 등 실생활 도움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음    |
|             | 정서적<br>문제 해소(4) | - 일과 후 대화할 일이 전혀 없는데, 간단한 대화 가능해 좋음(1)<br>- 동네에서 느끼는 위협에 대한 심리적 완화/정서적 안정감(3) |

## (2) 대학(원)생: 지역 의제 발굴 목적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 부재

대학(원)생 독거청년은 공동체에 대한 호의적인 편이었다. 그들은 인터뷰 초반엔 공동체의 정서적 효과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후반에는 공동체를 통해 정서적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해소하길 기대하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관심사중심형과 생활이슈형 공동체에 욕구를 표했으며 지역의제형 공동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구성원 범위로는 생활영역이 같지 않은 구성원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참여할 때 겪는 장애 요인으로서는 ① 생활권 내 공동체 형성에 대한 두려움, ② 신뢰 부재, ③ 지속성에 대한 의심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그들은 공동체를 통해 일상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길 기대하고 있다.

[표 4-17] 대학(원)생의 FGI '공동체 욕구' 응답 결과

| 구분1      | 구분2                        | 내용                                                                                                                                    |
|----------|----------------------------|---------------------------------------------------------------------------------------------------------------------------------------|
| 공동체 욕구   | 호의적 태도(5)                  | - 공동체 형성 자체에 대한 호의적 태도                                                                                                                |
|          | 정서적 효과 동의(1)               | - 정서적 유대를 통한 긍정적 효과 동의                                                                                                                |
| 공동체 유형   | 관심사중심형(5)                  | - 자기계발, 취미, 공감대 등의 개인적 목적 달성 기반의 공동체<br>- 비슷한 선호를 가진 커뮤니티<br>- 과업 및 일에서 벗어나 실생활 도움 및 힐링할 수 있는 커뮤니티<br>- 상호 공감 및 정서적 유대를 위한 또래 구성의 공동체 |
|          | 생활이슈형(2)                   | -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br>예) 여분의 배달음식, 야채 및 과일 나누기                                                                                    |
|          | 지역의제형(0)                   | - 지역의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공동체에 대한 욕구 없음                                                                                                      |
| 구성원 범위   | 생활영역이 겹치지<br>않는(5)         | - 같은 건물의 이웃에 대한 부담감 및 두려움으로 인한 거부감<br>- 커뮤니티마다 쓰고 싶은 자신의 영역이 정해져있음<br>- 자신에 대한 상대의 선부른 판단에 대한 부담 존재                                   |
| 장애<br>요인 | 생활권 내 공동체<br>형성에 대한 두려움(5) | - 구성원 간 신뢰 및 공동체 지속에 대한 미확신                                                                                                           |
|          | 신뢰(5)                      | - 신뢰 부재, 부담감과 어색함 등 감정적 불편함 존재                                                                                                        |
|          | 지속성(1)                     |                                                                                                                                       |

| 구분1             | 구분2             | 내용                                                                     |
|-----------------|-----------------|------------------------------------------------------------------------|
| 기대<br>사항/<br>효과 | 일상적<br>문제 해소(4) | - 일상에서 겪는 여러 문제와 사회적 연결망의 관련성을 느낌<br>- 여분의 배달음식이나 야채, 과일 등을 이웃과 나누고자 함 |
|                 | 정서적<br>문제 해소(4) | - 외로움을 느낄 때 지인과의 연락을 통해 해소<br>- 운동 및 취미 커뮤니티를 통해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한 경험이 있음.  |

### (3) 무직: 대학생과 비슷한 패턴의 공동체 욕구

무직 독거청년은 공동체에 대한 호의적이며 공동체를 통한 정서적 효과에도 동의하였다. 그들은 관심사중심형과 생활이슈형 공동체에 욕구를 표했으며 지역의제형 공동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구성원 범위로는 근거리의 이웃은 기피하고 싶으며 구성원의 연령은 상관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참여할 때 겪는 장애 요인으로는 ① 신뢰 부재, ② 인위성, 책임감, 부담감 기피 등이 언급되었다. 또한 그들은 공동체를 통해 일상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길 기대하고 있다.

[표 4-18] 무직의 FGI '공동체 욕구' 응답 결과

| 구분1         | 구분2              | 내용                                                                                              |
|-------------|------------------|-------------------------------------------------------------------------------------------------|
| 공동체 욕구      | 호의적 태도(3)        | - 실생활 도움 주고받는 것에 적극적<br>- 이웃 형성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br>- 공통된 관심사가 동네라는 데에 긍정적                           |
|             | 정서적 효과 동의(1)     | - 이웃, 공동체가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
| 공동체 유형      | 관심사중심형(3)        | - 취미 공유 등으로 친목을 목적으로 함<br>-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베이킹 등의 클래스                                              |
|             | 생활이슈형(1)         | - 식사 모임 및 실생활의 불편한 점 해소                                                                         |
|             | 지역의제형(0)         | - 지역의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공동체에 대한 욕구 없음                                                                |
| 구성원 범위      | 근거리 이웃 기피(2)     | - 신뢰성 부재로, 일상 불편함 야기 가능한 초근거리 이웃 기피                                                             |
|             | 나이 무관(3)         | - 구성원의 나이는 크게 중요치 않음. 콘텐츠가 중요                                                                   |
| 장애 요인       | 신뢰 부재(3)         | - 이웃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같이 나가는 것을 꺼림<br>- 신뢰뿐만 아니라 이웃 상호 간의 존재 인식 자체가 부재<br>- 이웃, 지역 공동체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
|             | 인위성, 책임감, 부담감 기피 | - 인위적 친목에 대한 거부감 있음<br>- 관계 혹은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은 기피<br>- 인사하기에 어색한 사이는 부담스러우며 정서적으로 피로함(2)           |
| 기대<br>사항/효과 | 일상적 문제 해소(2)     | - 실생활 도움: 택배 대리 수령, 식사 등                                                                        |
|             | 정서적 문제 해소(3)     | - 외로움 해소: 맥주 한잔 할 친구가 생길 수 있음<br>- 정주에 직접적 영향 미치는 요인 될 가능성 존재                                   |



## 2) 생활권 내/외 사회적 연결망 현황

[표 4-19] 설문조사 응답자 그룹별 생활권 내/외 사회적 연결망 현황

| 구분1   | 구분2     | 직장인 |    |    |    | 대학(원)생 |    |    |    |    | 무직 |     |    |
|-------|---------|-----|----|----|----|--------|----|----|----|----|----|-----|----|
|       |         | A   | B  | C  | D  | A      | B  | C  | D  | E  | A  | B   | C  |
| 생활권 내 | 총 연결망 수 | 0   | 0  | 5  | 4  | 4      | 3  | 9  | 15 | 2  | 2  | 11  | 1  |
|       | 신뢰 기반 수 | 0   | 0  | 2  | 2  | 2      | 1  | 5  | 3  | 1  | 2  | 5   | 1  |
| 생활권 외 | 총 연결망 수 | 20  | 10 | 50 | 36 | 22     | 31 | 29 | 21 | 33 | 2  | 270 | 72 |
|       | 신뢰 기반 수 | 5   | 1  | 15 | 10 | 5      | 18 | 17 | 1  | 9  | 1  | 7   | 42 |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생활권 내/외 사회적 연결망 현황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표4-19]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생활권 내 총 연결망 수와 신뢰 기반 연결망 수, 생활권 외 총 연결망 수와 신뢰 기반 연결망 수의 비교를 통해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 신뢰 기반 연결망이 거의 부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독거청년은 평균 2개의 생활권 내 신뢰 기반 연결망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10.9개의 생활권 외 신뢰 기반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

## 3) 사회적 연결망 형성 경로

[표 4-20] 독거청년 생활권 내/외 사회적 연결망 형성경로

| 응답         | 생활권 내 |     |     |      | 생활권 외 |     |     |      |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가중치계 |
| 지인(개인)의 소개 | 0     | 2   | 3   | 700  | 0     | 5   | 1   | 1100 |
| 직장(학교)     | 8     | 1   | 0   | 2600 | 10    | 1   | 1   | 3300 |
| 종교 관련 모임   | 0     | 0   | 0   | 0    | 0     | 1   | 0   | 200  |
| 친목모임/동호회   | 1     | 4   | 1   | 1200 | 0     | 5   | 3   | 1300 |
| 사회연대/시민단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주민직능단체     | 0     | 0   | 0   | 0    | 0     | 0   | 0   | 0    |
| 인터넷(SNS)   | 0     | 0   | 1   | 100  | 0     | 0   | 2   | 200  |
| 인근 거주      | 2     | 1   | 1   | 900  | 0     | 0   | 1   | 100  |
| 혈연         | 1     | 0   | 0   | 300  | 2     | 0   | 0   | 600  |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외 사회적 연결망 형성경로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표 4-20]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1순위 응답엔 300, 2순위 응답엔 200, 3순위 응답엔 100

의 가중치를 곱하여 독거청년의 사회적 연결망 형성경로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생활권 내 형성경로의 1순위는 직장(학교)이며, 2순위는 친목모임/동호회, 3순위는 인근 거주이다. 생활권 외 형성경로의 1순위는 직장(학교)이며, 2순위는 친목모임/동호회, 3순위는 지인(개인)의 소개이다. 이를 통해 생활권 내/외를 막론하고 직장(학교), 친목모임/동호회가 독거청년 사회적 연결망 형성경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이 '인근 거주'의 이유로 형성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웃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던 청년에게도 이웃 형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4) 공동체 욕구

##### (1) 공동체에 대한 호의적 태도 및 정서적 효과에 대한 동의

“동네 커뮤니티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감,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통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많이 유익할 것 같아요.”

-무직

대부분의 독거청년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 FGI를 실시한 독거청년 12명 중 총 11명이 공동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이웃이 생긴다는 점, 동네를 매개로 모여 공동 관심사가 동네라는 점, 일상을 함께 하거나 생활 속 소소한 불편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근거였다. FGI인터뷰 초반, 공동체의 정서적 효과 질문에 대한 태도는 그룹별로 상이하였다. 직장인과 무직 그룹의 경우, 공동체의 정서적 효과에 동의하며, 생활권 내 공동체를 통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고 외로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직장인과 무직 그룹의 응답자들은 안전망 부재로 인한 불안이나 정서적 결핍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생 그룹의 경우, 일상적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해선 동의하였지만, 정서적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에 비관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공동체 관련 질문이나 논의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욕구와 기대들이 대학생 응답자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했다.

## (2) 사회적 연결망 욕구

[표 4-21]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욕구

| 구분     | 귀하는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을 원하십니까? |            |        |           |    |
|--------|---------------------------|------------|--------|-----------|----|
|        | 매우 원하지 않는다(1)             | 원하지 않는다(2) | 원한다(3) | 매우 원한다(4) | 평균 |
| 직장인    | 0                         | 0          | 4      | 0         | 3  |
| 대학(원)생 | 0                         | 0          | 5      | 0         | 3  |
| 무직     | 0                         | 0          | 3      | 0         | 3  |
| 합계     | 0                         | 0          | 12     | 0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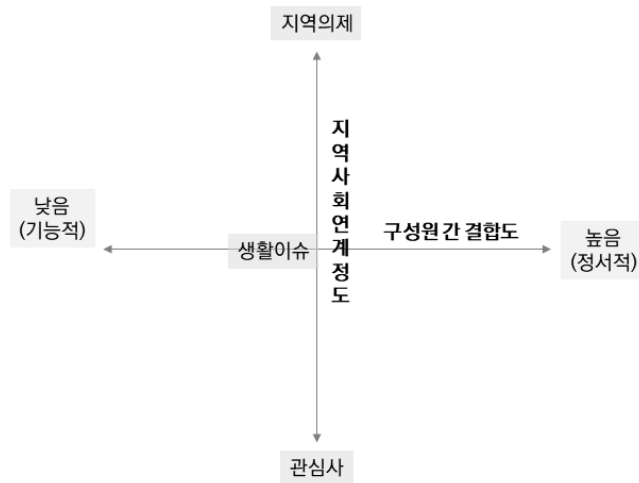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표 4-21]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리커트식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욕구가 강할수록 4점, 원치 않을수록 1점을 부여하였다. 독거청년 전체 평균은 3점으로 전체적으로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욕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설문조사 응답자 모두 '원한다(3점)'를 택한 것으로 극단적으로 강한 욕구는 아니나 모두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 5) 공동체 유형

### (1) 공동체 유형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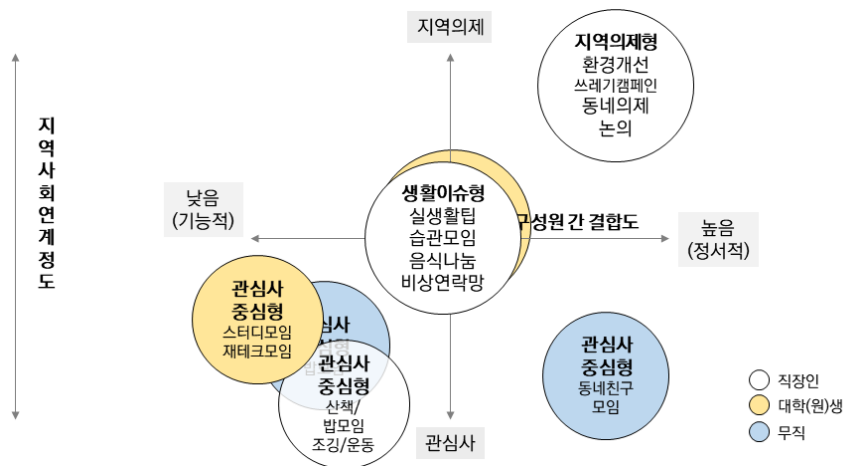
[그림 4-1]은 공동체 욕구 관련 FGI 응답결과를 중심으로 공동체 유형 분류를 도식화한 것이다. X축은 구성원 간 결합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낮을수록 기능적 도움을 받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높을수록 정서적 도움을 받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Y축은 지역사회연계도를 나타낸다. 지역사회연계정도가 낮을수록 관심사중심형 공동체에 가까우며, 중립적일 경우 생활이슈형, 높을수록 지역의제형 공동체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그림 4-1] 공동체 욕구 중심 공동체 유형 분류 틀<sup>46)</sup>

FGI 그룹별로 나타난 공동체 유형은 [그림 4-2]와 같이 분류된다. 먼저 직장인의 경우 구성원 간 결합도가 낮아 기능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연계정도가 낮은 관심사중심형부터 구성원 간 결합도 및 지역사회연계정도가 중립적인 생활이슈형, 각각의 정도가 높은 지역의제형 공동체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공동체 욕구를 보였다. 그러나 대학(원)생과 무직 그룹의 경우 지역의제형 공동체 욕구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으며 관심사중심형과 생활이슈형에 욕구가 머무름을 확인할 수 있다.

<sup>46)</sup> \*구성원 간 결합도\_정성훈(2007),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미, 10p 공동체유형 표 내 개념적 정의 재구성.  
\*지역사회 연계 정도\_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목표 및 지원사업의 프로세스'를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4-2] 공동체 욕구 중심 공동체 유형 분류

\*fgi 응답결과 재구성

## (2) 관심사중심형

“공동 관심사가 있어야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오래 가더라고요.”

-무직

관심사중심형 공동체는 독거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공동체 유형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상호 간 부담이 없고 편안한 분위기의 동네 커뮤니티를 희망하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거나, 같은 취미와 선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독거청년은 개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힐링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편안한 분위기, 같은 취미와 선호를 매개로 모여 실생활에 도움을 받거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관심사중심형 공동체의 예로 일일클래스(간단히 즐길 수 있는 베이킹 등의 클래스), 산책모임, 재테크 모임 등을 언급하였다.

### (3) 생활이슈형

“일과 후 밤늦게 일상에서 누구 하나 밥 먹을 사람 불러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 친구는 멀고, 이 지역에 살고 그 시간에 연락을 해도 부담스럽지 않을 만한 관계?  
혹은 밥 먹고 나서 서울대에서 산책 한번 하고 싶은 데 그럴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티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직장인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동산모임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재테크모임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꼬박꼬박 나가서 어쨌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 대학생

생활이슈형 공동체는 관심사중심형 다음으로 독거청년이 선호하는 공동체 유형으로 나타났다. 생활이슈형 공동체는 실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거나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며 연대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모임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은 앞선 사회적 결핍 관련 응답에서,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부재로 인해 야기된 일상적 문제 또는 안전망 부재의 기능적 결핍을 호소한 바 있다. 독거청년은 생활이슈형 공동체를 통해 그러한 기능적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권 내 공동체를 통해 실생활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응답자들은 생활이슈형 공동체의 예로 습관모임, 생활스터디, 비상연락망, 식재료 및 배달음식 나누기 모임 등을 언급하였다.

### (4) 지역의제형

“환경개선 같은 것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중략)  
그런 거에 대한 캠페인 같은 거 참여할 의지가 되게 있고요.

-직장인

“저 같으면 관악구 문제나 의제를 발굴하는 건 잘 안할 것 같아요.  
관악구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삶의 여유가 없을 것 같고..  
의제를 발굴하고 그런 건 잘 안할 것 같은.”

-대학생

지역의제형 공동체는 지역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지역의제형 공동체 유형에 대한 독거청년의 관심도는 그룹별로 상이하였지만,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직장인 그룹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지역의제형 공동체 유형에 호의적이었다. 직장인 응답자들은 동네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청년 독서

모임이나, 환경개선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생활 의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임을 언급하며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대학(원)생과 무직 그룹의 경우 어떠한 응답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개인으로서 지역의제 발굴이나 해결에도 관심이 없으며, 공동체를 통한 지역의제 해결엔 더욱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 6) 사회적 연결망 및 공동체 요구사항

### (1) 물리적 범위: 근거리 이웃 기피

“저도 생활권보다는 관악구나 조금 벗어난 곳에서 많이 만나요.  
일부러 반 의도치 않은 거 반. 너무 친밀도를 생활권 내에 가지면  
준비하는 것들을 방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절한 거리를 두려했어요.”

-무직

대다수의 독거청년들이 근거리의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거리낌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이웃에 대한 신뢰 부재로 인해, 일상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는 너무 가까운 거리의 이웃은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같은 건물의 경우, 더욱더 큰 거부감을 드러냈다. 같은 건물 내의 관계망을 굳이 만들고 싶지 않으며 신뢰가 부재한 상태에서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대학생 그룹의 경우, 응답자 모두 생활영역이 겹치는 이웃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비호의적이었다. 이에 대한 이유로 커뮤니티마다 쓰고 싶은 자신의 영역이 정해져 있고, 자신에 대한 상대의 선부른 판단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웃 간 신뢰 부재와 경계심, 유대 형성의 장 부재로 인해 근거리의 이웃과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 및 거부감 심지어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희망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물리적 범위로는 ① 동 단위의 커뮤니티, ② 지하철역 2~3개 정도의 거리가 제시되었다.

## (2) 교류 정도

[표 4-22] 독거청년이 요구하는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교류 정도

| 구분     |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의 교류(오프라인)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월 1회 이하(1)                                       | 월 2~3회(2) | 주 1회(3) | 주 3회 이상(4) | 평균  |
| 직장인    | 0                                                | 2         | 2       | 0          | 2.5 |
| 대학(원)생 | 2                                                | 3         | 0       | 0          | 1.6 |
| 무직     | 0                                                | 3         | 0       | 0          | 2   |
| 합계     | 2                                                | 8         | 2       | 0          | 2   |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독거청년이 요구하는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교류 정도를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표4-2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리커트식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월 1회 이하의 교류 정도를 원하면 1점, 월 2~3회일 경우 2점, 주 1회일 경우 3점, 주 3회 이상일 경우 4점을 부여하였다. 독거청년 전체 평균은 2점으로, 67%(12명 중 8명)의 응답자가 ‘월 2~3회’의 교류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그룹 응답자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수치 2.5로 직장인 4명 중 2명은 ‘주 1회’의 교류 정도를 원했다. 반대로 대학(원)생 그룹 응답자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수치 1.6으로 대학(원)생 5명 중 2명은 ‘월 1회 이하’의 교류 정도를 원했다.

## 7) 장애 요인

### (1) 신뢰 부재

“앞집에서 문소리 나면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나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신뢰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자랑 동떨어진 이야기라...”

-무직

생활권 내 공동체 형성의 장애 요인으로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장애요소는 ‘신뢰 부재’이다.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으므로 이웃 관계 및 공동체 형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낯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은 사생활 노출에 대한 부담으로도 작용한다. 신뢰뿐만 아니라 이웃 상호 간 존재 인식 자체가 부재하다는 응답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태로 인하여 한 응답자는 이웃 또는 지역 공동체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2) 부담감

“안 겹치는 사람이랑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랑 모임에 모임 외적으로 지나가다가 만나면 애매한 것 같은,  
갑자기 마주치니까. 할 말도 없고.”

-대학생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담감과 그로 인한 거부감 또한 신뢰 부재와 함께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관계의 목적성을 가지고 맺게 되는 커뮤니티와 인위적 친목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이 있으며, 유대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색함과 정서적 피로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거청년은 관계 및 커뮤니티 관련 책임에 대한 부담도 기피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 (3) 기타요인

### ① 동기부여 부족

독거청년은 생활권 내 공동체 형성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 이는 정주 의향과도 관련이 있는데 한 응답자는 계속 정주할 동네가 아니기에 이웃 관계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공동체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공동체의 목적이나 성격이 본인의 욕구와 관련이 없을 시 참여 의향이 생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 ② 세대차이-모임문화 및 교류기회 부족

세대 간 모임문화의 차이가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과 동네에 오랜 기간 정주해 왔던 기성세대와 교류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 세대 차이를 낳는다고 응답하였다. 모임 문화의 차이와 교류기회 부족으로 인해 생활권 내에서 기성세대와 함께 공동체를 꾸리는 것에 장애 요인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 ③ 공동체 지속에 대한 미확신

누가, 무엇을 매개로 공동체를 지속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 부재로 인하여 공동체 형성 및 참여에 비관적 인식을 갖는다.

## 8) 기대사항/효과

### (1) 일상적 문제 해소

“처음에 제가 독거청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회적 연결망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질문들 말하면서 생각보다 느껴지는 바가 많더라고요. 사실 관악구에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했구나. 친구들은 있지만 동네에서 정작 교류하는 사람이 없구나 생각이 들면서… (중략) 일상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이 다 이런 것들이구나.

-대학생

인터뷰 대상자 모두 생활권 내 공동체를 통해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생활 속 사소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응답자들이 생활권 내 공동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일상의 문제로는 여분의 배달음식과 식재료를 나누는 것, 택배 대리 수령,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집/계약 문제 등 실생활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받는 것, 시간적 제약 없이 산책을 함께 하는 것 등이 있다. 한 응답자는 일상에서 겪는 여러 문제와 사회적 연결망의 관련성을 인터뷰를 통해 느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 (2) 정서적 결핍 해소

“제가 독서토론모임을 했었는데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아서. 그런 공동체가 이웃공동체라면 맨날 갈 것 같아요. 돈을 주고서라도 갈 것 같아요.”

- 대학생

인터뷰 대상자 모두 생활권 내 공동체를 통해 독거청년으로서 느끼는 정서적 결핍의 대부분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이에 대한 근거로 외로움을 느낄 때 지인의 연락이 도움이 된다는 점, 운동 및 취미 커뮤니티를 통해 정서적 외로움을 해소한 경험이 있다는 점, 퇴근 후 누군가와 스몰토크를 통해 얻은 긍정적 정서 효과 경험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응답자들은 정서적 결핍해소뿐만 아니라 정주와 관련지어 응답하기도 하였다. 생활권 내 공동체를 통해 동네에서 느끼는 안정성 위협에 대한 심리적 완화와 정서적 안정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주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 9) 소결 : 청년은 분명 공동체를 원한다

독거청년은 공동체에 관해 호의적이다. 그들은 공동체의 순기능에 대한 경험이나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네를 매개로 모여서 이웃을 형성하고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기능적 결핍을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직장인과 무직 응답자들의 경우 정서적 기능에도 동의하였지만 대학생 그룹의 경우 인터뷰 초반의 의견이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공동체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서적 효과나 해소하고자 하는 정서적 결핍을 이야기하며 공동체의 정서적 순기능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동체의 주목적과 활동에 따라 (1) 관심사중심형, (2) 생활이슈형, (3) 지역의제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독거청년이 원하는 공동체 유형은 전체적으로 (1) 관심사중심형, (2) 생활이슈형으로 응답되었다. 특히 관심사중심형 공동체는 독거청년 모두가 선호하는 공동체 유형으로 자기계발, 취미활동, 비슷한 공감대, 힐링, 친목 등의 활동이 주목적이다. 생활이슈형 공동체의 경우 일상의 사소한 불편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형으로, 연대를 통해 더욱더 큰 시너지를 얻기 위한 모임이다. 독거청년은 이렇게 관심사중심형 생활이슈형 공동체를 통해 정서적, 기능적 결핍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지역의제형의 공동체의 경우, 직장인 그룹 외에 다른 그룹에서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의제형 공동체는 지역의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공동체 유형인데, 대다수의 독거청년은 이에 대한 수요가 없었다. 이는 독거청년의 낮은 정주성이나 지역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애착과 관련이 있으며, 독거청년의 경우 비교적 해당 인식이나 주관적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의제형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적은 것으로 보인다.

독거청년이 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근거리, 특히 같은 건물 내에서 이웃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여러 장애 요인으로부터 야기된다. 이때 장애 요인은 생활권 내 공동체 형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형성 자체에 대한 장애 요인이며 물리적 범위가 좁은 연결망 및 공동체 일수록 장애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

독거청년이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언급한 것들을 총 세 분류로 나눴다. (1) 신뢰 부재, (2) 부담감, (3) 기타 요인이다. 특히 신뢰 부재의 문제는 기초적 장애요소로 대부분의 장애요소를 야기하기도 한다. 독거청년은 신뢰가 부재한 상태에선 어쩔 수 없이 낯선 타인을 경계하게 되고 개인의 생활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게 된다고 답했다.

이러한 신뢰가 부재한 상황은 이웃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감 및 거부감으로 이어진다.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친목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답한 것이 그 근거이다. 신뢰 부재의 문제와는 별개로, 독거청년에게 유대 형성 과정에서 존재하는 정서적 피로와 관계나 커뮤니티 관련 책임을 지는 것도 부담이 된다. 이러한 큰 두 개의 장애요소 외에도 언급된 장애요소로는 동기부여 부족, 모임문화 및 교류 부족으로 인한 세대차이, 공동체 지속에 대한 미확신이 있다.

공동체 형성과 참여를 위한 여러 장애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독거청년은 공동체를 통해 누리고자 하는 효과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다. 그들은 일상에서 겪는 여러 문제를 공동체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며, 뿐만 아니라 심리적 완화, 정서적 안정 효과를 얻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정주 의지나 지역 애착을 형성하기를 기대한다.

## 4. 독거청년은 어떤 정책지원을 원하는가

### 1) 설문조사 응답결과

#### (1) 공동체 정책 인식 정도:

[표 4-23] 독거청년의 공동체 정책 인식 정도

| 구분1    | 구분2 | 모임 형성 지원 | 활동 지원 | 공간 지원 | 평균   |
|--------|-----|----------|-------|-------|------|
| 직장인    | A   | 1        | 1.29  | 1.25  | 1.18 |
|        | B   | 1.5      | 1.29  | 1.63  | 1.47 |
|        | C   | 1.5      | 1.43  | 1.13  | 1.35 |
|        | D   | 1.5      | 1.43  | 1.38  | 1.44 |
| 대학(원)생 | A   | 1.5      | 1.43  | 1.00  | 1.31 |
|        | B   | 1        | 1.00  | 1.00  | 1.00 |
|        | C   | 1        | 1.00  | 1.50  | 1.17 |
|        | D   | 1        | 1.29  | 1.13  | 1.14 |
|        | E   | 1        | 1.00  | 1.13  | 1.04 |
| 무직     | A   | 1        | 1.29  | 1.00  | 1.10 |
|        | B   | 1        | 1.43  | 1.13  | 1.19 |
|        | C   | 1        | 1.71  | 1.63  | 1.45 |
| 평균     |     | 1.17     | 1.30  | 1.24  | 1.24 |

\*설문조사 응답 결과 재구성

독거청년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모임 형성·활동·공간 지원 공동체 정책들에 관해 인지정도를 묻은 결과를 [표 4-23]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리커트식 3점 척도를 사용했으며 응답은 ‘전혀 모른다’ 1점, ‘이름만 들어봤다’ 2점, ‘잘 알고 있다’ 3점으로 적용해 계산하였다. 그 결과 독거청년들은 공동체 정책 전반에 관해 얕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전반이 인지와 관련해 이름이 익숙한 정도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공동체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크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 2) FGI 응답 결과

### (1) 직장인: 공간 지원, 장소 및 주최의 신뢰성 요구

직장인 독거청년은 첫째, 참여 경로 확대 측면에서 ① 공간, ② 정보제공, ③ 참여시간대 확대의 지원이 필요하며 둘째, 모임 계획 및 운영 측면에서 ① 모임 발굴 및 형성, ② 모임 운영, ③ 전문 강사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 형성 지원 측면에서 ① 주최의 신뢰성, ② 장소의 신뢰성, ③ 사회적 공감대와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24] 직장인의 FGI '정책 수요' 응답 결과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내용                                                                                                                                                             |
|----------|-----------------------|-----------------|----------------------------------------------------------------------------------------------------------------------------------------------------------------|
| 정책<br>수요 | 참여<br>경로<br>확대        | 공간 지원           | - 청년 공간 이음 등 기존 공간은 협소해 잘 가지 않게 됨<br>- 생활권 반경 내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없음(자율방범대 등 자치<br>모임의 공간 언급). 노인정과 같은 청년층을 위한 공간 필요<br>- 플랫폼 공간 필요<br>- 아이디어가 있을 때 실행할 수 있도록 공간 지원 |
|          |                       | 정보제공            | - 공동 공감대/관심사에 대한 정보 부족(3)<br>- 공동 공감대/관심사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자발적 커뮤니티<br>발생이 한계적이며 모임 계획 시 진입장벽 발생(3)<br>- 공공/민간 '청년' 관련 정책, 모임 정보, 공동관심사 정보가 모이는<br>온/오프라인 플랫폼     |
|          |                       | 참여시간대<br>확대     | - 청년/직장인이 참여 가능한 시간대 프로그램 없음.<br>- 동 주민센터 내 도서관이 7시까지라 이용에 불편.                                                                                                 |
|          | 모임<br>계획/<br>운영<br>지원 | 모임 발굴<br>/형성 지원 | - 직접적인 금액 지원보다 공동체 형성 및 심리 안정 등 공동체/문화<br>정책을 통한 간접 지원 희망                                                                                                      |
|          |                       | 모임 운영 지원        | - 모임 운영 및 계획 시 컨설팅 지원                                                                                                                                          |
|          |                       | 전문강사비 지원        | - 부동산 등 실생활 정보로 모임 촉진 가능한 프로그램 희망                                                                                                                              |
|          | 신뢰<br>형성<br>지원        | 주최의 신뢰성         | - 민간 영역의 커뮤니티의 경우 사건/사고에 대한 안전망 부족 및<br>책임 소재 불분명<br>- 신뢰감 있는 기관/그룹의 지속적인 공동체 형성 발굴 및 촉진<br>필요<br>- 공공에서 주관할 경우 전문성/다양성 부족 및 흥미도가 떨어짐                          |
|          |                       | 장소의 신뢰성         | - 주민센터 등 공공에서 장소 제공 시 신뢰감 형성될 것                                                                                                                                |

## (2) 대학(원)생: 지역의제형 공동체 향한 관심 부재, 공간 및 신뢰 형성 지원의 요구

대학(원)생 독거청년은 첫째, 참여 경로 확대 측면에서 ① 공간, ② 정책 목적의 전환, ③ 신청 절차의 완화 및 지원이 필요하며 둘째, 모임 계획 및 운영 측면에서 ① 모임 운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 형성 지원 측면에서 ① 구성원 필터링 장치, ② 검증된 구성원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25] 대학(원)생의 FGI '정책 수요' 응답 결과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내용                                                                              |
|----------|-----------------------|------------------------------------|---------------------------------------------------------------------------------|
| 정책<br>수요 | 참여<br>경로<br>확대        | 공간 지원                              | - 24시간 공간에 대한 욕구                                                                |
|          |                       | 정책 목적<br>전환 요구                     | - 지역사회 의제발굴에 대한 청년의 관심 부재 관심 및 수요에 부합<br>하지 않는 정책 목적                            |
|          |                       | 복잡 절차 완화 (3)<br>신청에 도움 필요(2)       | - 복잡한 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br>- 모임 계획서 샘플 및 자원 컨설턴트 도움 제공                               |
|          | 모임<br>계획/<br>운영<br>지원 | 모임 운영 지원                           | - 운영 가이드라인 배부, 운영 평가와 피드백 제공                                                    |
|          | 신뢰<br>형성<br>지원        | 구성원 필터링 및<br>검증된 구성원에<br>대한 요구 (5) | - 홍보 플랫폼을 통해 모임이 요구·선호하는 구성원 모집 (3)<br>- 사전 모임을 통한 구성원 검토와 커뮤니티 맛보기를 통한 필터링 (4) |

## (3) 무직: 공간, 청년 대표성 및 신뢰 형성 지원 요구

무직의 독거청년은 첫째, 참여 경로 확대 측면에서 ① 공간, ② 정보 제공, ③ 신청 절차의 완화 지원이 필요하며 둘째, 모임 계획 및 운영 측면에서 ① 회계 및 금전지원과 관련한 투명성, ② 청년 및 지역 등의 대표성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신뢰 형성 지원 측면에서 ① 사회적 분위기 형성, ② 검증된 주치의 신뢰성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26] 무직의 FGI '정책 수요' 응답 결과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내용                                                 |
|----------|----------------|-----------|----------------------------------------------------|
| 정책<br>수요 | 참여<br>경로<br>확대 | 공간 지원(1)  | - 청년공간 이음 등 정부 지원 공간이 매력적이지 않음                     |
|          |                | 정보제공(2)   | - 현 정책 홍보가 부족한 편, 정책 접근성 낮음                        |
|          |                | 절차 간소화(2) | - 지원 요건, 지원 절차 등 간소화 요구, 청년의 구체적 나이,<br>지원 기한 제한 등 |

| 구분1 | 구분2                   | 구분3           | 내용                                                                                             |
|-----|-----------------------|---------------|------------------------------------------------------------------------------------------------|
|     | 모임<br>계획/<br>운영<br>지원 | 투명성 요구(3)     | - 사모임 지원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거부, 철저한 회계 요구<br>- 전폭적 금전지원과 절차 간소화 요구하나 모순적으로 철저한 회계<br>등의 제도적 투명성 역시 요구 |
|     |                       | 대표성 요구        | - 청년성, 지역성, 자주성 요구                                                                             |
|     | 신뢰<br>형성<br>지원        | 사회적<br>분위기(1) | - 개인의 노력으로 시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요구                                                                  |
|     |                       | 공적 요소         | - 공공기관 사업이라는 자체가 참가자 신뢰도에 긍정적 영향                                                               |

### 3) 참여 경로 확대

#### (1) 공간 지원

“동사무소마다 하는 동네 도서관 거기가 8시까지예요. 보통 회사 끝나면 7시, 8시잖아요.  
청년들한테도 이용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8시 이후로는.  
회사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한 시간이라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거기가 독서실이라는 공간이 있으니까, 책모임이라든가 동네 모임을 할 수도 있고.”

- 직장인

“저는 창업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느꼈거든요.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이 정말 없구나.  
창업센터도 많이 가도 진짜 너무 그리고 너무 드문드문 있었고.  
무중력센터도 가봤는데 너무 제한된 것도 많아요.  
창업 준비하면은 24시간 내내 있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만들었으니까.”

- 대학생

독거청년들이 일상을 보낸 후 이용할 수 있거나 공동체 활동을 하는 데에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직장인 혹은 대학(원)생 그룹의 경우 본인들의 일과  
뒤 저녁시간이나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나타났다. 공간운영  
을 위해 본인이 자발적 운영 봉사를 하겠다는 의견까지도 발굴할 수 있었다.

#### (2) 정보 제공

“청년 관련한 정책이나 모임 등의 정보들을 공공과 민간 사이에 어떤 영역에서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늘 했어요.  
예를 들면 정서적인 측면, 청년들의 심리상담, 밥 모임, 정보/정책 교류, 아니면 뭐 동호회 활동,  
이런 모든 활동들이 총 망라된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직장인

독거청년 사이 서로 관심사를 공유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  
이 나타났다. 취업, 진로 관련의 실용적인 정보부터 식사 메이트 등 일상과 관련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까지 청년 사이 공유할 수 있는 매개의 수요가 발굴됐다. 청년 사이 비슷한 주제로 소통을 원하는 여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절차 간소화

“비슷한 거 해봤는데 봉사 10시간 하고 서류 200시간 준비했거든요  
영수증 같은 거 다 붙여야 하고 청년들에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싶기도 해요.”

-대학생

세금,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의 특징상 사용내역 증빙서류, 계획 등이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전반적인 동의가 있으나 과도한 검증에 대한 거부감 역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독거청년의 경우 일과 외 시간에 공동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 증빙 절차가 있을 경우 ‘마음 편하게 차라리 사비를 들여서 하겠다’는 응답이 나타나기도 했다.

### (4) 정책 목적 전환요구

“자치구 문제나 의제를 발굴하는 건 잘 안할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곳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삶의 여유가 없을 것 같고.”

-대학생

대학(원)생 그룹의 경우 자치구 의제발굴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편이었다. 공동체 활동에서 취미 공유 등 일상을 환기시키고 싶다는 욕구가 많았으며 자치구 의제발굴에 관한 흥미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의 흥미에 주안점을 둔 공동체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 4) 모임 계획/운영지원

### (1) 모임 발굴/형성 지원

“모임이 있다 한들 그 모임을 최소한으로 열수 있는 인원수가 충족이 안 되면  
그 모임을 주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거잖아요.”

-대학생

응답자들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 속에서 불편함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가 일상의 사소한 불편이나 충족되지 않는 욕구로서, 아플 때 간병인이 없는 상황, 식재료료가 많

이 남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모두 1인 가구라면 겪을 만한 상황으로서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에 대한 욕구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 (2) 모임운영 지원

“우선 공간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전문적인 정보  
어떤 모임을 만들 때, 법, 회계 등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야 하잖아요.  
혹은 부동산 등 일상적으로 진짜 필요한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 거.  
전문가 초빙 강사비 등 아이디어 실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직장인

모임의 주체로서 모임을 지속적이고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요가 확인됐다. 지원 절차 혹은 공동체 활동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 등의 기초적 차원부터 법적, 금전적 차원의 전문적 정보까지 모임주체의 피로를 덜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정보제공 지원이 요구됐다.

## (3) 투명성 및 대표성 요구

“그 지역에 살고 혜택 누릴 수 있는 청년들 중에서.  
주민센터나 교육청, 문화센터와 연계해서라도 그 지역커뮤니티는 그 지역 청년들이 알아서 만들어갈 수 있게끔.  
어쨌든 독거청년들 대표는 있어야겠죠.”

-무직

“지원금에 명암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개인 자체가 아닌 모임 단체에 주는 건 어떨까.  
복지나 지원이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무직

청년이 운영하는 공동체에 관해 청년성, 투명성, 지역성 등이 요구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정책에서는 청년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발굴했으며 ‘지역의 커뮤니티 운영 자발성’을 원하는 청년도 있었다.

동시에 지원금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됐다. 과도한 증빙절차에 대한 불만이 있음과 동시에 공공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기본적인 투명성은 확보돼야 할 것이라는 강한 주장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 5) 신뢰형성 지원

### (1) 공동체 형성 및 운영 주체의 신뢰성

“구청같이 신뢰가 있는 집단에서 주도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책임감 없는 행동은 안하지 않을까.  
또 공신력 있는 장소에서 한다고 하면 부담을 덜 느낄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직장인

독거청년들은 구청, 동 주민센터 등 신뢰감 있는 운영주체를 요구했다. 이는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온라인 만남의 부작용 등을 우려함과 관련한 결과로 보인다. 책임회피 및 안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으며 공공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이러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알 수 있었다.

### (2) 검증된 공동체 구성원에 관한 요구

“참여비가 진입장벽이 있지만 그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돈 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참여의지 같은 게 검증될 것 같고  
참여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간단한 프로필 같은 걸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칠까 아닐까 하는.”

-대학생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는 구성원에 대한 신뢰성 역시 요구되었다. 자기소개서, 참가비, OT(오리엔테이션) 등으로 구성원의 예상참여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모였다. 함께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동체’라는 모임을 지속시키는 데에 있어 구성원의 역할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6) 소결: 공공이 밀 빠진 독에 밀 만드는 작업 도와야

설문조사 및 FGI 진행 결과 독거청년 사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공공의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및 정보 플랫폼 등 공동체를 꾸릴 수 있는 간접적 차원의 지원부터 모임 운영 가이드라인 등 모임 형성에 직접적인 소프트웨어 차원의 지원까지 청년이 공공에 요구하는 지원의 범위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독거청년의 일과와 현실적 상황들이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함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공간적 지원에서 시간이 부족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강세했다. 무엇보다 공공의 지원 하에 이뤄지는 공동체 활동이 독거청년의 피로, 의무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확인돼 독거청년의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일상에 무리가 가지 않는 차원에서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번 제시됐다.

독거청년 사이의 공동체 형성 중 주요 해결 과제인 신뢰감 형성 문제는 ‘공공’이 지원한다는 것 자체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 동 주민센터 등의 행정 관할기관의 공공성은 참여 구성원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청년들이 다수였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민간의 주도성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청년이 원하는 목적과 수요에 맞춰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제공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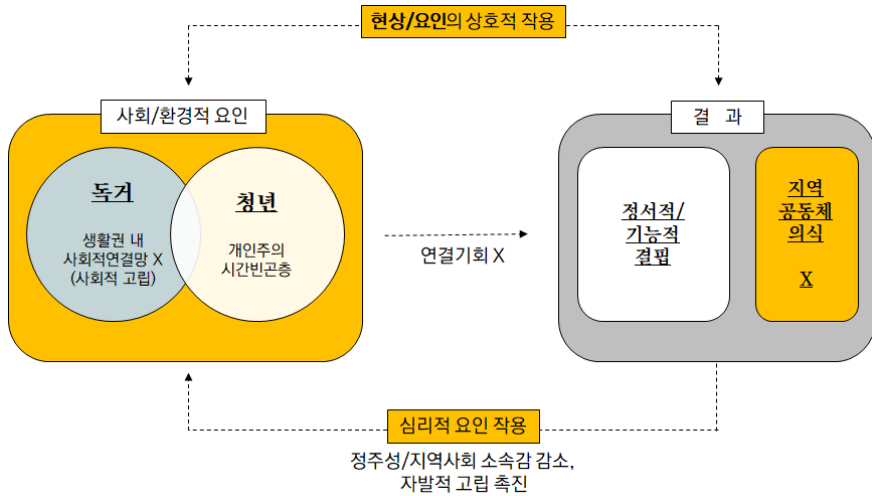
## 5. 결론 : ‘작은 지원, 큰 공동체’의 가능성

### 1) 독거청년이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독거청년이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는 사회·환경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독거청년을 구성하는 ‘독거’와 ‘청년’이라는 특징은 독거청년의 공동체 부재에 대한 요인이 되며 동시에 현상으로 작용해 공동체 형성에 대한 악순환을 일으킨다. 독거라는 특성은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이 적으며 구성원 사이 연결기회가 적음을 의미한다. 더해 이 독거의 주체가 개인주의가 익숙하고 여가 및 시간적 빈곤에 시달려 연결망 형성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독거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청년은 자연스레 정서적·기능적 결핍에 시달리게 되며,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이는 결국 정주성 및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감소시키며, 자발적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 심리적 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하는데, 이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서로 현상과 요인으로 상호작용하며 독거청년의 공동체 부재를 낳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독거청년은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소속감과 정주성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독거청년은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직업·문화적 인프라를 이유로 본인이 자라온 주거지를 떠나 생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인 가구가 되는 독거청년은 주로 비자가의 형태로 주거생활을 하게 되고, 인프라를 기반으로 주거지를 정하게 되는 본인들의 특성상 언제든지 주거지를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독거청년으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기 힘들다. 때문에 독거청년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에 관해 신뢰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본인의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실제로 FGI응답 대상자인 독거청년 12명 중 11명이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낮다’ 혹은 ‘매우 낮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3] 독거청년의 사회환경적 장애 요인

## 2) 독거청년은 공동체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거청년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인식 및 욕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실제로 설문 및 FGI 조사 결과 공동체에 관해 독거청년들의 욕구와 기대하는 바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생활권 안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돼 정서적·기능적 결핍을 겪는 독거청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기존의 생활권 외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생활권 밖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상적인 해결점으로 작용하기 힘든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결국 생활권 안에서 경험하는 정서적·기능적 결핍이 적극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독거청년들이 생활권 내 연결망이 형성되면 본인들이 느끼는 정서적·기능적 결핍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점이다. 이에 더하여 12명의 응답자 중 12명 모두가 ‘공동체를 원한다’고 응답하며 공동체 자체에 대해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호의적 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설문조사 및 FGI 조사 결과, 독거청년은 공동체를 통해 독거청년 생활에서 느끼는 정서적 결핍과 기능적 결핍을 해소를 기대함을 발견했다.

특히 정주 촉진 요소에 관한 응답 중 ‘이웃 한 명이 동네를 떠나게 하지 못할 수 있다’, ‘생활권 내 인간 관계가 정주 의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생활권 내 연결망이 독거청년의 정주 의향을 향상시켜 주거지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지역 사회 소속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독거청년이 항상 ‘떠돌이’의 자세로 지역사회를 마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은 지역사회가 ‘우리 동네’라고 인식할 만한 관계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겪고 있을 뿐이다. 정리하자면 독거청년은 분명 생활권 내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는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 공동체에 대한 공공의 지원이 적절히 이뤄질 시 수요 충족 등이 이뤄져 독거청년 사이 생활권 기반의 연결망 및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겠다.

### 3) 독거청년은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가

독거청년은 생활권 내 공동체에 관해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본인들이 느끼는 결핍의 문제들을 주로 ‘관심사 중심형’ 공동체 혹은 ‘생활 이슈형’ 공동체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이야기하였다. ‘관심사 중심형’ 공동체는 스터디모임, 재테크, 공동식사, 운동, 친목 등 취미 및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로 생활권 내 상대를 만나며 주로 정서적 결핍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됐다. ‘생활이슈형’ 공동체의 경우 독거청년이 혼자 생활하며 느끼는 기능적 결핍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개로 언급됐다. 위험 시 비상연락망, 음식 나눔 등의 주제가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독거청년은 개인욕구 중심의 공동체를 주로 원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 의제형’ 공동체를 원하는 의견 역시 존재하였다. 지역사회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나, 동네의 일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제 모임 등을 원한다는 응답자의 답변이 있었다. 이는 현재 개인욕구 중심 공동체 수요와 지역사회 소속감이 부재한 독거청년 사이에도 지역성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 분명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양한 공동체 욕구가 존재한다는 응답결과는 기존의 인식을 깨뜨리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다양한 공동체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독거청년들은 모임 형성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간접적이고 기반 조성 중심의 지원을 원한다고 답하며 ‘관심사중심’ 및 ‘생활이슈형’ 공동체가 활동 및 공간 지원을 중심으로 형성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이 전무한 독

거청년에게 아직 동네와 지역 자치는 낯선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심사증심형’ 및 ‘생활이슈형’에서 공동체 형성 지원을 시작해 ‘지역의제형’으로 점진적이고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섬세하고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독거청년은 생활권 내 공동체에 대해 호의적이므로, 기존 공동체 정책에서 지향하는 자치공동체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마중물’차원의 공동체 형성 지원과 독거청년의 정책 유입경로를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다.



## 05. 공동체 정책의 개선방향

### 1. 공동체 정책 사례 종합

#### 1) 공동체 정책 분류 기준

서울시가 진행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복지관, 동 주민센터 등의 다양한 주체들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장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 동 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실현가능한 공동체 정책의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지역 기반의 연결망 수가 극히 적은 독거청년의 특징상 생활권 기반 공동체를 조성하려면 마을공동체의 시작 단계라 일컬을 수 있는 씨앗단계 모임<sup>47)</sup> 형성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단계일 것이다. 또한 독거청년 간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한다는 점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애착 및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줄 수 있는 기초적인 공동체 정책과 사업의 사례 위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해당 정책들의 분류를 통해 독거청년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및 프로그램 제안의 기본적인 틀로 참고하고자 했다. 공동체 정책은 공동체를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 해당 정책의 수단들을 분류할 수 있다. 안현찬, 구아영(2016)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공동체 활동에 유용한 정보, 콘텐츠, 전문가 등을 제공하는 것을 ‘간접 지원’, 마을공동체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보조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직접 지원’으로 정책수단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공동체 정책 사례 분석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공동체 정책 사례의 정책수단을 ‘직접 지원’ 사례와 ‘간접 지원’ 사례로 분류했으며, 분류의 기준은 안현찬, 구아영(2016)의 정책수단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 [표5-1]과 같이 정리하였다.

47) 안현찬, 구아영.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2017.11

[표 5-1] 공동체 정책 분류의 틀

| 구분    | 하위구분  | 내용                                 |
|-------|-------|------------------------------------|
| 직접 지원 |       |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으로 공동체 형성을 지원          |
| 간접 지원 | 활동 지원 | 교육 및 클래스,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 형성을 지원 |
|       | 공간 지원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공동체 형성을 지원   |
|       | 인적 지원 | 공동체 형성 주체를 발굴해 공동체 형성을 지원          |

보조금 등 금전적 도움으로 모임 형성 자체를 지원하는 경우를 ‘직접 지원’, 활동·공간·인적 자원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는 지원을 ‘간접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활동 지원에는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 지원에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물리적 장소, 인적 지원에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활동가 등을 모델로 삼아 각각 공동체 간접 지원의 근간이 되는 자원을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표 5-1]에 따라 공동체 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들을 활동 지원·공간 지원·인적 지원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5-2]와 같다.

[표 5-2] 공동체 정책 사례 분류

| 지원 구분 | 지원 주체 및 장소     | 지원 사업명                       |
|-------|----------------|------------------------------|
| 활동 지원 | 관악구            | 청년 1인가구 탐구생활                 |
|       | 강동구            | 마을학습 배움터                     |
|       | 노원구            | 아고라<br>더불어 숲                 |
|       | 성북구            | 고립청년<br>밀착지원 사업              |
|       | 동대문구           | 나도 혼자 산다                     |
|       | 중계 종합 사회복지관    | 독거어르신 자조모임 "老in情"            |
|       |                | 다문화여성 자조모임 "중계어울림"           |
|       |                | 1·3세대통합PG<br>문화복지 공동체 '행복드림' |
|       | 수원시 평생학습관      | 누구나 학교                       |
| 공간 지원 | 성북구            | 장위3동 주민센터                    |
|       | 강북구            | 반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연계             |
|       | 은평구            | 청년새싹 활력공간                    |
|       | 금천구            | 청년커뮤니티공간 청춘별당,<br>시흥4동 주민센터  |
|       | 강남구 신사동        | 신사종합사회복지관                    |
|       | 도봉구 방학동        | 도깨비 연방                       |
|       | 노원구 월계동        | the꿈꾸는 북카페+한책방               |
|       | 마포구 망원동        | 이글루                          |
| 인적 지원 | 행정안전부·한국지역진흥재단 |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요약하자면, 독거청년 간 공동체 형성 지원을 위해 FGI를 통해 독거청년의 공동체 형성 관련 수요 중심으로 공동체 정책을 수집 및 분석한 결과, 모임이 어느 정도 형성된 공동체에 관해 지원금으로 공동체를 지원하는 ‘직접 지원’의 경로는 신뢰 및 연결망이 부재한 독거청년의 특성상, 간접 지원보다 정책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간접 지원 사례를 중점으로 분류 및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다. 하단에 제시되는 내용은 활동·공간·인적 지원 중심으로 독거청년 사회 내 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과 그 분석 내용이다. 정책 사례의 세부내용 표와 제안점 등을 정리하였다.

## 2) 간접 지원 사례 제시 및 분석

### (1) 활동 지원

[표5-3]은 특정 주제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간접 지원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수원시 평생 학습관 ‘누구나 학교’ 사례의 긍정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공간 지원이 가능할 때 이러한 플랫폼 형성 시 적극적인 모임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단순 취미모임부터 자기소개서, 유학준비 등의 실무와 관련된 모임까지 청년이 원하는 다양한 수요 층층이 가능하고, 시민이 수업 계획부터 시행까지 자발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따로 프로그램 진행 세부사항을 기획하지 않고 공간적 지원만 가능해도 모임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플랫폼과 공간 지원이 준비된다면 청년세대에 가장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형태의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강동구 ‘마을학습 배움터’ 사례 역시 공동체 공간 혹은 도서관 등의 공간을 적절히 지원했을 때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됐다. 서로 알맞은 키워드로 흥미를 유발해 모인 다음 함께 강의를 구성해나가고 배우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형성해 취미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다만 청년들이 늦게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지원이 배움 지원과 함께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표 5-3] 간접 자원 사례\_활동 지원

| 지원 주체     |                 | 지원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
| 관할<br>자치구 | 관악구             | 청년 1인 가구 탐구생활         | 1인 가구 청년                               | 서울시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시범사업<br>생활관리 역량강화 (주거, 셀프인테리어, 재무관리 등)<br>사회적 관계망 형성 (취미, 창작 활동 및 볼링 강습, 건강관리 등)      |
|           | 강동구             | 미술학습 배움터              | 강의 계획 및 장소 확보된<br>5인 이상 주민 모임          | 미술 관련 학습모임을 선정하여 강사로를 지원<br>모임 당 강사로 800천 원 지원(10개 모임 선정)                                                      |
|           | 노원구             | 아고라                   | 미술 활동가, 주무관, 관심 주민                     | 권역별, 분야별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거점공간에서 마을공론장 조성,<br>주민 연결 및 소통 위한 네트워킹 파티                                                |
|           | 서울시<br>및 성북구    | 고림청년<br>밀착지원 사업       | 주민 모두                                  | 연간 200명 내외 사회관계망, 청년-가족 자조모임, 교육, 진로코칭, 재능탐색, 자립, 취창업<br>등 1년간 단계별 지원                                          |
|           | 동대문구            | 나도 혼자 산다              | 만19 ~ 만29세 미취업 청년,<br>20~30대 미혼남녀 40명  | 지역 사회복지사 청년전문가 중심 사회적 고립 운동형 비근 청년 발굴<br>서울시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시범사업<br>동아리활동 지원비 지급, 동아리 만들기 활동 및 우수 동아리 포상 |
|           |                 | 독거어르신 자조모임<br>"老人情"   | 지역 내 독거노인                              | 자조모임 형성 지원으로 정서적인 관계망 조성<br>참여자들의 논의로 이웃과의 활동 기획 및 진행                                                          |
| 사회<br>복지관 | 중계 종합<br>사회 복지관 | 다문화여성 자조모임<br>"중계어울림" | 지역 내 결혼이민자 여성                          | 자조모임 형성 지원, 정기적인 소모임 활동 및 모임기획 제공<br>참가자의 자주적 활동 기획 및 진행                                                       |
|           |                 | 1·3세대통합PG             | 지역 아동, 청소년, 학부모, 노인                    | 소외 해소 및 생활 적응 도움, 자선활동 등 전개                                                                                    |
|           |                 | 문화복지 공동체<br>"행복드림"    | 지역 내 여러 세대가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활동 전개 | 커뮤니티 매개로 구성된 주민조직체<br>학습 공유로 이웃 간 친밀감 형성 및 마을공동체문화 확산 지원                                                       |
| 평생<br>학습관 | 수원시<br>평생학습관    | 누구나 학교                | 수원시민                                   | 시민주도 평생학습 플랫폼, 연중수시, 일회성 및 다회성 등 형태 다양<br>취미 공유부터 전문적 지식 공유 등 범위 넓음                                            |

## (2) 공간 지원

[표5-4]에서는 간접 지원 사례 중 공간을 기반으로 공동체 형성을 지원한 사례를 정리하였다. 금천구 청년활력공간 ‘청춘벨딩’ 등은 장소 물색단 계부터 청년들이 참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공유부엌 등을 조성해 청년들이 공부, 스터디모임 등의 작업뿐만 아니라 일상 문제 역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지 사업, 1인 가구 청년들의 소셜다이닝 프로그램, 청년문화예술인들과의 협업 등을 진행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진행한다. 더해 금천구청 아동청년과와 매주 공유회의 등을 진행하며 구청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청년을 위한 공간이 ‘청년성’과 공공의 지원이 수반됐을 때에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해 월계동 ‘the 북카페+헌책방’은 청년들이 자조적으로 취미 및 일상과제 해결 등을 통해 모인 공간이나, 마을 의제 발굴까지 이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충족되었을 때 모임의 목적을 단순 취미공유에서 넘어 의제발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5-4] 간접 지원 사례 공간 지원

| 지원 주체     |     | 지원사업명                                                   | 지원장소                        | 지원 내용                                                                             |
|-----------|-----|---------------------------------------------------------|-----------------------------|-----------------------------------------------------------------------------------|
| 관할<br>자치구 | 성북구 | 서울시 세대별 1인 가구<br>사회적 관계망 구축<br>시범사업<br>_ 1인 가구 전용 공간 마련 | 장위3동 주민센터                   | 중장년 1인 가구 소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br>(복지, 문화, 예술, 동아리 활동 등)                      |
|           | 강북구 |                                                         | 변동3단지<br>종합사회복지관 연계         | 중장년 1인 남성가구를 위한 요리수업,<br>청년세대 ‘법터디’(식사 후 각자 공부에 전념) 등 지원.                         |
|           | 은평구 |                                                         | 청년새싹 활력공간                   | 특별 강연, 청년대화 프로그램, 공유부엌, 공유장터 등 진행.                                                |
|           | 금천구 |                                                         | 청년커뮤니티공간 청춘벨딩,<br>시흥4동 주민센터 | 만 18세 이상의 1인 가구 포함된 3인 이상 동아리에 참여비 지급<br>은둔형 1인 가구 소통지원 ‘솔로들의 아우성’ (난타, 목공, 심리 등) |

| 지원 주체               | 지원사업명      | 지원장소     | 지원 내용                                                                                                                |
|---------------------|------------|----------|----------------------------------------------------------------------------------------------------------------------|
| 사회복지관<br><br><br>기타 | 신사 종합사회복지관 | 강남구 신사동  | 마을공동체 모임 공간 지원                                                                                                       |
|                     | 도봉구        | 도봉구 방학동  | 서울시 주민재민사업 공간조성지원에 선정<br>마을 대안생태문화 공간인 동시에 마을 카페 기능                                                                  |
|                     | 노원구        | 노원구 월계동  | 2010년 노원구 청년들의 커뮤니티 모임 '노원청년회'에서 기인<br>직장생활, 주거, 문화 소외 등에서 출발해 마을 의제 발굴 관심<br>다양한 종류 모임(한채 판매, 우쿨렐레-노동법 강의, 기계부모임 등) |
|                     | 마포구        | 마포구 망원2동 | 24시간 운영, 취침 가능 다락, 부엌, 샤워실 보유<br>공약임을 기반 다양한 강좌 및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영화 상영<br>'반찬 만들기 학교'등 동네 어른들이 강사가 되는 활동 진행           |

### (3) 인적 지원

표 5-5는 지역 내 활동가 등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했다. 행안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실시한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지역에 관심 있는 청년을 활동가로 세위 공동체 형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간접 지원\_인적 지원 사례로 분류하였다.

표 5-5 간접 지원 사례\_인적 지원

| 지원 주체               | 지원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
| 행정안전부 및<br>한국지역진흥재단 |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 39세 이하 청년,<br>지역 활동 원하는 예비 청년활동가<br>및 청년일자리 사업 대상자 | 1지역 1청년공동체 5청년활동가 형성 (정착기반 마련)<br>선발 청년에 지역활동 및 희망분야 교육 및 컨설팅, 기획 지원<br>지역지원 발굴연구, 지역정책 계획수립, 공동체 갈등관리, 지속가능을 위한 사업화 진행 |

#### 4) 소결: 민간주도 중요하나,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공지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본 연구에서는 자조모임 차원의 공동체 정책을 활동 지원의 주된 사례로 제시했다. 정책 주체는 동 주민센터부터 도시재생센터, 사회복지관까지 다양한 편이었다.

사회복지관과 평생학습관 등은 공동체를 복지 차원으로 인식하며 서로 연결망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내기 힘든 독거노인이나 다문화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미 등의 관심사를 통해 연결망 형성을 지원하였다. 대상자들은 평소 연결망에 수요가 있었던 사회적 약자들로, 자조모임 형성이 단순 정서적 빈곤 해소 차원뿐만 아니라 기능적 빈곤 해소, 나아가 이웃을 돕는 마을 전체의 의제 차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더해 공동체 연결망이 미진한 실태의 그룹에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려면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주제, 사용 및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역시 요구된다.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취미모임이 자연스레 형성된다면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발표회, 네트워킹 파티를 기획해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한 콘텐츠 없이 단순히 만남 자체, 관계형성 자체를 목적으로 청년들을 발표회, 네트워킹 파티에 끌어당기기에는 청년들의 피로감이 큰 편이다. 취미모임, 배움 공유 모임 등이 활성화되고 발표회를 개최할 시 자연스러운 모임 간의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계동 ‘the 꿈꾸는 북카페+헌책방’ 사례를 통해서도 청년들이 마을 기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해당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교류와 안정적인 공간 공급이 만족될 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과 연관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복지와 관련된 기구와 연합해 청년 간 공동체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볼 수 있겠다. 다만 복지관 등과 연결된다면 청년 간의 공동체 형성 자체가 하나의 복지일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청년 사이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주도성이 중요하긴 하나, 민간 주도에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차원에서 공동체 자조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주로 청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나 이벤트 기획력 등이 요구되며, 청년 사이 공유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



에 청년의 사회적 현실에 적합한 공공의 협력과 지원이 요구되는 실태다. 24시간 공간 지원 등의 파격적인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안이 공공의 책임소재 등으로 불확실할시 청년 공동체 주도자 지원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시도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현재 마을활동가 양성 과정에 청년 관련 커리큘럼을 제공해 청년 공동체의 근간을 마련 하려는 시도 또한 방법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동체 정책 자체를 청년이 공동체 자조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지원하는 차 원과 직접적인 청년 공동체 주도자를 지원해 형성하는 차원으로 나눠 제안해 볼 수 있겠 다. 다만 후자의 경우 해당 청년의 현실적 직업 생활 등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원 해야 하며, 정책적 결과를 우선하여 성과를 성급히 요구하는 맥락이 형성되는 지점을 지양해야 한다.

## 2. 독거청년을 위한 공동체 정책의 개선방향 제언

공동체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언하기에 앞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 및 이를 통해 귀결된 공동체 정책의 필요성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청년들은 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가? 독거청년이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사회·환경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독거청년들은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경제·직업·문화적 인프라를 이유로 본인이 자라온 주거지를 떠나 생활하며, 이러한 1인 가구들은 개인주의가 익숙하고 여가 및 시간적 빈곤에 시달려 생활권 내 연결망 형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청년은 자연스레 정서적·기능적 결핍에 시달리게 되며,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이는 결국 정주성 및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감소시켜 지역사회 구성원에 관해 신뢰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독거청년에게 ‘공동체’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독거청년들에게 자신이 사는 동네란, 그저 잠만 자는 ‘방’에 불과했으며 언제든지 직장이나 인프라에 따라 떠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생활권 내에서 맺었던 ‘사회적 관계망’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의 존재가 정주 의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내 방’에서 ‘우리 동네’로 인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주 기간에 상관없이 생활권 안에서 맺게 되는 ‘이웃’과 ‘공동체’의 존재가 정주성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독거청년은 어떠한 ‘공동체’를 원하는가? 독거청년은 생활권 내 ‘공동체’, 즉 동네 친구와 동네 이웃의 필요성에 대하여 매우 동의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주로 ‘생활이슈’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여 모일 수 있는 공동체를 희망하였으며, 일부는 이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희망하기도 했다. 즉 독거청년은 분명 생활권 내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유흥 위주의 활동을 하는 공동체보다는 ‘생활이슈’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선호했다. 이처럼 다양한 공동체 욕구가 존재한다는 응답결과는 ‘개인주의적인 청년세대’라는 기존의 인식을 깨뜨리는 새로운 관점이라고 볼 수 있었으며, 청년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다양한 공동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나타낸다.

앞서 기존 공동체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 공동체 정책의 목표는 ‘생활권 기반 자치 공동체’ 형성에 초점을 맞춰져 정책 지원이 이뤄짐을 볼 수 있다. 이미 마을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지원하는 데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3인 이상의 주민이 모여 ‘주민제안공모 사업’ 등을 통해 씨앗기 단계의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의제발굴 및 자치형으로 이어지도록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거청년의 경우, 기본적으로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이 부재한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자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독거청년들에게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 모임이 촉진되고 자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 중심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진은 독거청년을 위한 공동체 정책에서는 이에 맞춰 목표가 재설정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독거청년이 공동체 자조가 가능하도록 ‘기반 조성 및 지원’하는 정책적 범위에 집중하여 첫째,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및 씨앗기 모임 형성에 대한 실천 과제들과 둘째, 이렇게 형성된 씨앗기 모임들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모임을 형성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표 5-6]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표 5-6] 독거청년들을 위한 공동체 정책 제언

| 비전                              | 생활권 기반 청년의 지역 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 정책 목표        | 1.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및 씨앗기 모임 형성<br>2.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모임 형성 및 지원 지원 |                                                                                                                                                                                                                                                                                                                                                                                                                                                                                                |
|---------------------------------|------------------------------|--------------|-------------------------------------------------------------|------------------------------------------------------------------------------------------------------------------------------------------------------------------------------------------------------------------------------------------------------------------------------------------------------------------------------------------------------------------------------------------------------------------------------------------------------------------------------------------------|
| 정책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만 20세~34세 1인 가구   |              |                                                             |                                                                                                                                                                                                                                                                                                                                                                                                                                                                                                |
| 정책 1: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및 씨앗기 모임 형성 |                              |              |                                                             |                                                                                                                                                                                                                                                                                                                                                                                                                                                                                                |
| 구분                              | 지원사업명                        | 지원 주체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직접] 모임 형성                      | 동네친구 만들기                     | 동단위          | 해당 행정동 내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커뮤니티디닝, 취미클래스 등 일상생활과 관련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월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커뮤니티프로그램 운영</li><li>-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 형성이 되도록 함</li><li>- 각 모임 당 청년 1인 가구 최대 10명</li><li>- 고정적인 거점 공간 조성 필요 혹은 마을공동체 공간 및 동 주민센터 공유공간 연계</li><li>- 촉진자 혹은 커뮤니티디자이너 1명 배치(동네청년으로 선정)</li><li>- 서로 모르는 청년들이 일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줌.</li><li>-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연결 및 소통을 목적으로 함</li><li>- 최대 30명 내외의 규모, 분기별 1회, 년 총 4회 진행</li><li>-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거점공간에서 공간 지원</li><li>- 마을공론장 조성 차원에서의 진행.</li></ul> |
| [간접] 실행 지원                      | 청년 네트워킹 파티<br>참고)노원구 마을공동체파티 | 동단위<br>및 구단위 | 해당 행정구역 내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온라인 연결망)<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치구, 행정동 차원에서 홈페이지 구축</li><li>- 청년 1인 가구가 이용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혹은 SNS등의 온라인 연결망 확보</li><li>- 마을공동체센터 등 자치구 내 정책시행 시설과 연계해 정보 교환 가능하도록 함</li></ul></li><li>(오프라인 연결망)<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민센터, 도서관, 마을공동체센터 등 각 시설 내 활용가능한 게시판 설치</li><li>- 모임 모집 등의 기능을 하도록 도움.</li></ul></li></ul>                                                                                                        |
| [간접] 공간 지원                      | 청년 간 연결망 구축                  | 구단위          | 해당 자치구 내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li><li>- 심야시간대 개방</li></ul>                                                                                                                                                                                                                                                                                                                                                                                     |
|                                 | 청년이 드나드는 주민센터                | 동단위          | 해당 행정동 내 거주하는 청년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야시간대 공간 관리자: 심야시간대 공건을 필요로 하는 청년 2명 (자율적 공간 이용 가능_학업 등)</li> <li>- 공간 관리자 한 달 단위로 신청</li> <li>- 이용금액: 무료</li> </ul>                                                                                                                                                                                                                                                                              |
|-------------------------------|---------------------------------|-------|---------------------------------------------|--------------------------------------------------------------------------------------------------------------------------------------------------------------------------------------------------------------------------------------------------------------------------------------------------------------------------------------------------------------------------------------------------------------------------------------------|
| 정책2: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모임 형성 및 자립 지원 |                                 |       |                                             |                                                                                                                                                                                                                                                                                                                                                                                                                                            |
| 구분                            | 지원사업명                           | 지원 주체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직접] 모임 형성                    | 이웃들끼리 자원사업 (별아기)<br>- 청년참여 동 바전 | 동단위   | 해당 자치구 내 거주 및 활동하는 청년 1인 1가구 3명으로 구성된 청년 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적으로 모임을 운영하기 원하는 3인 이상 청년 모임에게 직접 지원</li> <li>- 공공에서 모임 형성을 위한 정보플랫폼 제공 및 관심참여자 연결</li> <li>-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의 모임으로 신청자격 제한, 주제는 자율</li> <li>- 지원금 최대 300만 원</li> <li>- 지원기간 최소 6~8개월</li> <li>- 신청기간: 수시접수</li> <li>- 꼭 사전 컨설팅을 거쳐도록 함(해당 자원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모임의 목적 운영방식으로 컨설팅 진행)</li> <li>- 활동공간은 필수 열린 개방공간(동 주민센터, 청년공간 등)을 이용하도록 함</li> <li>- 소모임 운영을 위한기대라인 제공, 소모임 운영을 위한 기초교육 제공</li> </ul> |
| [간접] 실행 지원                    | 우리동네 클래스<br>- 참고강동구 마을학습배움터     | 동단위   | 해당 행정동 내 거주 및 활동하는 청년 모임, 해당 행정동 내 거주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주민이 청년 모임 클래스의 강사가 돼 최소 5회 이상의 수업을 진행</li> <li>- 청년) 베이킹, 세탁, 반찬조리 혹은 전문지식 등 주민강사가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수업 개설. 청년 모임이 커리큘럼 등의 진행계획 수립, 주민강사 발굴 및 초빙</li> <li>- 공공) 무료 공간 및 주민 강사비 금전적 지원</li> <li>- 마을 내 청년-기성세대 간의 새로운 연결망 형성으로 지역적 활동 및 정착을 도움</li> </ul>                                                                                                                                         |
| [간접] 공간 지원                    | 우리동네 모임장소<br>- 신규조성             | 동단위   | 해당 행정동 내 거주 및 활동하는 3인 이상 청년 모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 신규조성 필요</li> <li>- 24시간 운영</li> <li>- 예약제 운영: 모임 목적과 내용, 시간 기재한 신청서 제출</li> <li>- 심야시간대 공간 관리자: 심야시간대 공건을 필요로 하는 청년 2명 (자율적 공간 이용 가능_학업 등)</li> <li>- 공간 관리자 한 달 단위로 신청 가능</li> <li>- 이용금액: 무료</li> </ul>                                                                                                                                                                                      |

## 1) 생활권 내 사회적연결망 및 씨앗기 모임 형성을 위한 정책 제언

### (1) 직접 지원\_모임 형성 : 동네 친구 만들기

본 지원사업의 목적은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이 전무한 청년 1인 가구가 동네친구를 만들기 위함이다. 행정동이 주체이며 해당 행정동 내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가 그 지원 대상이다. 청년들의 공동체 유형 수요에 맞추어 커뮤니티다이닝, 취미클래스 등 일상생활, 관심사와 관련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동네의 다른 청년 1인 가구와의 만남을 조성한다.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과 지속적 만남 유지를 위해 월 4회 정기적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활동 공간을 위한 고정적인 거점공간이 요구되며 혹은 기존 존재하는 마을공동체 공간 및 동 주민센터 공유공간을 연계 가능하다. 또한 각 커뮤니티의 조력자로서 촉진자 혹은 커뮤니티디자이너를 1명씩 배치하는데 이때 동네 청년의 자발적 지원을 받아 선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동네이웃이 전무한 청년 1인 가구들이 생활권 내 연결망 형성을 위한 첫 단계로 도약할 수 있으며 개인의 욕구 충족도 가능할 것이다.

### (2) 간접 지원\_실행 지원 : 청년 네트워킹 파티

청년 네트워킹 파티는 현재 노원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파티 사례를 참고해 제안하였다. 자치구 혹은 행정동이 주체가 돼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활동 및 생활하는 청년 1인 가구 중심의 주민과 청년 모임을 대상으로 서로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킹 파티를 시행한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및 마을 거점공간에서 진행하게 되며 마을 공론장 조성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최대 30명 내외의 규모 정도로 분기별 1회씩 1년에 총 4회 정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3) 간접 지원\_공간 지원

#### ① 연결망 확보

간접적 차원에서의 실행지원의 경우 연결망이 미비한 청년세대 간의 연결망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차원으로 나눠 연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혹은 행정동 차원에서 청년세대가 교류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SNS를 마련해야 한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정책시행 유관시설과 협력해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과 관련 정보들을 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더해 스터디 모임 등

다양한 연결망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연결망을 마련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 도서관 등 주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자리에 정보 안내 게시판 등을 마련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게시판에는 모임 공고, 정책 안내 등의 정보가 게재될 수 있다. 두 연결망 모두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차원에서 검증된 모임,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하도록 한다.

## ② 청년이 드나드는 주민센터

본 지원사업의 목적은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청년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 청년의 주민센터 적극 활용, 청년 공간의 조성을 위함이다. 행정동이 주체가 되어 해당 행정동 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실시한다. 청년들의 24시간 공간 수요에 맞추어 심야시간대 개방을 한다. 이때 심야시간 공간 관리자는 심야시간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청년 2명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때 공간 관리자는 공간 관리 및 청결유지 업무 외에 학업 등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다. 공간 관리자는 청년의 넓은 활동 반경과 변동가능성이 높은 일정을 고려하여 한 달 단위로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 본 공간의 이용금액은 무료이다. 이를 통해 이전에 주민센터의 적극적 활용과는 거리가 멀었던 청년이 '주민센터를 드나드는 청년'으로 변모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의 벽을 낮추는 동시에 청년이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지속적이고 자발적 모임 형성 및 자립 지원

### (1) 직접 지원\_모임 형성 : 이웃만들기지원사업(발아기)

기존 마을공동체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에서 착안하여 기존 씨앗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안하였으며, 씨앗기 전 단계를 의미하는 '발아기' 버전으로 제안한다. 자체적으로 모임을 운영하기 원하는 개인이 모여 모임이 결성되면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다. 독거청년은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이 있기를 희망하였던 정책수요를 반영하였다.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의 모임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되, 모임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 공공플랫폼에 제안하면 이에 희망하는 동네 청년들이 참여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안하였다. 사전 컨설팅을 거쳐 '공동체 형성'이라는 주요 목표를 만족하도록 지원하고, 활동공간을

필히 신뢰할 수 있는 개방공간(동 주민센터, 청년공간 등)을 이용하도록 장치를 필수로 둔다면 기존 응답에서 가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신뢰 부재'의 요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실천과제의 경우 단기 과제로 끝나지 않도록 발굴된 소모임 및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모임 운영 가이드라인, 컨설팅 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간접 지원\_실행 지원 : 우리동네 클래스

강동구 마을학습배움터 사례에서 착안해 해당 '동네', '마을'만의 수업이 열릴 수 있도록 고안했다. 해당 행정동 내 거주 및 활동하는 청년 모임이 수업을 열 수 있는 마을주민을 발굴해 강사로 초빙한다. 그리고 적합한 커리큘럼과 강사비 등을 마련해 최소 5회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강사는 베이킹, 세탁, 반찬조리 등 일상 생활의 영역부터 자격증 취득같이 전문적인 영역 역시 교육할 수 있겠다. 공공은 커리큘럼을 간단히 점검하고 보완하며, 이용 가능한 공간과 주민강사비 등의 금전적 지원을 수행한다. 해당 제안은 마을 내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새로운 연결망 형성으로 청년 모임의 지역적 활동과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 (3) 간접 지원\_공간 지원 : 우리동네 모임장소

본 지원사업의 목적은 동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모임의 활동 공간을 조성해주기 위함이다. 행정동이 주체가 되어 해당 행정동 내 거주하는 3인 이상의 청년 모임을 지원한다. 청년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신규조성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24시간 공간 수요에 맞추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사용이 필요할 시 구체적 모임 목적과 내용, 시간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야시간 공간 관리자는 심야시간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청년 2명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때 공간 관리자는 공간 관리 및 청결유지 업무 외에 학업 등의 자율적 활동이 가능하다. 공간 관리자는 청년의 넓은 활동 반경과 변동가능성이 높은 일정을 고려하여 한 달 단위로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 본 공간의 이용금액은 무료이다. 이를 통해 동네 기반의 청년 모임의 고정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모임의 안정적 지속과 청년들의 동네 기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 3. 결론

#### 1) 독거청년 공동체 정책의 방향성: 씨앗기 주민 모임 중심 확장 재설정 필요

현재 서울시 등에서 시행되는 공동체 정책들은 지역 내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며 직접 실행함을 지향하는 주민 주도 사업이다. 모임 형성을 지원하는 ‘씨앗기’, 실행 등을 지원하는 ‘새싹기’ 등을 지나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을 지원하는 ‘성장기’를 최종단계로 잡아 주민 본인이 살아가는 지역 내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자발적으로 해결하게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생활권을 기반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지역 의제 발굴을 통해 자치적 역할을 수행함은 지역 기반 공동체의 이상적인 지향점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1인 가구 중심의 현 청년세대는 인근 생활권 내 살고 있어도 상호 간 연결망이 부재한 상태다. 때문에 독거청년을 위해서는 우선 청년 간의 연결망 자체를 형성할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기반의 청년 공동체의 현실은 다소 미약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기반으로 차근차근 지역의제 해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 대상의 공동체 정책은 씨앗기 주민 모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 방향성이 전환되도록 도모해야 한다.

사회복지관 등에서 이뤄지는 자조모임 사업 차원의 고려가 필요하다. 구성원 간 기능적·정서적 도움 수요가 있으나 연결망이 부재해 교류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수요자들을 모으고 연결망을 형성시킬 수 있는 적극적 시도가 요구되며, 개인주의에 기반한 청년세대가 공동체에 무관심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적극적 개입으로 청년 사이 연결망 형성 자체 및 모임 형성 자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독거청년의 정책 참여도를 늘리기 위해 정책 방향성의 확장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관악구 독거청년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의제 발굴 중심의 공동체 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 2) 현실 제약 많은 청년, 전반적인 인프라 구성에 힘 쏟아야

독거청년들은 주로 일과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생활권 내 공간이 부재함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공동체 참여 의향과 관련해서는 다소 높은 정도의 참여 의향을 보였으나 현실적으로 공동체 정책에 참여하기 힘든 이유로 일과로 인한 피로도, 부족한 인프라, 정책 대상자의 제한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공공이 운영하는 공간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종료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독거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더해 공동체 정책에 참여하려고 해도 생활권 내 연결망이 부재한 독거청년들은 3명 이상의 참여자를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힘들어 시도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혹여 공동체 정책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했다 하더라도 계획서, 시행서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공동체 운영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어려움을 느낄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독거청년에게도 친절하고 섬세한 소프트웨어적·하드웨어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우선 청년이 매력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실무 혹은 취미 중심의 콘텐츠 인프라 확장이 제공돼야 한다. 실제로 독거청년 사이에서 취미 혹은 일일클래스 등을 통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욕구들을 발견하였다. 독거청년을 대상으로 실무적인 도움이 되는 재무관리, 건강관리 등의 프로그램,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테라피 등을 실시할 시 정책 참여도를 늘릴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관악구가 현재 시행하는 ‘1인 가구 탐구생활’사업과도 내용적 측면에서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더해 상단에 언급한 공간의 측면 역시 해결되어야 한다. 단순히 자유롭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만 해도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월계동 ‘the꿈꾸는북카페+헌책방’(의제발굴형 공동체)과 금천구 ‘청춘뽕당’(관심사중심형 공동체 등) 등의 사례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독거청년도 제한받지 않고 편안하게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독거청년 공동체에 대한 지원금, 인적 지원 등 직접적 차원의 지원 역시 필요할 수 있다. 공동체 자체가 부재한 기조에서 마을활동가 양성사업 등을 차용해 청년 전문 활동가들을 양성해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진행한 청년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서울시 자치구 내 동단위에 적용해 독거청년 사이의 연결망을 조성하려는 시도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다.

### 3) 신뢰 부재한 독거청년 사회: 공공인증으로 신뢰성 확보하고 전문성 높여야

독거청년은 생활권 내 연결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활환경의 구성원에 관해 의식 자체가 부재한 상태였다. 때문에 신뢰의 형성 자체를 기대하기 힘들었으며, 기능적 및 정서적 외로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힘든 실태라고 할 수 있었다. 본인의 외로움을 생활권 외 연결망 형성 등으로 해소하려 시도하는 독거청년도 존재했으나 생활권 내 연결망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나는 현상은 공통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서울에 연고가 없는 독거청년은 가족 등 일반적으로 신뢰할만한 대상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아 두려움·고독함·불안함 등의 감정을 느낀다. 더해 연결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연결망을 형성하려는 시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기 힘들기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해당 지점에서 공동체 정책을 펼치는 주체가 공공이라는 점은 청년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개인에게 공공성은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기반 돼 있는 존재이며 해당 주체가 실시하는 프로그램, 사업 등에 참여했을 때에 독거청년 등의 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특히 FGI 과정에서 공동체 정책을 홍보할 때에 공공이 실시한다는 표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거나 주민센터, 공공기관 관할 장소에서 실시함을 알렸을 때 독거청년들의 신뢰성이 높아짐을 발견하였다. 신뢰성이 전무한 독거청년 사이 공공의 소극적인 개입만으로도 개인에게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고, 생활권 내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더해 공공의 공동체 정책은 금전적 자원 등으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적인 취미 모임에서는 단지 취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활동이 제한적이며, 전문가 강사 등을 초빙할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해 참여자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 정책의 직접 지원 하에 형성되는 공동체는 공공의 지원으로 큰 부담 없이 모임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공되며, 예산 사용법 등의 회계 지침서가 적절히 제공될 시 독거청년은 수요에 맞는 공동체를 누릴 수 있으며, 생활권 내 연결망 또한 확보할 수 있어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 4) 지역맞춤형 지원 및 청년대표성 확보해야

독거청년들은 독거청년 공동체에 관해 생활권을 기반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해당 공동체에 지역맞춤형 지원 및 청년대표성을 요구하였다. 현시점에서 독거청년이 마을의 의제 발굴 사안과 관련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나, 생활권을 기반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독거청년을 대상으로 생활권 기반의 공동체를 원활히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일상과 관련된 (맛집, 소비생활, 건강 등) 주제를 중심으로 공동체 정책 프로그램을 꾸리는 방안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일괄적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수요와 자발성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공동체 프로그램이 이뤄지도록 지원해야한다.

또한 FGI결과 독거청년들은 현재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책들에 관해 취업 및 고용 측면에만 집중돼 있는 점과 청년 대상 정책이 실시되더라도 정책 구성원 등에서 청년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때문에 독거청년을 대상으로 공동체 지원을 위해 정책을 실시할 시, 공동체형성 과정의 틀이나 주제 등을 마련할 때 관련 욕구가 있는 청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도 좋을 것이다.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교육·세미나·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소극적 차원에서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독거청년들의 욕구도 발견하였다.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과도한 개입이 아닌 주체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 4. 마무리하며

청년은 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는 연구를 진행하며 마주했던 독거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연구 초기 던졌던 연구 질문에 대하여 의미 있는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었다.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회구조 안에서 독거청년은 '동네'가 없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불안정한 청년세대의 특성은 공동체 정책의 소외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며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사회흐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책 또한 이에 맞춰 발 빠르게 새로운 목표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 연구의 핵심은 지금까지 당연히 전제되어 왔던 '청년은 지역에 정착하는 것들이 아니며, 공동체 욕구가 있지 않다'는 명제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더 이상 외로운 나그네와 같은 서울살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외침, 설사 떠돌이 생활을 할지라도, 머무는 동안만큼이라도 내 동네와 이웃을 누리고 싶은 외침, 독거청년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아주 작은 외침.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낸 틈바구니에서 가쁘게 살아가는 독거청년들에게, 이 사회가 이웃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에, 그러한 기회에서 박탈당하진 않았는지 이 연구를 통해 질문을 던진다. 진정한 평등이란, 누구나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이 시대에, 독거청년은 공동체를 누릴 권리가 있다. 지역에 정착하지 않는 세대라 할지라도, 잠시 머무는 기간이라도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배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동네작당이 쏘아 올린 작은 연구가 나그네와 같은 독거청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 김성희, 장로사(2010). “사회 연결망 분석 연구동향 및 정보학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정보관리학회지』, 27(4):1-87.
- 김수정(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사회보장연구』, 26(3):49-72.
- 김안나(2014). “가족과 사회연결망: 독일과 한국의 개인관계에 대한 비교연구.”『한국사회학』, 37(4):67-99.
- 김용학(2004). 『사회연결망이론』. 출판지: 박영사.
- 김우식(2006). “연결망, 불평등, 위법행동: 비도덕성을 생성하는 사회적자본.”『한국사회학』, 40(5):29-36.
- 김재형(2008). 서울시 1인 가구의 거주지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논문.
- 김정숙(2018).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블루노트 이슈 &정책』, 96:1-8.
- 김형용(2010). “지역사회 건강불평등에 대한 고찰-사회자본 맥락효과에 대한 해석.”『한국사회학』, 44(2):59-92.
-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2007). “비혼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0:215-218.
- 박찬웅,배영(2016). “사회적 연결망의 특성과 우울.”『한국인구학』, 39:61-77.
- 서유리(2011). 부모애착과 자아정체감이 고등학생 친구관계에서의 친밀감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제신학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논문.
- 성영애(2013). “군집분석을 통해 살펴본 1인 가구의 연령대별 소비지출패턴”,『소비자학연구』, 24(3):157-181.
- 손동원(2002). 『사회네트워크분석』. 출판지: 경문사.
- 안현찬·구아영(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7년 5월 31일)
- 윤영수, 채승병(2005). 『복잡계개론』. 출판지: 삼성경제연구소.

- 이민아(2013). “사회적 연결망의 크기와 우울.”『한국사회학』,47(4):171-200.
- 이수욱(2016). “청년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국토정책 Brief』,560:1-8.
- 이인숙(2009). “한부모 여성의 멘토링 연결망 특성이 멘토링 기능 및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효과 연구.”『한국사회복지학』,61(4):67-84.
- 이정영(2007).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관계망이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소외감과 우울감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논문.
- 이혜정, 유규창(2013). “Y세대의 일과 삶의 균형”,『노동정책연구』, 13(4):1-31.
- 임도빈(2009). “질적 연구 방법의 내용과 적용전략: 양적인 질적 연구와 질적인 질적 연구.”『정부학연구』, 15(1):155-187.
- 정성훈(2007), “현대 도시의 삶에서 친밀공동체의 의의”,『서울시립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49:10p
- 정순희, 임은정(2014). “청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연구.”『Financial Planning Review』,7(4):1-19.
- 정현정(2012), 도시근로자의 주관적 빈곤감에 관한 연구: 사회 연결망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논문.
- 차경욱(2008). “남성 일인가구의 경제구조 분석-연령 및 혼인상태에 따른 비교.”『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253-269.
- 최경호,유진아(2015), “R을 이용한 사회연결망 분석에 대한 고찰.”『한국융합학회논문지』, 6(1):77-83.
- 최은영, 이봉조(2014), “서울시 청년 주거빈곤 실태”,『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56-61.
- 최인영(2015), “Z세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문의 교육목표에 관한 연구”,『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3):675-683.
- 허정원(1998).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관계망 지원과 이혼 후 적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논문.
- 홍은주,정혜선(2014), “후기 청년기 여성의 미술치료 폐험에 관한 질적 연구”,『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1):119-135.
- Alcock, Pete and Jo,Campling(2006). 『Understandingpoverty』. Basingstoke』 (출판지: Hampshire,England:Macmillan)
- Cohen and Sheldon(2004).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 Crooker, Karen J and Janet P.Near(1998), “Happiness and Satisfaction: Measures of affect and cognition?”『Social IndiciatorResearch』, 44:195-224.
- Gilliland, D. I. and N. Donthu(2002), The Single Consumer,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42(6):77-84,
- Haller,Max and Markus,Hadler(2006), “How socialrelations and structures can produre

happiness and unhappiness: An internation comparative analysis.”, 『SocialIndicatorsResearch』  
Rothstein, Bo.(2010), “Happiness and the Welfare State” 『Social Research』, 77(2):441-168.

Smola, K. W., and C. D. Sutton(2002). “Generational differences: Revisiting generational work values for the new millennium.”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363 ~ 382.

Wasserman, S. and Faust, K(1994). 『Social Networks Analysis; Methodand Application.New York』. 출판지: Cambridge

“서울살이”,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40905105111538>(검색일: 2019년 11월 1일)

“질적 연구 자료 분석법-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중심으로,”

<http://oer.pusan.ac.kr/%EA%B5%90%EC%9C%A1%ED%95%99/7-%EC%97%B0%EA%B5%AC%EB%B0%A9%EB%B2%95-%EC%A7%88%EC%A0%81%EC%97%B0%EA%B5%AC1-pdf> (검색일: 2019년 11월 22일).

KOSIS(통계청, 2017신혼부부통계), (검색일: 2019년 11월 6일)

KOSIS(통계청, 2019.9경제활동인구조사), (검색일: 2019년 11월 6일)

KOSIS(통계청, 2015~2018 인구총조사), (검색일: 2019년 11월 6일)

“[청년주거 빈곤] 서울 1인 청년가구 3명 중 1명 ‘자옥고’에 살고 있다(이환주 기자, 2019.01.10.)”,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EC%B2%AD%EB%85%84%EC%A3%BC%EA%B1%B0-%EB%B9%88%EA%B3%A4-%EC%84%9C%EC%9A%B8-1%EC%9D%B8-%EC%B2%AD%EB%85%84%EA%B0%80%EA%B5%AC-3%EB%AA%85-%EC%A4%91-1%EB%AA%85-%E2%80%98%EC%A7%80%EC%98%A5%EA%B3%A0%E2%80%99%EC%97%90-%EC%82%B4%EA%B3%A0%EC%9E%88%EB%8B%A4/ar-BBS3aX1#page=2> (검색일:2019년 11월 13일)

“산업화세대→베이비부머→X세대→밀레니얼세대→Z세대···세대별로 성장 배경과 소비 패턴·가치관이 모두 다르죠~”(고재연 기자, 2019.10.1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101267181> (검색일:2019년 11월 22일)

“Z세대가 온다 밀레니얼 세대와 닮은 듯 다른 신인류 스마트폰 쥐고 자란 ‘포노 사피엔스’(노승욱, 나건웅 기자, 2019.06.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6/417639> (검색일:2019년 11월 22일)

‘밀레니얼·Z세대’ 부상···기업, 새 소비자층 이해해야 생존(조민정 기자,

2019.05.17)”,<https://www.yna.co.kr/view/AKR20190517043000008> (검색일:2019년 11월 22일)

# Abstract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의 가구원 수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서울에서의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한 소규모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47%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1인 가구 중 주요 연령층은 20~30대 청년인데 청년 1인 가구는 대부분 주거비 부담 때문에 원룸촌, 고시원 등 공동체와 거리가 먼 생활양식을 취하고 있어 공동체 소외에 노출되어 있다.

개인이 고립되고 원자화되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잇는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마을 문제의 해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막상 마을공동체 사업의 주요 참여자 중 20대 청년 참여율은 약 6%로 서울시 청년인구비율 대비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회구조 가운데에서 사회적 연결망이 부재한 환경은 개인의 고립을 심화시킨다. 또한 공공의 지원이라는 촉진과정이 없이 청년층의 자생적인 공동체 회복과 활성화는 매우 어렵다. 이에 공동체의식 및 지역사회에서의 연결망 경험이 부재한 청년층이 지속됨에 문제를 인식해, 독거청년이 겪는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공동체 욕구 및 유형을 탐구하여, 실현 가능한 공동체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의 주요 개념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서술하는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독거청년의 현황과 특성, 공동체 정책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 조사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였다. 공동체 지원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정책을 분류하고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공동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독거청년들은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므로 현행되는 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경로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연구에서는 실제 독거청년의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체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독거청년을 직장인·대학(원)생·무직 그룹으로 나눠 개인설문조사와 그룹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적 및 질적 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각 조사방법 별로 조사 항목 역시 달리하였다. 그 결과를 ‘서울살이’, ‘사회적 결핍과 소외’, ‘공동체 욕구와 유형’, ‘정책 수요’ 등의 주제로 나눠 정리 및 분석을 진행했다.

경제·직업·문화 등의 다양한 인프라 기회를 누리기 위해 서울에서 1인 가구 생활을 하게 된 독거청년들은 실제로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이 전무한 상태였다. 때문에 이들은 기능적·정서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있었으며,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이 존재할 시 해당 결핍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에 동의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주의 기반의 청년세대에 서도 여전히 공동체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가 존재함을 발견했으며, 독거청년들도 직접 공동체 욕구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독거청년들은 현 공동체 정책에 있어서는 참여도 및 선호도가 높지 않은 실태였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 및 분석하고 독거청년이 원하는 관심사·생활이슈·동네의제 등의 다양한 공동체 성격을 발굴해 공동체 유형의 재구성 과정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독거청년을 위한 공동체 정책의 개정 및 보완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필요성을 기반으로 독거청년 사이 생활권 내 공동체 형성 지원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더해 이에 착안한 실천과제와 핵심전략들을 차례대로 제시하였다. 독거청년의 현황 및 수요를 기반으로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목표와 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직접 지원보다 공동체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모임 형성·활동·공간 등의 다양한 간접 지원의 내용 및 활성화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더해 공공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특성상 신뢰성과 전문성의 확보를 중요하게 꼽았으며, 마지막으로 독거청년들이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권 내 공동체에 관해서 지역맞춤형 및 청년 대표성 확보 욕구가 강함을 강조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

작은연구 좋은서울 19-06

청년은 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는가  
: 독거청년의 생활권 내  
사회적 연결망 형성을 위한 공동체 정책 제언

---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19년 11월 24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